

2003 연구보고서 230-18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연구책임자 : 김종숙(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수미(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노동이동은 노동시장 내 산업간, 직종간, 사업체간 이동 뿐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유·출입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은 취업활동을 하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발적 노동이동은 개인에게 자신의 경력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며 비자발적 노동이동은 노동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체 노동력(stock)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유량(flow)의 변화로 인하여 한 시점에서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이동은 노동공급자 개인에게나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구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빈번한 노동이동과 낮은 노동시장 정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고, 타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유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은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여성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 및 이를 둘러싼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유출입과 노동시장내에서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력의 이동행태도 과거의 노동시장퇴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산업간, 직종간 변화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었던 경제위기 이후의 여성의 노동이동은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는 여성 노동이동의 역동적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와 「연간 노동패널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거시적인 변화속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이동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의 여러 연구자 분들과 좋은 연구 성과를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 12.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여성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여성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의 이동행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의 노동이동의 경우, 과거에는 노동시장퇴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산업간, 직종간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었던 경제위기 이후의 여성의 노동이동은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주로 통계원시자료의 분석을 이용한다. 통계원시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2002년 기간의 월별자료를 패널화하여 이 기간동안 개인의 노동이동을 자세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는 월단위 자료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 하나의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8-2002을 이용한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별 이동 등 긴 시계열을 가지기는 하나 노동시장 및 개인적 변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본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의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이들 두 자료는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많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상태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과 ‘로짓분석’을 함으로써, 한국여성 노동이동의 동태적 측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채택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가. 월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성별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성과 여전히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불안정성, 경력단절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진입 시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어느 한 집단이 일률적으로 취업 이행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성별 취업 이행률이 달라진다. 주로 6~8월, 또는 10~12월에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3~4월에는 남성의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고용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추론케 한다.
- 산업간 이동을 보면 여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광업직’, 남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전기가스, 건설, 도소매,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의 성별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두 번째 종사 산업에서도 기존의 성별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데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광업직’의 남성 비율 증가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 직종간 이동을 보면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 종사자의 남성 비율은 정확히 여성의 두 배가 되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노동이동 후 두 번째 취업 직종 분포도 이와 같은 성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 이동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직종간 배타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위신이 높은 직종일수록 해체의 경향이 강하고 반대의 경우 직종 이탈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직종별 이동에서 제외된 연속취업자의 경우 직업위세가

높은 직종의 취업연속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번 이 직종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진입장벽의 존재로 이 직종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이후 해체과정을 겪게되는 것이다.

- 종사상 지위의 성별 차이는 산업, 직종간 차이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성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동 후의 종사상 지위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더 크게 발견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종사상 지위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그만큼 한국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여성의 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남성에 비해서 이 연령대의 취업이행률 감소분이 작지만 연령 증가에 따른 취업진입장벽은 확인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모두 취업률이 의미있게 낮고 전문대졸과 고졸사이엔 차이가 없으며,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낮아진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여성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나 다만 교육연한의 증가로 인해 입직 시점이 연기되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혼인상태에서는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여성 모두 취업률이 낮아진다. 사별/이혼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기존 연구와 배치되기도 하나 이것이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첫 번째 종사 산업으로는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률이 높고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률이 현저히 높다. 이 점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진행 현상을 확인하기도 하며 여성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확인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여성의 비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모두 비취업률이 높아진다. 즉 준거집단보다 나이든 세대에선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보다 젊은 연령대에선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여성의 취업연속성을 증대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비취업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다. 무학력자의 취업단절 경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취업단절 이유는 다를 것이지만, 여성의 학력과 취업연속성이 정(+)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로는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모두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편모 가족 또는 이혼 독신 여성 등의 고령 여성의 취업 안정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 종사 산업으로는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 유지 경향이 높고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단절 경향이 높다.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직의 취업 유지 경향이 강하며 생산/노무/기능직은 사무직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노동이동 실태에서 이들 집단은 비취업 경향이 강하며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나. 연도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 연도별로 여성의 노동이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여성 취업자속자의 규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은 경제위기 직후에는 적은 규모였으나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실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경제위기 직후에는 다소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줄어들었고 실업상태에 남아있는 집단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이나 실업으로의 전환도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말해주는 것은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양극화 추이이다. 즉 취업자의 취업지속성이 높은 것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의 그러한 상태지속성이 또한 높은 것이다. 경제위기 직후에는 여성의 구직이 보다 활발하고 취업에 대한 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후 경기회복을 거치며 이러한 추세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실업자의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기존에 취업을 하고 있는 집단에겐 다소 양호하게 변화하고 있거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취업지속의지가 강해지거나 여성의 취업이 필요한 집단을 중심으로 취업지속성은 강화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는 더욱 어렵거나 굳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의사를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참가 제고 정책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실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탈출 방안들은 여성근로자에게 별다른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비취업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대다수는 실업자가 아니고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이들이 5차 년도 기준으로 30-39세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취업 이유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보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의 비취업을 고착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령여성의 비취업자 비율이 높아 전체 비취업지속자 여성 중 33.7%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50대 여성의 비취업자 규모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령자의 취업이 60대 이후 단절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비취업자의 이유를 보면 고령이 가장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 비취업지속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 많으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전소득에 그쳐 근로소득이 더욱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자격증이 있거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취업으로의 이행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아 경

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인 양극화, 즉 한축은 고학력 경력직을 중심으로 한축은 저학력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정규직으로 이후 장년층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젊은 층은 교육 등 고학력 집단의 취업이 장년층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 숙박업과 같은 산업으로의 취업이 많았다.

- 비경제활동인구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집단은 육아와 같은 장애요인에 의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집단이 여전히 많으며 동시에 고령자이거나, 직업경험이 일천하여 취업할 가능성이 낮거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 취업의사가 없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중 취업능력이 없는 집단은 수요측면에서 고려할 때 취업 가능성이 실제로 낮은 집단이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고, 직업능력이 있는 집단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정책 과제

여성 취업자 정책은 여성집단 내부에 있는 취업상의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고, 각 목표집단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반적인 여성노동의 현황에 입각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을 제언하며, 둘째는 여성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걸맞는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탄력 근로 정책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

다. 보육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라. 여성 비경제활동자 정책

- ❑ 차별화된 정책집단의 발굴
- ❑ 상담-훈련-취업의 연계
- ❑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연계한 비취업자 지원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자료	5
II.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7
1. 노동이동 이론	9
가. 노동공급측 이론	10
나. 노동수요측 이론	11
다. 기타	12
2. 선행연구 검토	14
III. 월별 노동이동의 실태와 요인	21
1. 자료와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23
2. 노동력 상태의 변화	28
가. 취업 이행 과정의 성별 실태	29
3. 산업간 노동이동 실태	39
가. 산업간 노동이동의 특징	39
나. 산업별 노동이동의 특징	42
4. 직종간 노동이동 실태	48
가. 직종간 노동이동의 특성	48
나. 직종별 노동이동의 특성	50
5. 종사상 지위의 변화 실태	54
가. 종사상 지위의 총량적 변화	54
6. 여성인력의 노동이동 영향 요인과 전망	60
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60
나. 노동이동 영향요인 분석 결과	63
7. 분석결과 요약	71
가. 실태분석 결과	71

나. 취업과 비취업 이행 분석 결과 요약	73
IV. 연도별 노동이동	77
1. 경제활동상태 변화	80
가. 총 유량 규모의 파악: 1년 후의 변화	81
나. 5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84
다.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 요인 분석	87
2. 취업자의 특성과 이동	107
가. 5년간 취업을 지속한 집단	107
나.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15
다.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116
라. 소결	120
V. 결론 및 정책과제	123
1. 연구결과 요약	125
가. 월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125
나. 연도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127
2. 정책방향	129
3. 여성 취업자 정책	131
가. 탄력 근로 정책	132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	134
다. 보육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구축	134
라. 여성 비경제활동자 정책	135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3

표 차 례

<표 III-1> 분석대상의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26
<표 III-2> 첫 취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	34
<표 III-3> 첫 비취업 진입시점의 월단위 성별분포	37
<표 III-4> 조사대상자의 특성	62
<표 III-5>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성별 분석	65
<표 III-6>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연령코호트별 분석 ..	66
<표 III-7>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성별 분석	69
<표 III-8>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연령코호트별 분석	70
<표 IV-1>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표본 규모 (단위: %)	80
<표 IV-2>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81
<표 IV-3>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분포	82
<표 IV-4>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83
<표 IV-5>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활동분포	84
<표 IV-6> 성별 취업경험의 분포	85
<표 IV-7> 5년간 비취업자의 연령분포 (5차년도 기준)	86
<표 IV-8> 여성 비취업자의 비취업 이유	86
<표 IV-9>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91
<표 IV-10> 1998년 여성 비취업자의 1999년 취업상태 선택	92
<표 IV-11>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94
<표 IV-12> 1998, 1999년 여성 비취업자의 2000년 취업상태	95
<표 IV-13>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98
<표 IV-14> 1998, 1999, 2000년 여성 비취업자의 2001년 취업상태 선택 ..	99
<표 IV-15>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102
<표 IV-16> 여성 비취업 지속자의 2002년 취업선택	103
<표 IV-17> 5년간 노동시장내에 있는 집단의 연령별 분포	108
<표 IV-18> 취업지속자의 근로형태	109
<표 IV-19> 남성취업자의 성별 업종 분포	110

<표 IV-20> 여성취업자의 성별 업종 분포	111
<표 IV-21>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113
<표 IV-2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113
<표 IV-23>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유무	114
<표 IV-24 > 근로시간의 분포	116
<표 IV-25> 취업선택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추정결과	119

그림차례

[그림 III-1] 취업이행 유형 분포	30
[그림 III-2] 남성의 취업이행유형	32
[그림 III-3] 여성의 취업이행유형	32
[그림 III-4] 노동이동 유형의 성별 분포	34
[그림 III-5] 노동이동 전후의 산업 분포	42
[그림 III-6] 여성의 산업별 노동이동 분포	44
[그림 III-7] 남성의 산업별 노동이동 분포	46
[그림 III-8] 노동이동 전후의 직종 분포	49
[그림 III-9] 여성의 직종별 노동이동 분포	51
[그림 III-10] 남성의 직종별 노동이동분포	52
[그림 III-11] 노동이동 전후의 종사상 지위 분포	56
[그림 III-12]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 분포	57
[그림 III-13] 남성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 분포	59
[그림 IV-1] 연도별 분석대상의 구분	90

부표차례

<부표 1> 노동력 상태변화(취업↔비취업)	145
<부표 2> 산업간 이동 실태	146
<부표 3> 산업간 이동분포(3범주)	152
<부표 4> 직종간 노동이동 실태	154
<부표 5> 종사상 지위의 변화	156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자료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동이동은 노동시장 내 산업간, 직종간, 사업체간 이동 뿐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유·출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은 취업활동을 하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자발적 노동이동은 개인에게 자신의 경력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며 비자발적 노동이동은 노동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거시적으로는 산업간, 직종간, 사업체간 노동력 이동은 전체 노동력(stock)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유량(flow)의 변화로 인하여 한 시점에서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여성근로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빈번한 노동이동과 낮은 노동시장 정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축적해 온 노동시장 경험과 직장 경력(Job tenure) 수준,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의사결정, 성별 직종 분리 및 임금격차 등의 결과이다(Royalty, 1998).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여성의 노동이동 행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과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수봉 1992). 거의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고, 타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유출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직률이 낮아지지만, 여성은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이동에 대한 정책은 다른 아닌 노동시장 퇴출을 막는 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여성인력의 의존임금을 낮추는 정책 및 직장에서의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을 의미하였다.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은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기업측에서는 기술 및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유연생산방식을 담당할 숙련다능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한편, 임시직 및 파견근로의 채택, 외주 등을 통해 생산 및 고용관리의 탄력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경제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과 같은 고

용제도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이동 및 노동시장 퇴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여성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의 이동행태도 과거의 노동시장퇴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산업간, 직종간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었던 경제위기 이후의 여성의 노동이동은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2장에서는 노동이동 이론 및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성별 노동이동 실태를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추적하여 성별 및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여성 경제활동 상태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규모는 어떠한가, 또한 그러한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내에서의 이동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출이 많은 여성의 경우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 취업자는 비취업자로, 비취업자는 취업자로 전환하는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둘째로, 노동시장내에서 이동하는 집단의 규모는 어떠한가, 즉 조사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집단은 어떤 규모인가 그리고 이들은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힌다. 셋째,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밝히고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노동이동을 완화하고 비경제활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주로 통계원시자료의 분석을 이용한다. 통계원시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2002년 기간의 월별자료를 패널화하여 이 기간동안 개인의 노동이동을 자세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는 월단위 자료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 하나의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8-2002을 이용한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별 이동 등 긴 시계열을 가지기는 하나 표본탈락으로 인한 대표성문제 및 노동시장 및 개인적 변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본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의 추이와 원인등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이들 두 자료는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많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상태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근착률을 제고하고 여성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자료

전술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다. 이용기간은 1999년 ~ 2002년도이며 위 기간의 월단위 경제활동상태를 개인별 연속자료로 변형하여 월단위 패널데이터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패널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자료가 아닌 이유로 다른 패널자료보다 표본탈락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의 자료로 이동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변수들은 주로 개인의 노동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자료의 패널화 과정에서 1999년도 70,140명의 조사대상은 4년이 경과한 2002년도에 51,222명으로 감소하였다. 우측절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된 51,22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분석한다. 기간은 1998년 ~ 2002년의 5개년

간 구축된 자료이며 전체적으로 5차년도 조사를 모두 완료한 3,257 가구에 응답을 완료한 개인은 8,653명이다. 이 중 남성은 4,197명, 여성은 4,456명이다. 노동패널은 광범위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상황, 노동시장 여건, 개인의 주관적 상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축적인 연단위로 이루어져 이동상황을 자세하게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노동이동 이론	9
2. 선행연구 검토	14

1. 노동이동 이론

노동이동(labor mobility)은 근로자들의 지역간 이주(migration),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 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기업간 이동(inter-firm mobility)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어수봉 1992). 이에 덧붙여 여성의 노동이동은 주로 노동시장내에서의 이동이라기 보다는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만큼 여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이동 연구에는 직업의 이동에 따르는 산업의 변화, 직종의 변화 등 뿐 아니라 경제활동상태변화를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각각의 노동이동은 다소 상이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 근로자가 이동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하나는 더 좋은 조건(임금, 근로조건 등)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quit), 둘째는 기업이 이 근로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layoff)이다. 전자는 노동공급이 이동을 견인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노동수요 측에서 이동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이동 중 해고로 인한, 즉 수요 측에서 견인하는 노동이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에서 더 좋은 조건은 비단 노동시장내에서 더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직장으로의 이동만을 의미함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라는 무급노동과의 관계 내에서 결정되므로 가계 내에서의 생산이 근로자 개인에게 충분한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자에게는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화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노동이동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직장의 이동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의 참가자체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이동의 이론인 직장이동 이론을 정리하기로 하며 경제활동상태변화에 대한 응용가능성을 도출하기로 한다. 공급측에 의하여 견인되는 이동과 수요측에 의하여 견인되는 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가. 노동공급측 이론

공급측 요인 중 대표적으로 직업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이동을 의미한다. 탐색(search theory)이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설명하면 직업탐색 기간에 따라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확률이 증가하며 동시에 비용도 증가하므로 한계이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탐색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한데 기인한 것이다. 즉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인적자원 투자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탐색시간투자와 탐색을 위하여 포기하는 기회비용, 정보탐색을 위한 재화의 투입 등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이동을 통하여 자신의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률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수익률의 현재가치} = \sum_{t=1}^T \frac{B_{it} - B_{0t}}{(1+r)^t} - C$$

B : t 시점에 노동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태(i)에서 얻는 효용수준,

B_{0t} : t 시점에 원래의 상태에 있었을 경우 얻는 효용수준,

T : 노동이동 후 그 상태를 지속할 기간 예상치,

r : 할인율,

C : 이동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동이동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해 주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이동전과 이동후 발생하는 효용이나 수익의 차, 둘째, 이동후 상태를 지속할 예상기간, 셋째, 장래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마지막으로 노동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물질적 비용 뿐 아니라 심리적 비용 등 광범위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동으로 인한 수익의 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새로운 상태가

1) 보수-자원 모형(The Reward-Resource Model)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론이다.

지속될 가능성이 클수록,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작을수록 이동에 따른 수익은 증가한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노동시장내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의 수익보다 미래의 직장에서의 예상수익이 클수록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직 후 예상되는 직장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이 커 수익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이동이 발생가능성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이동이 일어날 경우 예상수익이 비용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간 이동 뿐 아니라 지역간 이동, 산업간 이동, 직종간 이동 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동으로 인한 비용이 낮은 집단은 이동의 가능성이 크다. 즉 저임금근로자 등은 기대수익 보다는 탐색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더욱 빈번하게 이동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농촌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업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더욱 노동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 뿐 아니라 노동시장외부와 내부를 넘나드는 이동 또한 매우 빈번하다. 즉 취업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취업과 비취업의 반복이 매우 빈번하다.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상효용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효용수준과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을 경우 효용수준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전환에 상대적으로 저 비용이 수반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²⁾

이러한 논의는 과거의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상당부분 축적되어있다. 선행연구검토에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나. 노동수요측 이론

기업의 관점에서 근로자가 기업으로 유입될 경우 입직(accession), 기업을 떠날 경우 이직(separation)으로 표현한다. 즉 노동이동을 노동수요측인 기업의 입

2) 이러한 노동시장 참가를 설명하는데 통상 유보임금 이론(reservation wage)을 적용시켜 왔다.

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동은 해고에 의한 이동이 대표적이다. 일시해고(layoff)는 기업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는 제도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고(discharge)는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업이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시해고나 해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공석경쟁모형(The Vacancy Competition Model)에서와 같이 현 재직자가 죽거나 직장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패쇄적이다. 이 경우 공석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종업원이 일자리에 남아있으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낮은 직장 탈퇴율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은 많은 집단으로 하여금 해고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여성은 해고에 있어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를 점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소득은 가계의 부차적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즉 해고의 사유가 생산성 및 직무불일치 등 뿐 아니라 기업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변수들을 우선시하였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다. 기타

이외에도 노동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왔다. 그 중 여성의 노동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기회제한 모형(The Limited Opportunity Model)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여성, 비백인, 나머지 소수 노동력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이동기회에서 제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회 제한(Limited Opportunity)은 명백한 차별(Becker, 1971; Thurow, 1969), 통계적 차별(Baron & Bielby, 1986; Thurow, 1975), 여성과 소수의 직장이 갖는 성격(Baron & Bielby, 1985; Gordon, 1972; Kanter, 1977), 사회화와 주관화된 정형(internalized stereotype, Hartmann, 1976; Marini & Brinton, 1984)과 같은 거시사회 요인의

다양성에 의해 야기된다. 어떤 메커니즘이든지, 이러한 제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더 좋은(better)” 직장 취득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구성원들은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낮다. 두 번째, “더 좋은(better)” 직장으로의 이동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들은 직업경력 기간 동안 상향으로 직업이동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Rosenfeld, 1978, 1980; Treiman, 1985), 여성의 직업경력이 그 상태에 머물러있음을 설명한다(Kanter, 1977).

요약하면 노동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크게 공급측에서 이동을 파악하는 탐색이론 및 인적자본이론, 수요측의 해고에 관한 이론, 그 밖에 제도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기회제한 모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이동은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동, 경기흐름과 함께 발생하는 해고, 제도적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발적 이동 및 노동시장 퇴출과,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 일시해고(layoff),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두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대표적인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노동패널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로 노동의 공급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개개의 근로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는 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노동의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는 결과적인 측면은 또한 원인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하는데 예를 들면 6세 미만의 자녀보유나 가구의 상황,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연령과 같은 변수들은 개인적인 변수이나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는 공급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노동수요측에서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여성노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취업과 비취업으로의 상태이동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장지연(1997)의 여성의 첫 자녀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퇴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나 취업에서의 비취업으로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유용한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바 있다(김영옥 1999).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여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후 40대에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참가를 하더라도 이들의 노동시장내 지위는 매우 열악하여 과거와는 직업적 위신이 매우 다른, 즉 낮은 위신을 가진 직업으로 취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과거의 직업경험과는 무관한 부문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산업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직종은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와 자녀의 보육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는 이러한 경향이 둘째자녀의 출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김영옥 2002). 첫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여성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돌일 경우 보육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 시기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근로하여 생활의 기반을 가지게 되는 생애주기상의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기 여성들의 유보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데 이에 비하여 근로로 인한 비용상승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가져오게 된다. 즉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이동보다는 취업과 비취업의 반복이라는 경우에 더욱 많은 정책의 초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수미(2002)는 그의 연구에서 한국여성의 생애과정과 경제활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여성은 생애사건인 혼인, 출산, 어린 자녀의 유무와 같은 요인들이 첫 취업으로의 이행과 비취업으로의 이행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알려진 바와 같은 인적자본의 규모는 아니었다. 또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을 살펴보면 일생에 걸친 총 취업경험과 근속년수가 일천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여성노동시장의 경우 생애주기와 연동된 시장노동의 공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혀지는 사실이며 이는 가계생산과의 유기적인 관련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노동시장내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 초의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로는 어수봉(199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1991년의 『제조업 고용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업별, 산업간 노동이동(중도채용비율, 이직률, 근속년수, 경력연수), 직장이동 횟수 등을 분석한 후 생산방식(장치생산방식여부, 기능의 성격 등)과 노동이동과의 관계, 노사관계와 직장이동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노동이동과 관련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밝혀주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동과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유휴인력인 여성인력을 이용하여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성인력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잘못 산정한 결과이며 여성들은 유휴노동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노동력이 생산직 등의 현장을 떠나 서비스 부문이나 향락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통계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화라는 것이다. 우리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학력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 제조업과 생산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직은 저임금에 종사하고 연령인 낮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이동의 평균적인 회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유의할 점은 직장이동이 더 많다고 하여도 근속기간이 여성이 더 긴 것은 아니며 이는 남성이 경력초기 이동은 더 많이 하지만 일단 근속하게 되면 장기근속하며 여성은 직장이동은 적으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월별 노동력 이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또한 수행되었다. 신동균(1999)은 기존의 총량분석에서 더 나아가 노동이동의 실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주된 분석내용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월별로 패넬화하여 1998년1월부터 9월에 이르는 단기간동안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가지 노동력상태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경제위기 직후 급증하였던 실업에 있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구직자들이 취업으로 탈출하는 기간과 이에 따른 장기실업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동태적 분석의 시도는 횡단면자료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동의 총량 뿐 아니라 내용까지 파악하고자 한 시도이다.

그러나 신동균(1998)의 연구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여성의 노동력 상태변화에 명확한 실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실업률도 낮고 실업에서 빨리 탈출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을 간과한 분석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과대평가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은 취업-실업-비경황을 거치며 상태변화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 취업과 비경황을 주로 거치며 노동력 상태를 변화시키는 집단이다. 따라서 취업의 단절이 구직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실망실업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상태에서 바로 구직상태를 포기하는 집단이 대다수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상태를 준거집단으로 상정하고 이에서의 취업 및 비경황로의 탈출은 노동시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남성중심적인 오류를 가지게 된다.

보다 미시적인 연구로는 90년대 노동이동의 원인을 밝히려는 일련의 연구들 중 윤석천(1996)의 제조업 부문의 숙련형성과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인 경우 이동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임자(1997)의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여도 기본급이 낮고 연령이 낮고 공기업체에 근무할수록, 기혼일수록 노동이동이 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 구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해 특정 산업, 예컨대 제조업 등에서의 이동이 높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이어서 장인석(1999)은 사직과 해고에 따른 노동이동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추정결과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고 일수록, 비생산직일수록,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일수록 사직확률이 낮았다. 즉 사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인적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많았다. 노동이동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요약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이동이 빈번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동이 많으며 소규모 기업체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임금수준이 낮고

저학력일수록 이동확률이 높았다. 생산직의 이동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기업 일수록 이동확률이 낮았으나 산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동의 원인에서 더 나아가 강두용(2001)은 노동이동의 효과 중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을 1차 농림어업, 2차 광의의 공업, 3차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산업간 노동이동 및 성장기여효과의 변화를 I/O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3가지 산업간 노동이동의 성장기여 효과는 노동이동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경제성장률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노동이동 하에서 이루어진 실제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생산함수로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였으며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였다. 노동이동의 총체적 성장기여효과(생산성 상승, 노동투입 변화효과, 자본투입 변화효과)의 합을 구하였다. 고도성장기(1970-90)와 1990년대 이후(1991-97) 노동이동의 성장기여효과를 비교한 결과 1990년대 들어 산업간 노동이동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하여 탈농림 노동이동이 급감하고 탈공업화 노동이동의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동의 성장기여효과는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지고 이는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성장둔화의 핵심적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연구들 외에도 외국의 연구들도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 우선 Royalty(1998)은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sex) 노동이동의 차이는 주로 성별 임금 격차로 설명해왔다.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 행동(behavior)의 몇 가지 차이, 즉 임신가능(childbearing)으로 인한 노동력 중단,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가계에서 보조 소득원으로 아내의 전통적인 지위 등으로 인한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이동을 유발하는 원인임과 동시에 노동이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 집단을 청년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최근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추세와 상대적으로 노동이동이 빈번한 청년층 집단을 통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고학력 여성들은 이동 행태가 남성과 유사하였으나 저학력 여성들은 학력수준이 다른 여성 뿐 아니라 남성집단과 유의하게 다른 이동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내 이동(job-to-job)은 고학력 여성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나 노동시장외부로의 이동(job-to-nonemployment)은 저학력 여성에게서 주로 발

생하였다. 노동시장내 이동(job-to-job)이 탐색 행동으로 해석되고 노동시장 외부로의 이동(job-to-nonemployment)이 가족적 책임, 비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나 일시해고(layoff)로 인한 것이라면 여성의 노동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남성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유량(flow)의 변화로 인한 한 시점에서의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의 가능성을 지적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축적되었다(Barkume & Horvath, 1995). 특히 종사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한 이동에 대하여 William(1995)는 미국에서 1980년 초반 이후 여성의 시간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여성이 시간제 고용에서 전일제 고용으로 이동이 좀더 용이해진 것을 들고 있다. 즉 한번 전일제로 고용이 되면 여성의 경우 이동성향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국내의 정규직 종사자들의 이동성향이 낮은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이동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안착을 위하여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노동시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여건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이동과 관련된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과거와 별 차이 없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이며 노동시장 외부의 가계생산 부문의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로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이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동이 빈번하게 관찰되지 않는 가운데 이 중 연령이 낮은 집단의 노동이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대개 직업탐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면 비효율적인 노동이동의 감소를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임금이 낮은 집단의 노동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점이다. 임금 역시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이동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급측 요인인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과 수요측 원인인 기업의 해고가 맞물린 결과

라 할 수 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의 노동이동이 사무직에 비하여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노동시장내의 이동이 덜 빈번하나 근속 기간은 오히려 남성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연속성 면에서 아직도 단절기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 기업 및 산업과 관련된 요인, 주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문헌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의 부재로 인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여성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그 시기에는 자료의 제약, 즉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거시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을 뿐 미시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연구들은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의 이동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Ⅲ



월별 노동이동의 실태와 요인

1. 자료와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23
2. 노동력 상태의 변화	28
3. 산업간 노동이동 실태	39
4. 직종간 노동이동 실태	48
5. 종사상 지위의 변화 실태	54
6. 여성인력의 노동이동 영향요인과 전망	60
7. 분석결과 요약	71

1. 자료와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해 1962년 8월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 왔다. 1982년 7월부터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월별로 조정하였다. 1998년 1월부터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개편하여, 현재까지 매달 30,000 표본가구, 70,000여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자료를 패널 자료 형태로 변형시킨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이다. 월별자료를 패널화할 수 있으려면 개인식별을 위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가 제공되기 시작한 1998년 6월 자료부터, 이 연구의 또 다른 분석 자료인 노동패널 자료와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³⁾ 패널화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5개월에 걸친 개인 월단위 인구학적 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성, 출생연월일,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전공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1주일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미취업시 1주간(또는 1개월간) 구직여부, 취업시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산업과 직업 등의 확인항목, 그리고 취업시간, 전직유무, 향후 1년간 구직 의사 등이다. 55개월 동안 이 자료에 포함된 개인은 200,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이 연구는 55개월 동안 1개월도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본에 포함되어 정보손실이 없는 27,98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의 시작시점인 1998년 6월과 완료시점인 2002년 12월의 자료를 비교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는 개인식별을 위하여 '조사구 번호', '구역/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개인의 비밀보호를 목적으로 '가구원번호'를 제외한 세 항목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제공의 경우에 한해 국지적으로 1998년 6월 이후 자료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여 분석 대상의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III-1>이다. <표 III-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55개월 동안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기간 경과에 따른 연령 변화, 학력 변화 등 상식에 부합되는 변화와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가 눈에 띈다.

항목별로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전체의 약 56.8%로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분포를 보면, 1998년 6월 첫 시점에선 40대가 2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 20.4%이며 30대는 약 1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5개월후에 이들은 일률적으로 연령이 증가하여 2002년 12월에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으며 20대는 6.1%로, 조사 시점보다 3.7% 정도 줄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었다. 성별 연령분포의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각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15-25세의 젊은 연령층과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력 분포를 보면, 조사 완료기인 2002년 12월에는 고등학교 학력자가 줄고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것은 ‘중학교’ 이하 범주에는 ‘재학’이나 ‘휴학’ 상태인 응답자가 없었던 반면, ‘고등학교’로 표시된 범주부터는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의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성별 학력 분포를 보면, 여성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자가 기간 경과와 함께 약간 줄어든 데 비해, 상대적으로 유배우 상태의 비중감소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혼자가 결혼함으로써 유배우 상태로 진입한 비율보다 유배우 상태에서 이혼과 사별로 인해 독신이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성별 혼인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미혼자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다. 이에 비해 사별의 경우에는 여성이 두 시기 모두 남성 사별자보다 8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긴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배우 상태인 경우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농가와 비농가는 2:8의 비율을 보이며, 군부와 시부는 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6월 분

석 대상 27,987명 가운데 “지난 1주간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0.9%인 17,052명이었으며, 55개월후인 2002년 12월 같은 응답을 한 사람은 전체의 59.5%인 16,648명이었다. 경제활동자의 비중이 이 기간 동안 약 1.4%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분은 1998년 당시 통학하고 있었던 사람의 비중이 2002년도 들어 3.5%나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도 들어 실업자의 감소,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증가, 연령 증가에 따른 연로, 심신장애 등의 증가와 내용을 알 수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의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 추세를 짐작케 해준다. 이 항목의 성별 응답 차이는 대단히 크다. 두 시기 모두 여성 가운데 지난 1주간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응답 비율의 2/3에 못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가량 높아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에서 빠른 기간 안에 또는 곧장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전한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대상의 산업 분포를 보면, 동 기간 전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농업/수렵업/임업’ 비율에 비해 이 산업 비율이 과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자 조사기간 55개월 동안 1개월의 누락도 없는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농업/수렵업/임업’ 종사자들의 표본 안정성이 커서 분석 대상에 과잉 포함되었다. 이후의 노동 이동 실태를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이 부문의 영향력이 과잉 해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산업 분포는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은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고,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은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이에 비해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남성 집중 산업으로, ‘숙박/음식업’과 ‘가사서비스업’은 여성 집중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별 성별 배치는 매우 엄격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 분석대상의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시 기		1998년 6월		2002년 12월	
변 수 구 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15-25세	847(7.01)	1901(11.95)	340(2.81)	1370(8.62)
	-35세	1696(14.03)	2280(14.34)	1249(10.34)	1489(9.36)
	-45세	3227(26.70)	3743(23.54)	2739(22.67)	3444(21.66)
	-55세	2671(22.10)	3034(19.08)	3036(25.12)	3377(21.24)
	-65세	2430(20.11)	2903(18.26)	2528(20.92)	2959(18.61)
	65세 초과	1214(10.05)	2041(12.83)	2192(18.14)	3263(20.52)
학력	무학	623(5.16)	2542(15.99)	592(4.90)	2557(16.08)
	초등학교	2185(18.08)	4102(25.80)	2239(18.53)	4232(26.61)
	중학교	2038(16.86)	2652(16.68)	1997(16.53)	2521(15.85)
	고등학교	4667(38.62)	4918(30.93)	4365(36.12)	4118(25.89)
	전문대	545(4.51)	610(3.84)	722(5.97)	1004(6.31)
	대학	1810(14.98)	1030(6.48)	1852(15.33)	1359(8.55)
	대학원	217(1.80)	217(1.80)	317(2.62)	112(0.70)
혼인상태	미혼	1523(12.60)	2042(12.84)	1369(11.33)	2011(12.65)
	유배우	10183(84.26)	11159(70.17)	10161(84.09)	10588(66.58)
	사별	228(1.89)	2587(16.27)	282(2.33)	3095(19.46)
	이혼	151(1.25)	114(0.72)	272(2.25)	209(1.31)
가구구분	농가	2507(20.74)	3181(20.00)	2422(20.04)	2999(18.86)
	비농가	9578(79.26)	12721(80.00)	9662(79.96)	12904(81.14)
시, 군부	시	8331(68.94)	10930(68.73)	8332(68.95)	10929(68.72)
	군부	3754(31.06)	4972(31.27)	3752(31.05)	4974(31.28)
지난 1주간 활동상태	일하였음	9455(78.24)	7597(47.77)	8964(74.18)	7684(48.32)
	일시휴직	62(0.51)	31(0.19)	126(1.04)	101(0.64)
	구직활동	538(4.45)	253(1.59)	171(1.42)	104(0.65)
	육아	4(0.03)	1018(6.40)	6(0.05)	516(3.24)
	가사	399(3.30)	4854(30.52)	498(4.12)	5556(34.94)
	통학	470(3.89)	1208(7.60)	197(1.63)	524(3.29)
	연로	557(4.61)	694(4.36)	847(7.01)	913(5.74)
	심신장애	150(1.24)	84(0.53)	300(.48)	182(1.14)
	기타	450(3.72)	163(1.03)	975(8.07)	323(2.03)
합 계		12,085(100.0)	15,902(100.0)	12,085(100.0)	15,902(100.0)

(계속)

시 기		1998년 6월		2002년 12월	
변 수	구 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지난주 총 일한 시간	18시간미만 무급종사자	21(0.22)	87(1.09)	28(0.31)	199(2.46)
	1~35시간	504(5.27)	696(8.73)	1399(15.33)	1570(19.40)
	36시간 이상	9035(94.51)	7193(90.18)	7698(84.36)	6326(78.14)
산업	농업, 수렵업, 임업	2328(22.01)	2941(31.89)	2244(21.05)	2755(24.33)
	어업	80(0.76)	46(0.50)	69(0.65)	52(0.46)
	광업	32(0.30)	1(0.01)	27(0.25)	3(0.03)
	제조업	1947(18.40)	1446(15.68)	1838(17.24)	1828(16.14)
	전기, 가스, 수도사업	42(0.40)	3(0.03)	25(0.23)	9(0.08)
	건설업	1256(11.87)	165(1.79)	1202(11.27)	179(1.58)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1541(14.57)	1633(17.71)	1446(13.56)	1985(17.53)
	숙박, 음식업	308(2.91)	1038(11.25)	362(3.40)	1352(11.94)
	운수, 창고, 통신업	921(8.71)	92(1.00)	972(9.12)	133(1.17)
	금융, 보험업	224(2.12)	342(3.71)	209(1.96)	381(3.36)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	502(4.75)	254(2.75)	732(6.87)	487(4.3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536(5.07)	153(1.66)	470(4.41)	259(2.29)
	교육 서비스업	426(4.03)	413(4.48)	399(3.74)	697(6.16)
	보건, 사회복지사업	84(0.79)	139(1.51)	90(0.84)	279(2.46)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32(3.14)	333(3.61)	559(5.24)	559(4.94)
	가사 서비스업	6(0.06)	223(2.42)	7(0.07)	365(3.22)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4(0.13)	1(0.01)	10(0.09)	0(0.00)
종사상 지위	상용	3685(34.83)	1105(11.98)	3152(29.57)	1447(12.78)
임금근로자	임시	987(9.33)	1893(20.52)	1171(10.98)	2554(22.56)
	일용	915(8.65)	1148(12.45)	1156(10.84)	2165(19.12)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910(8.60)	183(1.98)	964(9.04)	266(2.35)
	자영자	3854(36.43)	1735(18.81)	3954(37.09)	2202(19.45)
	무급가족종사자	228(2.16)	3159(34.25)	264(2.48)	2689(23.75)
합 계		10,579(100.0)	9223(100.0)	10,661(100.0)	11,323(100.0)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대 현상이 이 분포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상용직’ 종사자는 1998년 6월, 24.2%에서 2002년 12월, 20.9%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형태인 ‘임시직’과 ‘일용직’은 동기간에 14.5%와 10.4%에서 각각 16.9%와 15.1%로 증가하였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동기간에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인데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1998년 6월, 17.1%에서 2002년 12월, 13.4%로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의 성별 분포도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상용직’의 남성 비율은 두 시기 모두 여성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기간 경과후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여성 비율은 남성의 두 배가 넘으며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율은 각각 남성의 1/5, 2/1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농업/수렵업/임업’의 과대 포함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과잉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잉 집계를 염두에 둔다고 할 때도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은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별로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비정규직화 혹은 주변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동력 상태의 변화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조사대상의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이다. 조사대상의 취업이행 과정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것은 조사대상 27,987명 가운데 두 번의 취업이행과 두 번의 비취업이행 이상의 취업 또는 비취업이행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노동이동이 잦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 취업했다가 그만 두고, 다시 취업한 사람들 또는 조사시점에서 취업상태에 있다가 한번 그만 두고 다시 취업했다가 또 다시 그만둔 사람들이 최대의 노동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취업과 비취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의 노동이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개월 동안 두 번의 (비)취업 이행으로 구성되는 유형은 모두 8가지인데, 이 가운데 조사시점인 1998년 6월 현재 취업한 좌측절단된 사례가 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7이며, 조사완료시점인 2002년 12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례가 유형2, 유형4, 유형5, 유형8이다.

유형1은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비취업자들로 이뤄져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4,506명으로 전체의 16.1%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79%인 3,56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분포를 보

면, 66세 이상이 1,954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2는 조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는 연속취업자들로 이뤄져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8,872명으로 전체의 31.7%이며, 8개의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인다. 이 연속취업형에는 유형1과 달리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와 35%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유형1과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중추적인 연령대인 26세~55세 연령대가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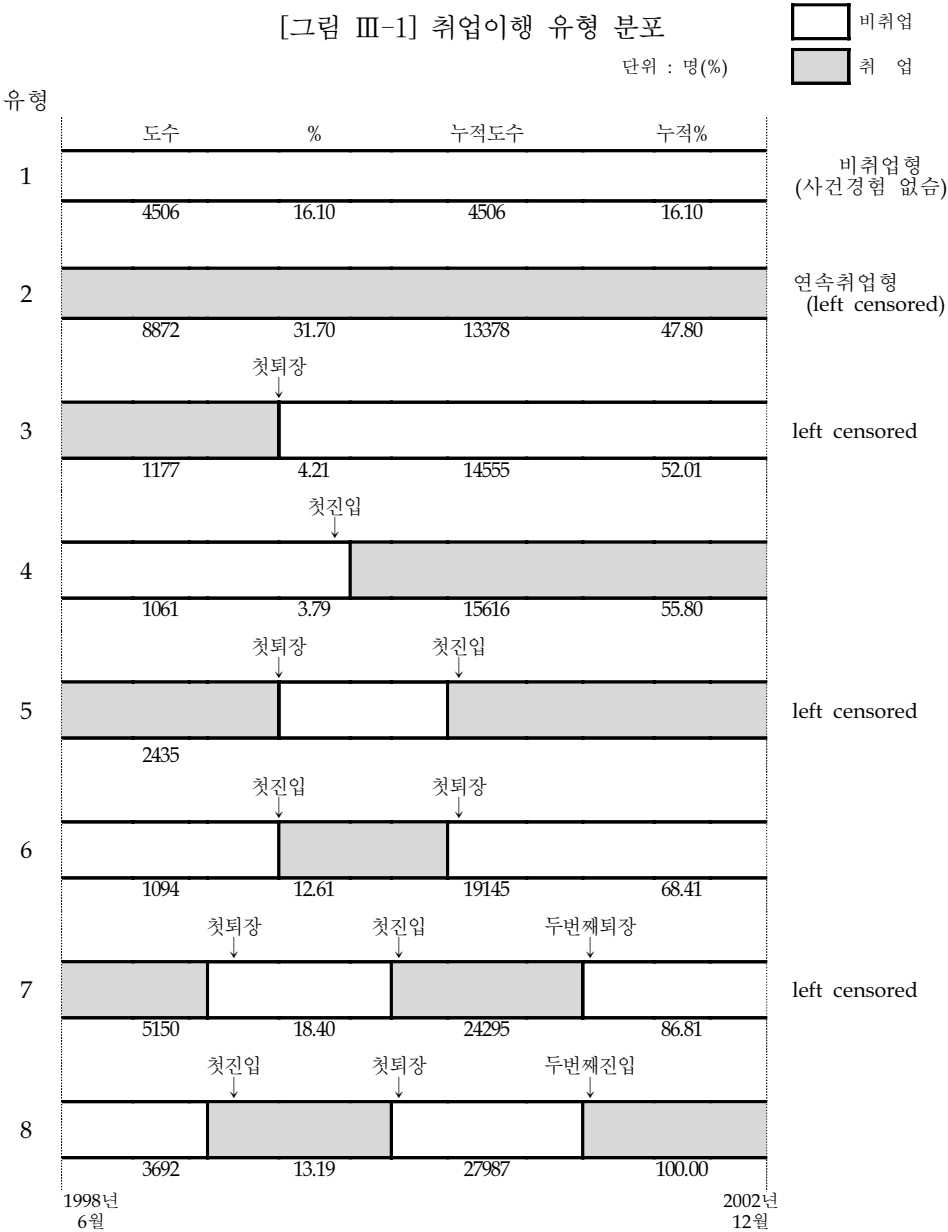
유형3과 유형4, 그리고 유형6은 조사기간 동안 한번의 취업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3은 조사시점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조사기간중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1,177명, 4.2%이다. 유형4는 조사시점에는 비취업상태에 있다가 조사기간 중에 취업으로 이행한 사람들이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1,061명, 3.8%이다. 유형6은 조사기간인 55개월 사이에 취업상태로 이행했다가 다시 비취업상태로 이행한 사람들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1,094명, 3.9%이다.

유형5와 유형7, 유형8은 조사기간 중에 두 번의 취업경험과 비취업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각각 2,435명(8.7%), 5,150명(18.4%), 3,692명(13.2%)이 이에 속한다.

가. 취업 이행 과정의 성별 실태

<표 III-2>는 조사기간 55개월 동안 취업 진입 시점에 따른 분포가 어떠한지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1998년 6월 현재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전체의 35.9%인 10,049명이며, 나머지 17,938명은 비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잠재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비취업자가 취업으로 진입한 분포를 월별로 살펴보면, 1998년 7월에 조사대상자의 1.54%인 430명이 취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조사완료시점인 2002년 12월에 조사대상자의 0.17%인 48명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74.9%인 13,432명이 취업으로 이행하였고 나머지 4,506명은 조사완료시점까지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였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체적인 취업 이행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데 그 이유는 전체 집단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한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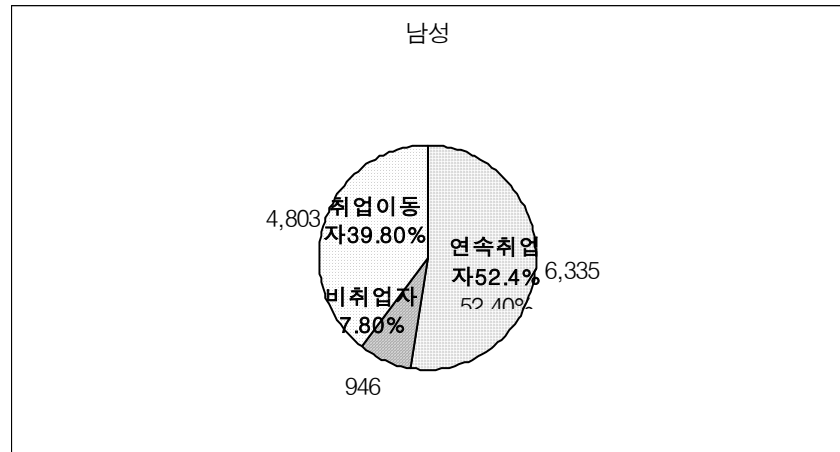
월별 취업진입 시점의 분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기간 경과에 따라 취업 이행률이 감소하지만, 모든 해에서 동일하게 3월과 4월에 취업 이행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2~3배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의 성격상 계절에 따라 취업률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별로 취업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 진입 시점별 빈도 분포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다. 이것은 처음부터 취업한 사람들 10,049명 가운데 남성이 63%인 6,335명으로, 취업으로 이행 잠재성 집단에서 빠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취업으로 이행할 잠재 집단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으며 이러한 성비를 염두에 두고서 월별 취업이행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은 월별로 상이한 이행 패턴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집단이 일률적으로 취업 이행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성별 취업 이행률이 달라진다. 주로 6~8월, 또는 10~12월에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3~4월에는 남성의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고용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추론케 한다. 산업 또는 직종 및 고용 형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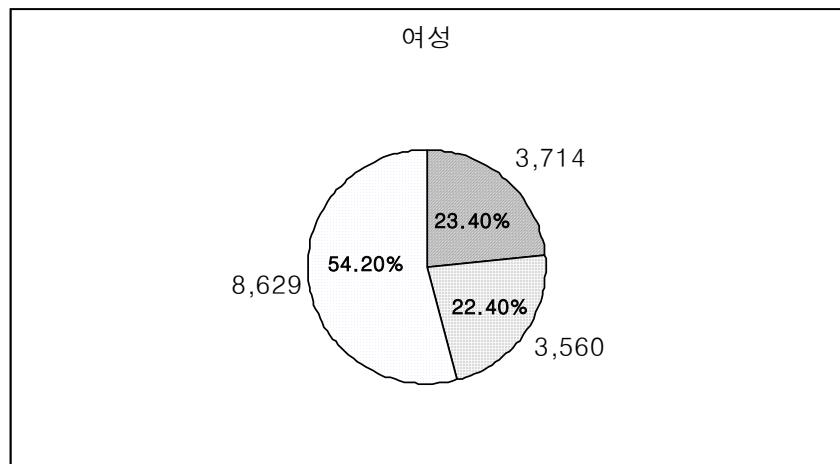
조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으로 이행하지 않고 비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도 전체의 16.1%인 4,506명이다. 이 가운데 절대 다수는 여성으로 비취업유형집단의 79%인 3,560명이 여성이다. 노동력 상태의 변화 즉 취업 진입 시점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은 취업과 관련하여 매우 이질적인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집단은 조사기간 55개월 동안 줄곧 취업한 연속취업형으로서, 전체 여성 15,903명 가운데 23.4%인 3,714명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집단은 조사기간 55개월 동안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형으로서, 22.4%인 3,560명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집단은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사람들로서 나머지 54.2%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12,084명 가운데 52.4%인 6,335명이 연속취업형에 속하고 39.8%인 4,803명이 55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며, 단지 7.8%인 946명만이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그림 III-2] 남성의 취업이행유형



[그림 III-3] 여성의 취업이행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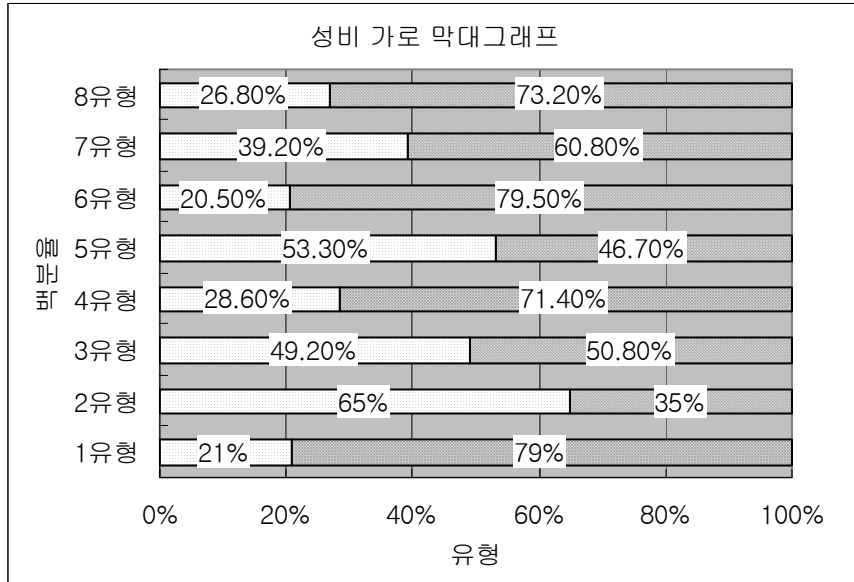
연속취업형과 비취업형을 제외한 [그림 III-4]의 유형3~유형8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노동이동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각 유형의 성별 분포는 다음 <표 III-2>에 나타나 있다. 유형3~유형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13,43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63.3%와

36.7%이다. 따라서 <표 III-2>의 남녀비율은 이 분포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유형은 유형3과 유형5이다. 유형3은 조사시점에서 취업상태에 있다가 한 번의 취업 단절을 경험하고 취업 대기중인 사람들이다. 유형5는 취업상태에 있다가 한 번의 취업 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취업한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유형은 유형4와 유형6 그리고 유형8이다. 유형4는 조사기간 중에 취업을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유형6은 조사기간 중에 취업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비취업 상태로 빠진 사람들이다. 유형8은 두 번의 취업 경험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유형별·성별 노동이동 실태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⁴⁾ 유형3과 유형4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장 극적으로 남녀차를 보이는 것으로 유형5와 유형6을 들 수 있다. 취업 이행 유형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취업 상태에서 잠깐 비취업상태에 머물렀다가 다시 취업 상태로 진입한 형태이다. 이에 비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와 정반대로 비취업 상태에서 잠깐 취업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비취업상태로 되돌아 온 형태이다. 조사기간 중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유형의 성별 차이를 보면, 취업연속형의 남성 우위 및 비취업형의 여성 우위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4) 이 장의 분석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 데이터는 임의의 조사기간(1998년 6월~2002년 12월) 설정으로 인하여 자료가 모두 좌측절단 및 우측절단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 혹은 특성상 이 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비)취업 이행 과정이나 (비)취업 이행을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성별 노동이동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각 개인의 1998년 6월 이전 노동이동 경력이나 2002년 12월 이후의 노동이동 가능성은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비)취업 이행을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림 Ⅲ-4] 노동이동 유형의 성별 분포



<표 Ⅲ-2> 첫 취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

단위: 명(%)

첫취업시점	도수(백분율)	누적도수(누적백분율)	남성	여성
좌측절단	10049(35.91)	10049(35.91)	6335(63.04)	3714(36.96)
1998年7月	430(1.54)	10479(37.44)	180(41.86)	250(58.14)
1998年8月	438(1.57)	10917(39.01)	168(38.36)	270(61.64)
1998年9月	635(2.27)	11552(41.28)	207(32.60)	428(67.40)
1998年10月	558(1.99)	12110(43.27)	211(37.81)	347(62.19)
1998年11月	415(1.48)	12525(44.75)	14.(33.73)	275(66.27)
1998年12月	386(1.38)	12911(46.13)	161(41.71)	225(58.29)
1999年1月	384(1.37)	13295(47.50)	122(31.77)	262(68.23)
1999年2月	428(1.53)	13723(49.03)	168(39.25)	260(60.75)
1999年3月	1134(4.05)	14857(53.09)	404(35.63)	730(64.37)
1999年4月	925(3.31)	15782(56.39)	306(33.08)	619(66.92)
1999年5月	449(1.60)	16231(57.99)	149(33.18)	300(66.82)
1999年6月	350(1.25)	16581(59.25)	120(34.29)	230(65.71)
1999年7月	291(1.04)	16872(60.29)	102(35.05)	189(64.95)
1999年8月	261(0.93)	17133(61.22)	96(36.78)	165(63.22)

(계속)

첫취업시점	도수(백분율)	누적도수(누적백분율)	남성	여성
1999年9月	394(1.41)	17527(62.63)	137(34.77)	257(65.23)
1999年10月	253(0.90)	17780(63.53)	84(33.20)	169(66.80)
1999年11月	215(0.77)	17995(64.30)	81(37.67)	134(62.33)
1999年12月	154(0.55)	18149(64.85)	50(32.47)	104(67.53)
2000年1月	180(0.64)	18329(65.49)	69(38.33)	111(61.67)
2000年2月	301(1.08)	18630(66.57)	101(33.55)	200(66.45)
2000年3月	386(1.38)	19016(67.95)	145(37.56)	241(62.44)
2000年4月	266(0.95)	19282(68.90)	113(42.48)	153(57.52)
2000年5月	213(0.76)	19495(69.66)	85(39.91)	128(60.09)
2000年6月	168(0.60)	19663(70.26)	56(33.33)	112(66.67)
2000年7月	154(0.55)	19817(70.81)	47(30.52)	107(69.48)
2000年8月	144(0.51)	19961(71.32)	58(40.28)	86(59.72)
2000年9月	148(0.53)	20109(71.85)	43(29.05)	105(70.95)
2000年10月	144(0.51)	20253(72.37)	41(28.47)	103(71.53)
2000年11月	126(0.45)	20379(72.82)	40(31.75)	86(68.25)
2000年12月	107(0.38)	20486(73.20)	36(33.64)	71(66.36)
2001年1月	149(0.53)	20635(73.73)	47(31.54)	102(68.46)
2001年2月	176(0.63)	20811(74.36)	88(50.00)	88(50.00)
2001年3月	320(1.14)	21131(75.50)	125(39.06)	195(60.94)
2001年4月	270(0.96)	21401(76.47)	107(39.63)	163(60.37)
2001年5月	176(0.63)	21577(77.10)	53(30.11)	123(69.89)
2001年6月	141(0.50)	21718(77.60)	58(41.13)	83(58.87)
2001年7月	140(0.50)	21858(78.10)	40(28.57)	100(71.43)
2001年8月	84(0.30)	21942(78.40)	25(29.76)	59(70.24)
2001年9月	118(0.42)	22060(78.82)	42(35.59)	76(64.41)
2001年10月	99(0.35)	22159(79.18)	37(37.37)	62(62.63)
2001年11月	87(0.31)	22246(79.49)	28(32.18)	59(67.82)
2001年12月	81(0.29)	22327(79.78)	24(29.63)	57(70.37)
2002年1月	93(0.33)	22420(80.11)	32(34.41)	61(65.59)
2002年2月	106(0.38)	22526(80.49)	43(40.57)	63(59.43)
2002年3月	189(0.68)	22715(81.16)	72(38.10)	117(61.90)
2002年4月	152(0.54)	22867(81.71)	55(36.18)	97(63.82)
2002年5月	94(0.34)	22961(82.04)	32(34.04)	62(65.96)
2002年6月	97(0.35)	23058(82.39)	31(31.96)	66(68.04)
2002年7月	100(0.36)	23158(82.75)	30(30.00)	70(70.00)
2002年8月	60(0.21)	23218(82.96)	21(35.00)	39(65.00)
2002年9月	82(0.29)	23300(83.25)	26(31.71)	56(68.29)
2002年10月	81(0.29)	23381(83.54)	29(35.80)	52(64.20)
2002年11月	52(0.19)	23433(83.73)	21(40.38)	31(59.62)
2002年12月	48(0.17)	23481(83.90)	17(35.42)	31(64.58)
비취업	4506(16.10)	27987(100.00)	946(20.99)	3560(79.01)

나. 비취업 이행 과정의 성별 실태

<표 III-3>은 조사대상 27,987명의 월단위 비취업 이행 분포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4,506명인 16.1%는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취업으로 이행하는 시점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23,481명은 취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비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에서 42.3%인 9,933명은 조사완료시점까지 처음의 취업상태를 유지하여 비취업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결국 좌측절단 및 우측절단된 사례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 13,548명이 한 번의 취업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취업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경우,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 946명을 제외한 나머지 11,138명이 비취업 이행의 잠재 집단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비취업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41.9%인 5,067명이다. 나머지 58.1%인 9,933명은 조사완료시까지 줄곧 취업한 취업연속형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15,903명 가운데 22.4%인 3,560명이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로 좌측절단된 사례이다. 이들을 제외한 12,343명이 비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이 가운데 조사완료시점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한 3,862명을 제외한 나머지 8,481명이 한 번의 취업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13,548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62.6%와 37.4%로 앞 절의 취업이행 경험자의 성비와 유사하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월별 비취업 진입 시점의 성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인 월별 비취업 이행 시점을 보면, 취업 이행 시점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비취업 이행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도 전체 집단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비취업 이행 가능 집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간 경과에 따른 비취업 이행률 감소는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11월부터 1월 사이의 비취업 이행률이 다른 기간에 비해 2~3배 가량 높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계약 기간 또는 산업 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 단절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Ⅲ-3> 첫 비취업 진입시점의 월단위 성별분포

단위: 명, %

첫비취업시점	도수(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남성	여성
좌측절단	4506(16.10)	4506(16.10)	946(20.99)	3560(79.01)
1998年7月	527(1.88)	5033(17.98)	202(38.33)	325(61.67)
1998年8月	502(1.79)	5535(19.78)	199(39.64)	303(60.36)
1998年9月	473(1.69)	6008(21.47)	184(38.90)	289(61.10)
1998年10月	414(1.48)	6422(22.95)	179(43.24)	235(56.76)
1998年11月	887(3.17)	7309(26.12)	343(38.67)	544(61.33)
1998年12月	938(3.35)	8247(29.47)	273(29.10)	665(70.90)
1999年1月	1085(3.88)	9332(33.34)	469(43.23)	616(56.77)
1999年2月	449(1.60)	9781(34.95)	188(41.87)	261(58.13)
1999年3月	401(1.43)	10182(36.38)	153(38.15)	248(61.85)
1999年4月	321(1.15)	10503(37.53)	121(37.69)	200(62.31)
1999年5月	254(0.91)	10757(38.44)	87(34.25)	167(65.75)
1999年6月	275(0.98)	11032(39.42)	100(36.36)	175(63.64)
1999年7月	272(0.97)	11304(40.39)	100(36.76)	172(63.24)
1999年8月	265(0.95)	11569(41.34)	94(35.47)	171(64.53)
1999年9月	231(0.83)	11800(42.16)	96(41.56)	135(58.44)
1999年10月	194(0.69)	11994(42.86)	61(31.44)	133(68.56)
1999年11月	231(0.83)	12225(43.68)	72(31.17)	153(68.83)
1999年12月	400(1.43)	12625(45.11)	143(35.75)	257(64.25)
2000年1月	398(1.42)	13023(46.53)	150(37.69)	248(62.31)
2000年2月	283(1.01)	13306(47.54)	120(42.40)	163(57.60)
2000年3月	208(0.74)	13514(48.29)	72(34.62)	136(65.38)
2000年4月	169(0.60)	13683(48.89)	65(38.46)	104(61.54)
2000年5月	159(0.57)	13842(49.46)	50(31.45)	109(68.55)
2000年6月	150(0.54)	13992(49.99)	43(28.67)	107(71.33)
2000年7月	143(0.51)	14135(50.51)	39(27.27)	104(72.73)
2000年8月	165(0.59)	14300(51.10)	54(32.73)	111(67.27)
2000年9月	159(0.57)	14459(51.66)	49(30.82)	110(69.18)
2000年10月	116(0.41)	14575(52.08)	48(41.38)	68(58.62)
2000年11月	153(0.55)	14728(52.62)	56(36.60)	97(63.40)
2000年12月	302(1.08)	15030(53.70)	113(37.42)	189(62.58)
2001年1月	310(1.11)	15340(54.81)	157(50.65)	153(49.35)
2001年2月	194(0.69)	15534(55.50)	76(39.18)	118(60.82)
2001年3月	171(0.61)	15705(56.12)	65(38.01)	106(61.99)

(계속)

첫비취업시점	도수(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남성	여성
2001年4月	118(0.42)	15823(56.54)	51(43.22)	67(56.78)
2001年5月	96(0.34)	15919(56.88)	32(33.33)	64(66.67)
2001年6月	103(0.37)	16022(57.25)	39(37.86)	64(62.14)
2001年7月	128(0.46)	16150(57.71)	51(39.84)	77(60.16)
2001年8月	143(0.51)	16293(58.22)	48(33.57)	95(66.43)
2001年9月	108(0.39)	16401(58.60)	30(27.78)	78(72.22)
2001年10月	102(0.36)	16503(58.97)	36(35.29)	66(64.71)
2001年11月	97(0.35)	16600(59.31)	32(32.99)	65(67.01)
2001年12月	147(0.53)	16747(59.84)	56(38.10)	91(61.90)
2002年1月	159(0.57)	16918(60.41)	66(41.51)	93(58.49)
2002年2月	108(0.39)	17014(60.79)	44(40.74)	64(59.26)
2002年3月	153(0.55)	17167(61.34)	44(28.76)	109(71.24)
2002年4月	92(0.33)	17259(61.67)	33(35.87)	59(64.13)
2002年5月	76(0.27)	17335(61.94)	20(26.32)	56(73.68)
2002年6月	96(0.34)	17431(62.28)	27(28.13)	69(71.88)
2002年7月	111(0.40)	17542(62.68)	32(28.83)	79(71.17)
2002年8月	85(0.30)	17627(62.98)	29(34.12)	56(65.88)
2002年9月	80(0.29)	17707(63.27)	28(35.00)	52(65.00)
2002年10月	101(0.36)	17808(63.63)	42(41.58)	59(58.42)
2002年11月	100(0.36)	17908(63.99)	38(38.00)	62(62.00)
2002年12月	146(0.52)	18054(64.51)	68(46.58)	78(53.42)
연속취업	9933(35.49)	27987(100.00)	6071(61.12)	3862(38.88)

여성의 월별 비취업 이행률을 살펴보면, 10월~1월 전후로 하여 비취업 이행률이 현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여성의 취업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여성들은 10월~12월에 취업하게 되는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10월~1월 사이에 비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들은 그 취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들은 3월~4월 사이에 취업하는 비율도 높으며 이 시기에 취업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은 종사하는 산업이나 고용 관행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이동시에 산업, 직종, 종사상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산업간 노동이동 실태

가. 산업간 노동이동의 특징

조사대상자 27,987명의 산업간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는 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조사대상자의 월별 자료를 각각 하나의 관찰값으로 치고, 55개월 동안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관찰 대상은 $27,987 \times 55$ 개월인 1,539,285개이다. 이 관찰값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산업별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사항은 <부표 2>와 <부표 3>에 나타나 있다. <부표 2>와 <부표 3>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체적인 산업 이동의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월별 자료를 모두 하나의 관찰값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자료의 풍부한 내용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구성된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 개인의 산업 이동 실태를 추적하는 종단적 자료와는 구분된다. <부표 2>와 <부표 3>에 나타난 산업 이동은 동일한 개인이 매월 새로운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관찰된 산업이동 횟수가 복수 대상자의 단일(또는 복수) 산업 이동 횟수인지 한 개인의 복수 산업이동 횟수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선 조사대상자 27,987명의 개별적인 산업이동 실태만을 추려서 구성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이동 실태를 파악하겠다.⁵⁾

산업이동은 노동시장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취업 상태에 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절에선 노동시장내에서 발생한 산업이동은 제외하고 취업 단절을 경험하고 발생한 산업이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⁶⁾. 이 장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조사대상자들

5) 산업이동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다음에서 이어지는 직종간 이동 실태, 종사상지위의 변화 실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이 절의 분석에서 산업 이동, 직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을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경험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방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종단적 자료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내부의 이동까지 새로운 이동 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지나치게 과도한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여 이 내용은

은 최대 2회의 취업 진입과 2회의 취업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개인마다 취업상태에 머무른 기간(spell)은 최대 2개까지이다. 따라서 산업이동을 밝히는 데, 개인마다 첫 번째 종사 산업과 두 번째 종사 산업만을 구분하여 이동 궤적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산업이동 전부를 추적한 것이 된다. 노동시장내 산업이동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취업 주기(spell)를 가진 유형5, 유형7, 유형8이 이 절의 분석 대상이 된다.

유형5, 유형7, 유형8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결측치를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10,771명이 이하의 노동이동 분석 대상이다. 노동이동 분석대상 10,771명의 61.6%인 6,638명은 여성이고 나머지 38.4%, 4,133명은 남성이다. 이제 첫 취업의 성별 산업 분포를 살펴보고, 이것이 두 번째 산업 분포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산업 이동의 내용은 노동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 내부의 이동 상황이라는 점이다. 분석 기간 동안 한 번도 노동 이동을 경험하지 않고 연속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하의 산업 이동, 직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속취업자들은 노동 이동 내용의 준거 집단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산업 이동의 경우, 연속 취업자 가운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고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노동 이동의 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전체의 32.7%인 3,523명이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농림·어업·광업’으로서 여기에는 전체의 29.3%인 3,153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밖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5.7%인 1,693명이고 ‘숙박·음식업’에 9.8%, 1,055명, ‘공공·개인서비스업’에 10.7%, 1,150명, ‘가사서비스업’에 1.8%, 197명이 각각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분포는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림·어업·광업’으로서 전체 여성의 31.1%인 2,065명이 종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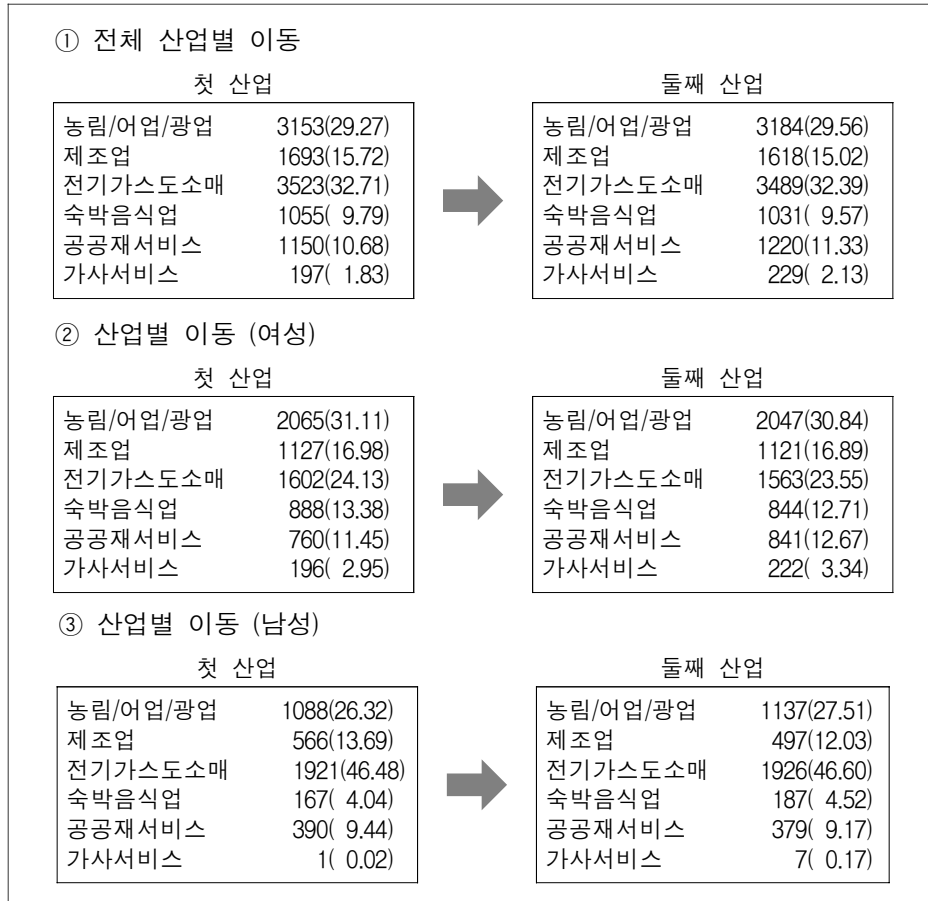
차후의 연구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노동이동은 노동력 상태의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고 있다. 반면 남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서 무려 전체 남성의 46.5%인 1,921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 산업 분포에서 두드러진 점은 ‘숙박·음식업’의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13.4%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데 비해 남성은 단지 4%만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밖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과 ‘공공·개인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이다.

이상의 산업 분포를 가진 첫 취업은 두 번째 취업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 취업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취업의 산업 분포는 첫 취업의 산업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0.3~0.7%의 등락을 보이는 소폭의 변화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조금 감소하고 ‘공공·개인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이 조금 증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조사기간 55개월 동안 총량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동이동에 따른 산업 분포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면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농림·어업·광업’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비율은 조금 감소한 데 비해 남성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조금씩 감소한 데 비해, ‘가사서비스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조금씩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의 여성 비율이 조금 감소한 데 비해 남성의 비율은 조금 증가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산업분포의 특징은 첫 번째 산업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III-5] 노동이동 전후의 산업 분포

(단위: 명(%))



나. 산업별 노동이동의 특징

이번에는 각 산업별로 노동이동에 의해 결과된 산업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겠다. 먼저 첫 번째 산업과 두 번째 산업이 동일한 경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림·어업·광업’이었다. 이 사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첫 취업의 산업이 ‘농림·어업·광업’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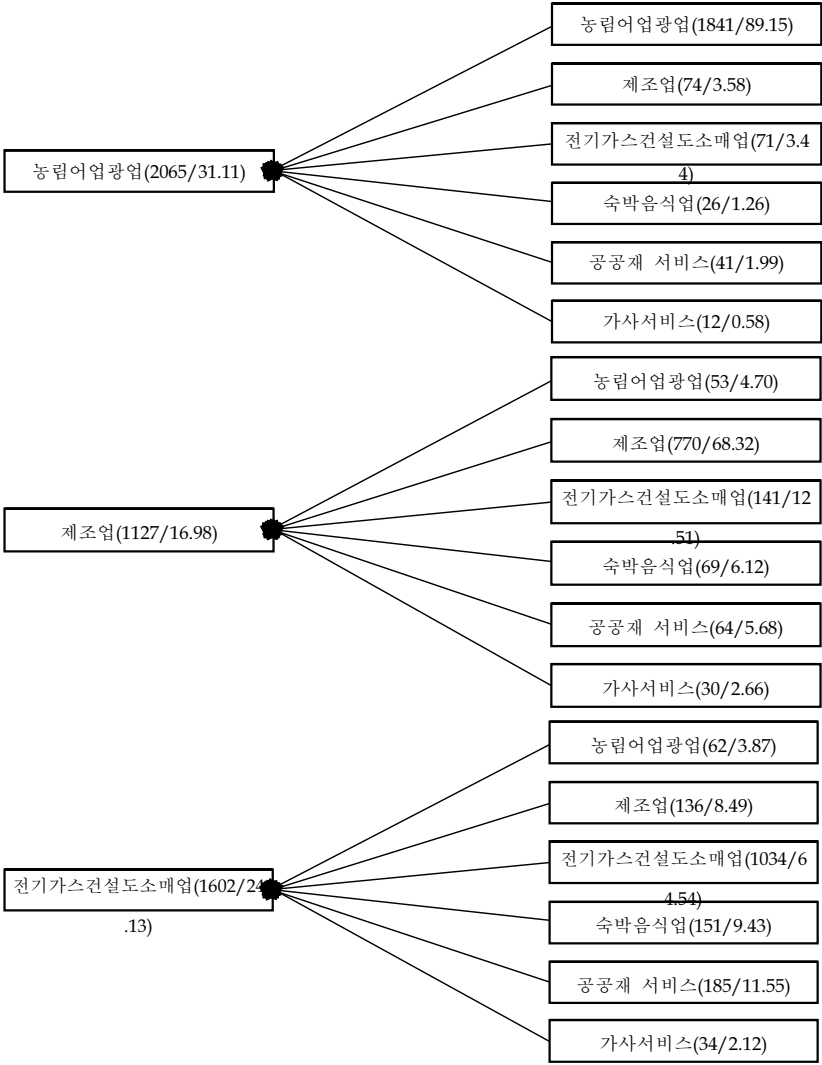
가운데 89%를 넘는 이들이 노동이동 이후 두 번째 종사하는 산업도 ‘농림·어업·광업’이다. 반면, 노동이동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는 산업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서비스업’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공공·개인서비스업’이다.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절반 가량이 노동이동 후에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 ‘공공·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남성들의 54% 가량이 노동이동 후에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68.3%는 노동이동 후에도 ‘제조업’에 종사하고, 12.5% 가량은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산업 이동을 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단절 후에도 ‘제조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낮으며, 여성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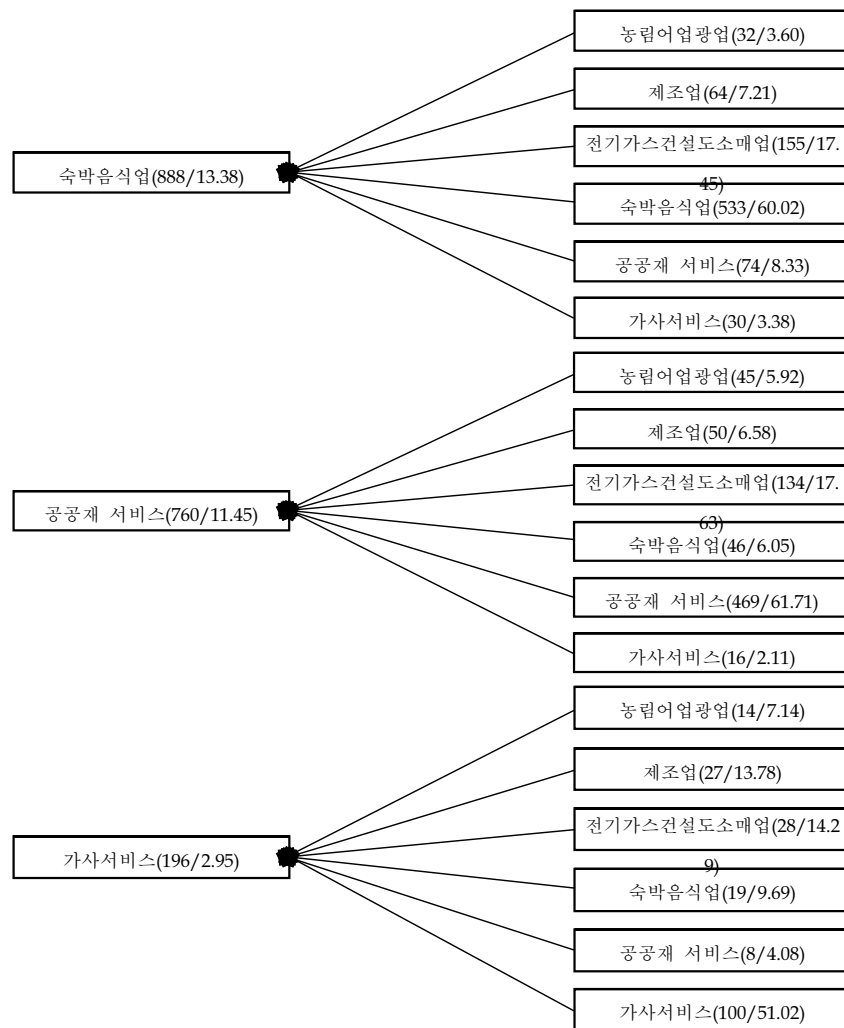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농림·어업·광업’ 다음으로 노동이동 후에도 이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여성의 경우 64.5% 가량이 취업단절 이후의 재취업에서도 이 업종을 유지하는 반면, 11.6% 가량은 ‘공공·개인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첫 취업에서 ‘공공·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61.2% 가량이 이 업종을 유지하며 나머지 17.6% 가량은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공공·개인서비스업’과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은 상호 이동이 용이하거나 이동의 친화성이 있는 산업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박·음식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5.1%와 60%이다.

[그림 III-6] 여성의 산업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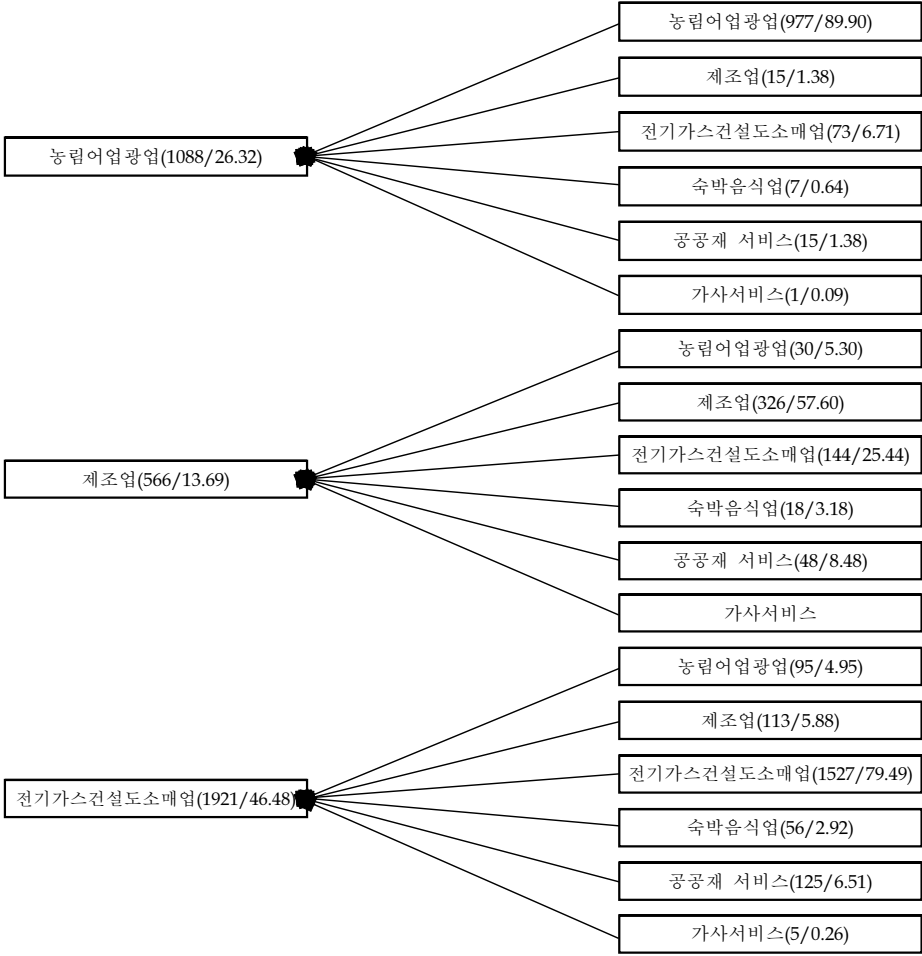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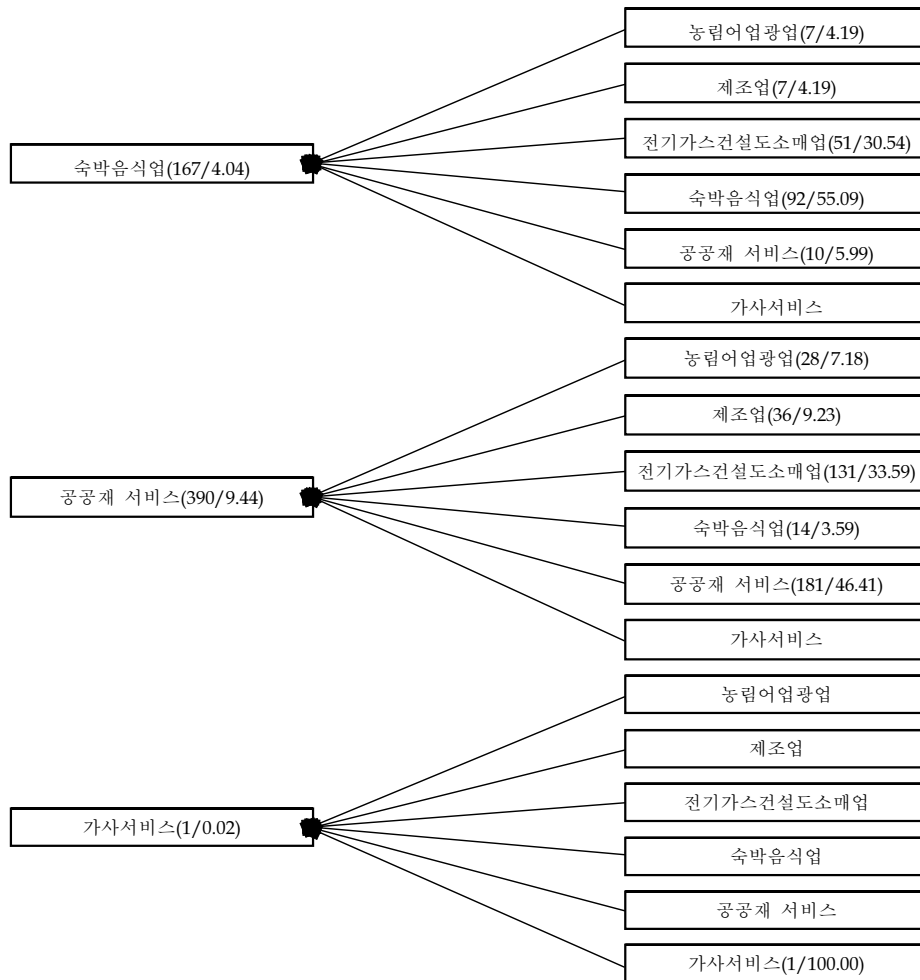


[그림 III-7] 남성의 산업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계속)



4. 직종간 노동이동 실태

가. 직종간 노동이동의 특성

노동이동을 경험한 10,771명의 직종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속취업자의 직종 분포와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연속취업자의 직종 분포는 전체 분포와 성별 분포 모두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생산·노무·기능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즉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며, 혹은 그 직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연속 취업자와 취업이동 경험자의 직종 분포가 시작부터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취업 이동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직종간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대상자 10,771명의 첫 번째 직종 분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노무·기능직’으로 전체의 38.9%인 4,187명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농림직’ 종사자가 26.7%인 2,879명이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23.2%인 2,501명이다.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과 ‘사무직’은 둘 다 5.6%로 나타났다. 이들의 두 번째 직종 분포를 첫 번째 직종 분포와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생산·노무·기능직’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점과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의 비중이 낮아진 점을 약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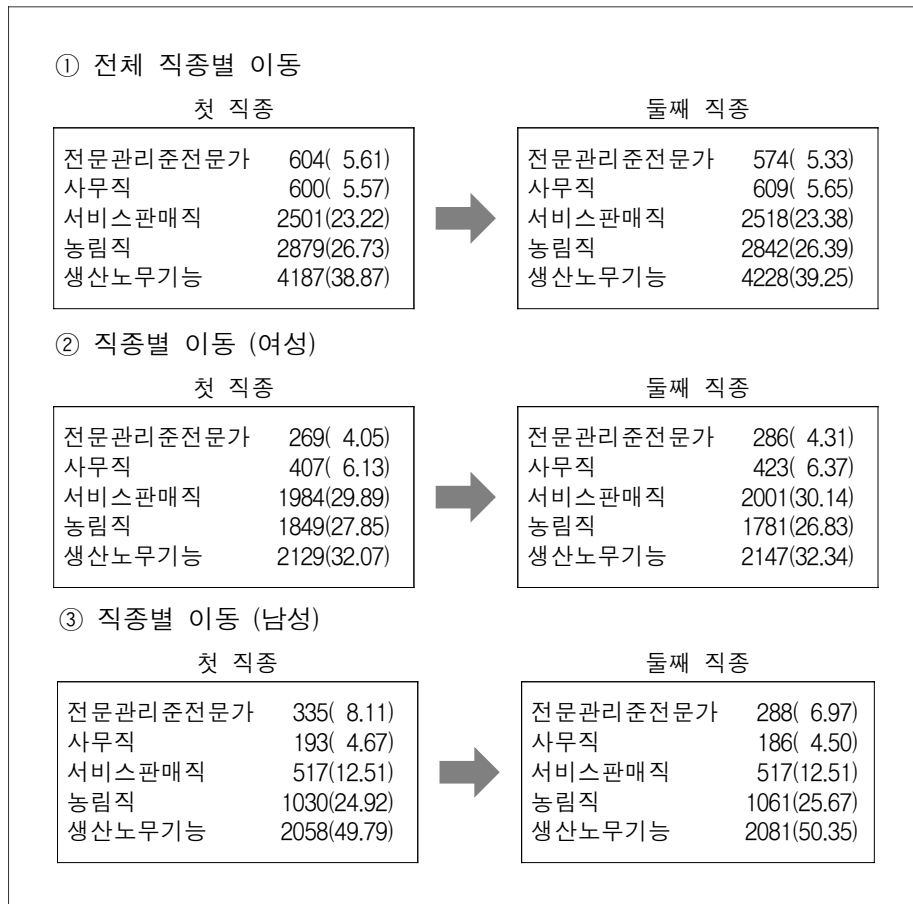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직종과 취업단절 이후 두 번째 직종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지만 성별로 나눠서 보면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직종 분포에서부터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 종사자의 남성 비율은 정확히 여성의 두 배가 되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남성 비율보다 2.6% 가량 더 높으며, ‘생산·노무·기능직’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은 여성 비율보다 17.7% 더 높다.

조사기간의 첫 취업직종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 단절후 진입한 두 번째 취업직종의 분포도 첫 취업직종 분포와 같은 성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이동의 결과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조금 증가한 반면, 남성은 이 두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밖에 ‘농림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조금 감소한 데 비해, 남성 비율은 조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 절의 산업이동에서 ‘농림·어업·광업’ 종사자의 성별 변화 실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림 Ⅲ-8] 노동이동 전후의 직종 분포

(단위: 명(%))



나. 직종별 노동이동의 특성

직종별 노동이동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직종간 배타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한번 노동이동을 경험한 경우엔,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일수록 해체의 경향이 강하고 반대의 경우 직종 이탈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문직종과 같이 직업위세가 높은 직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한 번 이 직종에 입직한 경우에는 보유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직종 종사자는 연속취업형으로 취업 이동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취업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다시 동일한 직종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하향 이동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직종별로 노동이동 이후 직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직종과 둘째 직종이 동일한 경우는, 산업이동 실태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림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물론 이 경우도, 이 조사에서 ‘농림직’ 종사자가 과잉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축소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림직’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생산·노무·기능직’에서 직종 유지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림직’이나 ‘생산·노무·기능직’에 한 번 입직하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의 경우, 여성은 60.2%가 노동이동 후에도 이 직종을 유지하는 반면, 남성은 55.8%만이 이 직종을 유지한다. 여성의 경우 이 직종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주로 ‘사무직’으로 전직하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으로 전직한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엔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에서 이탈한 사람들 가운데 14.9% 가량이 ‘생산·노무·기능직’으로 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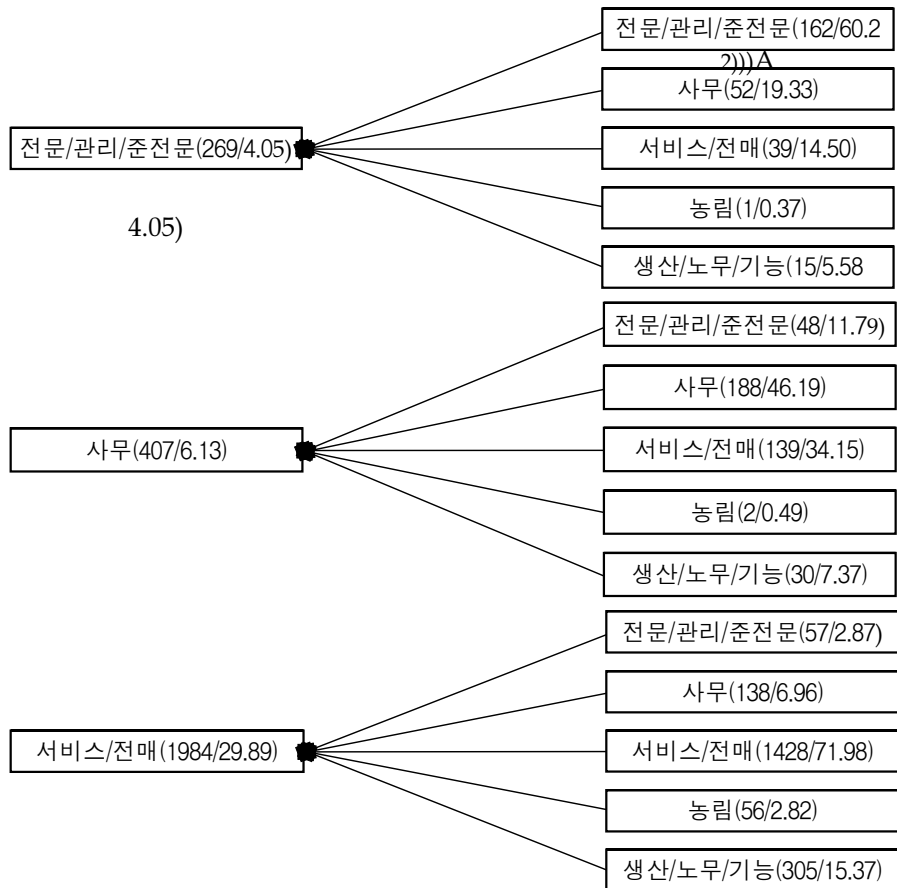
‘사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직종 유지 경향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무직’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34.2%가 ‘판매·서비스직’으로 전직하며, 11.8% 가량은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으로 전직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사무직’ 종사자의 40% 정도만이 이 직종을 유지하며, 다른 직종으로 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사무직’에서 ‘전문가·관

리·준전문가직'으로의 전직 비율도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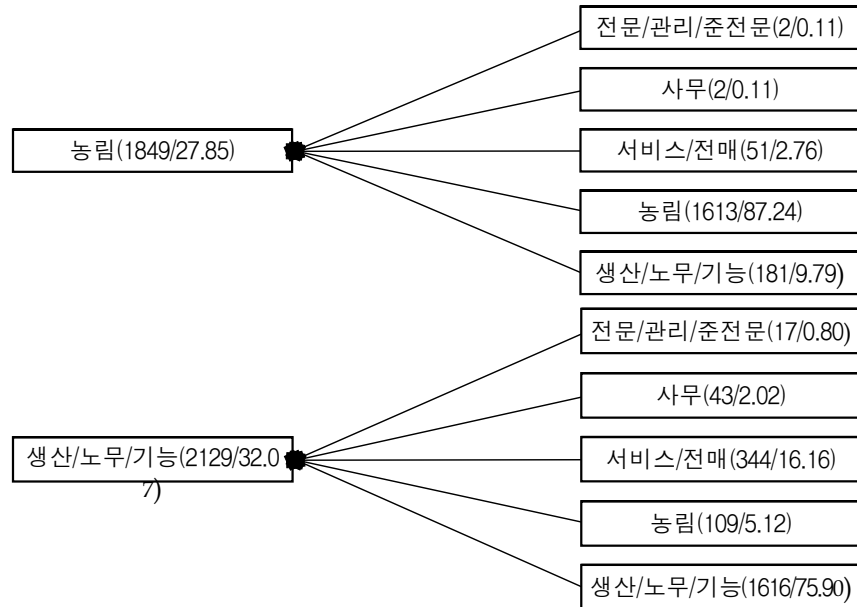
‘판매·서비스직’과 ‘생산·노무·기능직’은 직종별로 동일 직종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직종 이탈시 상호간의 전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남성의 경우에 ‘생산·노무·기능직’의 직종 유지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들은 비교적 이 직종에서 ‘판매·서비스직’으로의 전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 여성의 직종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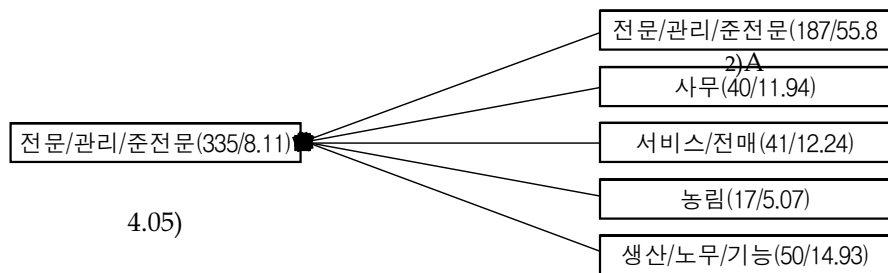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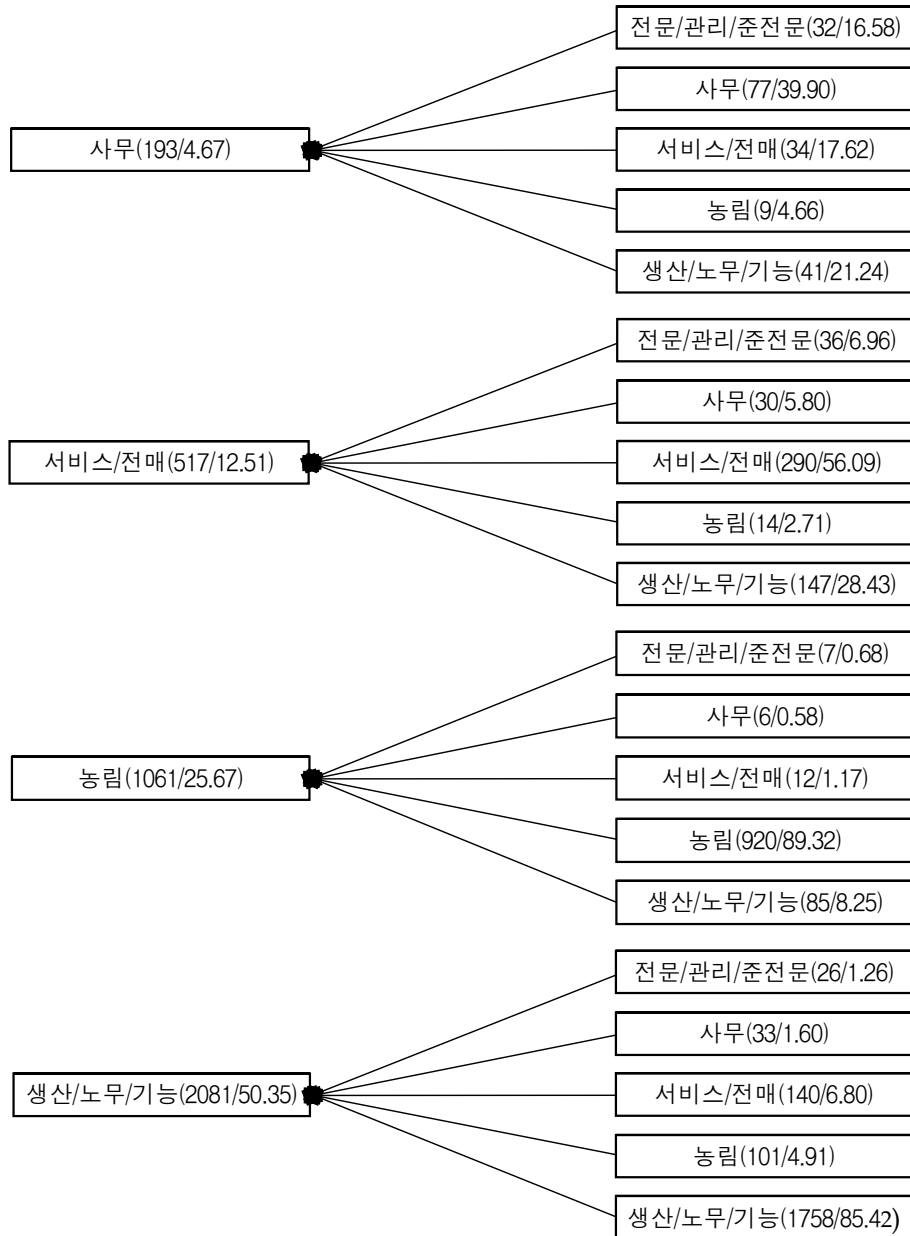
[그림 III-10] 남성의 직종별 노동이동분포

(단위: 명/%)



4.05)

(계속)



5. 종사상 지위의 변화 실태

가. 종사상 지위의 총량적 변화

노동이동의 결과 나타난 산업 및 직종 분포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종사상 지위 분포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다. 먼저 연속취업자와 취업 이동 경험자의 종사상의 지위 분포가 매우 상이하다. 연속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은 여성이 21.22%, 남성이 41.01%인 데 반해, 취업 이동 경험자의 경우는 여성이 4-6%, 남성이 9-18%이다. 즉 상용직은 취업 연속성이 유지되는 반면, 한 번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되면, 비정규직화는 점차 가속화된다는 점을 다음의 취업 이동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첫 직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사상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시·일용직’으로 전체의 46.5%인 5,006명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로 전체의 22.7%인 2,448명이 여기에 속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전체의 17.6%인 1,893명이나 된다. 이와 같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상용직’은 전체의 10.9%인 1,177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분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해졌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용직’의 대폭적인 감소와 ‘임시·일용직’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 변화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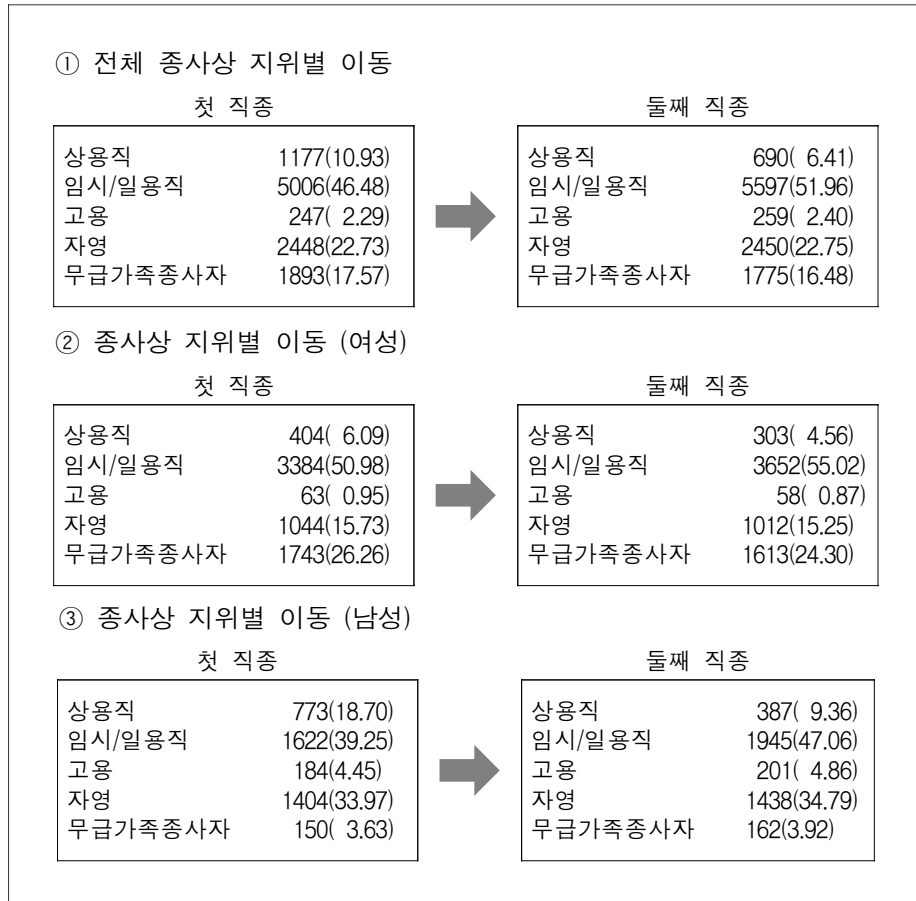
종사상의 지위 변화가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종사상 지위 변화의 성별 분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첫 취업의 종사상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임시·일용직’이다.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무려 전체 여성의 51%나 된다. 이에 비해 남성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 남성의 39.3%이다. 물론 남성의 ‘임

시·일용직'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성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본 종사상 지위 분포를 통해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비율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또는 고용 관행은 여성의 취업 안정성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첫 취업의 열악한 종사상 지위 구조는 노동이동 이후 새로이 진입한 취업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노동이동 이후 6.1%에서 4.6%로 하락하였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51%에서 55%로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 고용관행의 수량적 유연화 혹은 비정규직화 현상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 '상용직' 비율은 노동이동 이후에 18.7%에서 무려 9.4%로 반감하였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39.3%에서 47.1%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남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여성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미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대로 된 여성노동력군의 변화 추세와 일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과정에서 남성노동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 취업안정성 혹은 고용 관행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부의 고용 관행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비정규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III-11] 노동이동 전후의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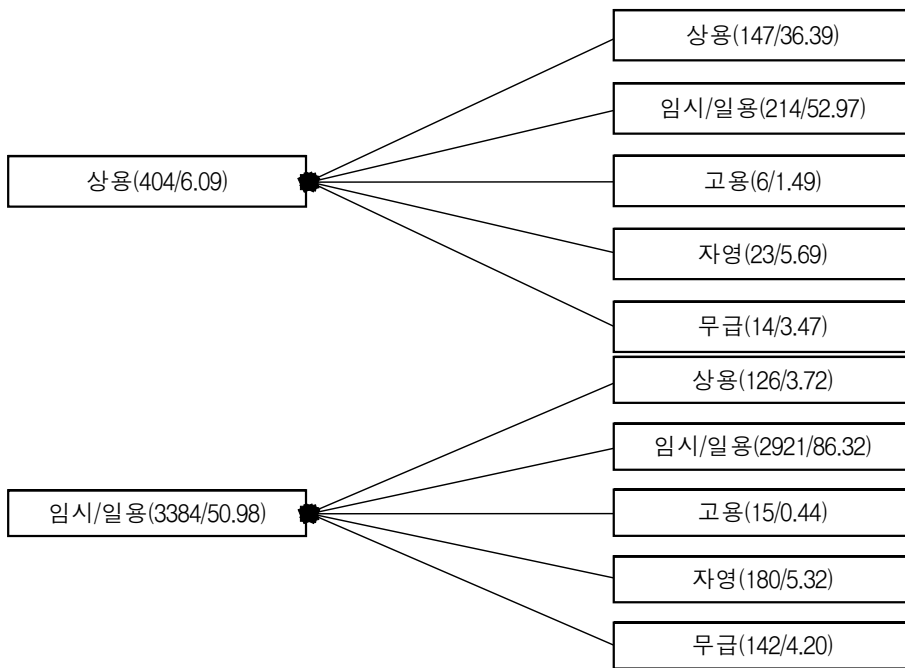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로 노동이동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간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첫 번째 종사상 지위가 취업 단절 이후 재진입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은 역시 ‘임시·일용직’이다. 이에 비해 어떤 종사상 지위가 노동이동 후에 가장 많이 바뀌는가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이면서 두 번째 종사상 지위도 ‘고용주’인 사람들은 30.2%에 불과하고,

이보다 많은 40%의 사람들이 ‘임시·일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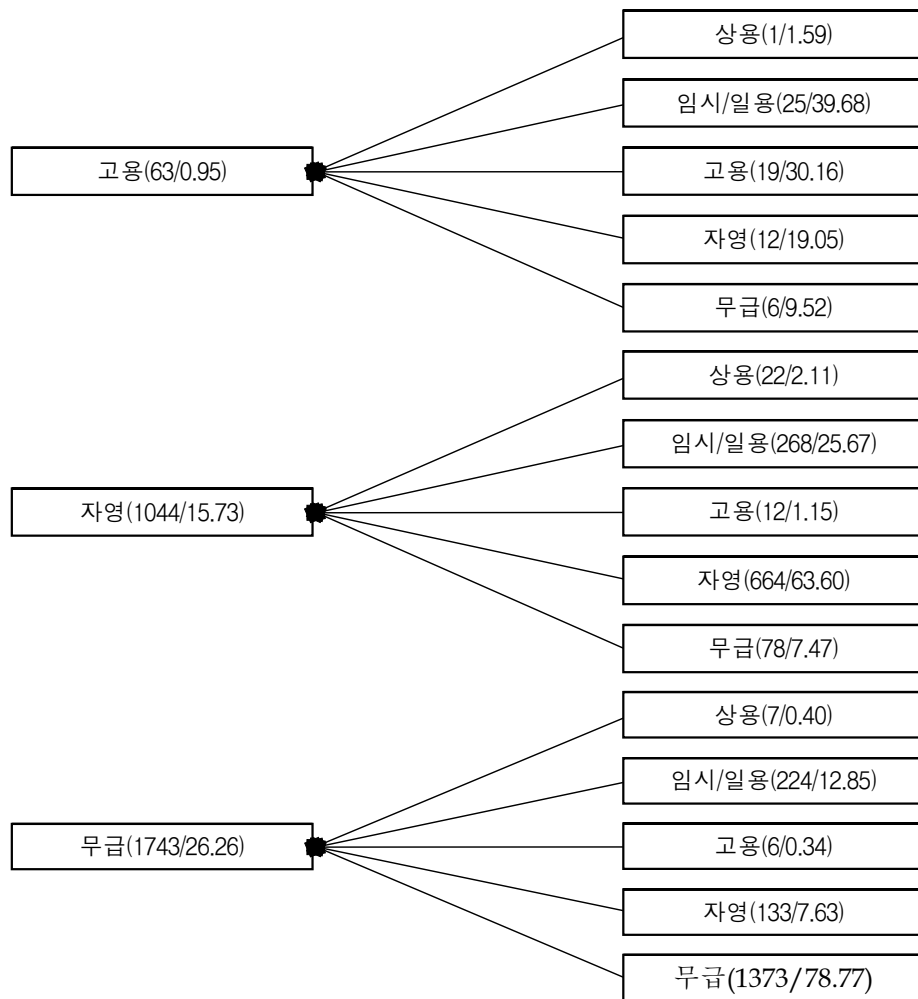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엔, ‘상용직’ 종사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환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남성 ‘고용주’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으로의 회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을 충원하는 이전 취업의 종사상 지위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성은 주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전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상용직’과 ‘고용주’ 등에서 고르게 ‘임시·일용직’으로 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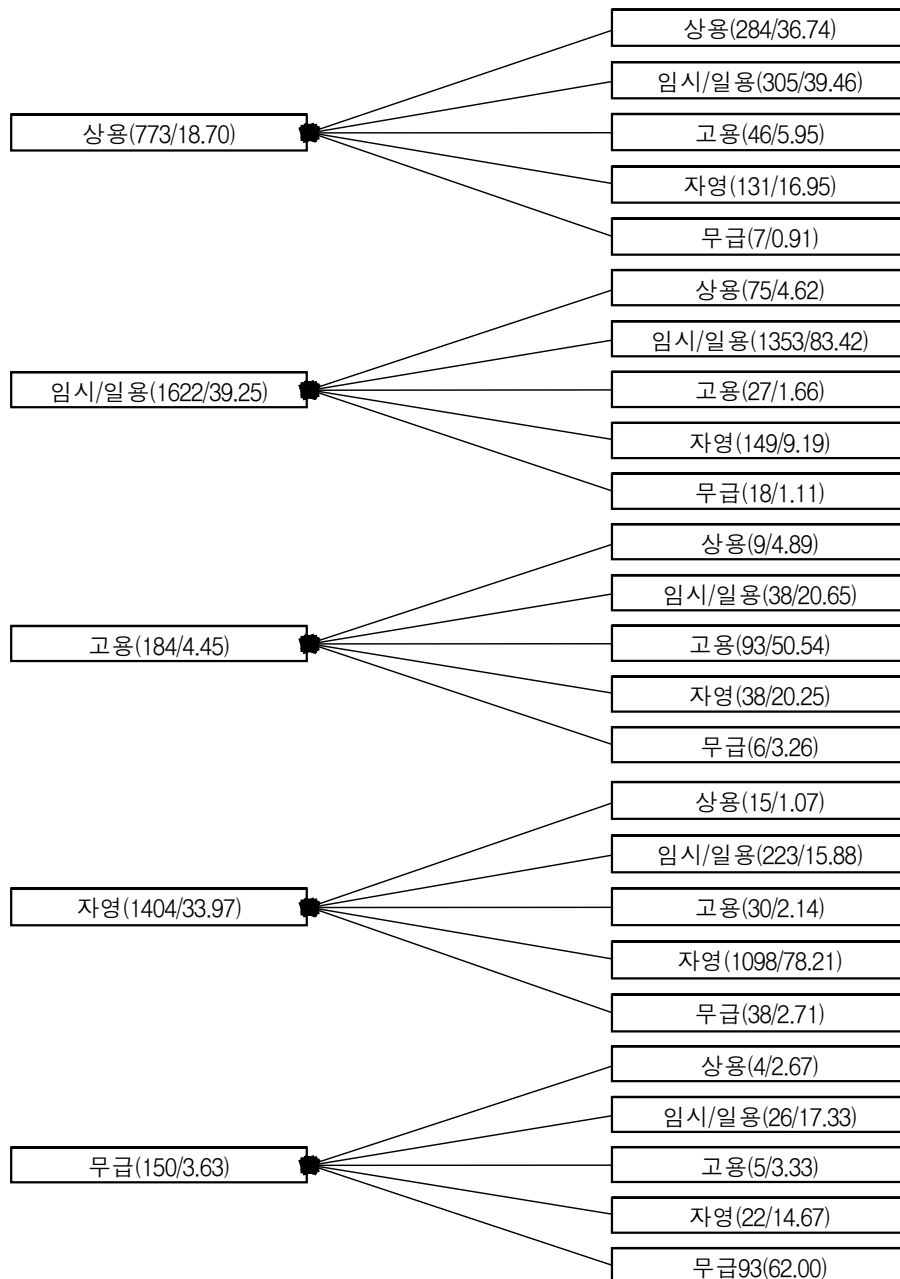
[그림 Ⅲ-12]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계속)



[그림 Ⅲ-13] 남성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6. 여성인력의 노동이동 영향 요인과 전망

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 노동의 특성을 규명하고 향후의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동이동의 내용에는 직종간 이동, 산업간 이동 등을 비롯하여 노동시장내부 이동이 포함되겠지만 이 장에서는 노동력 상태의 변화 즉 취업과 비취업의 변화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취업 상태를 종결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의 방법과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재해율’일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은 사건사 분석이다(Allison, 1995; Yamaguchi, 1991).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재해(hazard)의 특수한 모습을 상정하지 않고, 독립변수(covariate)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비례재해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 사건사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Ti를 개인 i에게 있어 (비)취업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개인 i에게 있어 시간 t에 (비)취업이 일어나는 재해(hazard), $h_i(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_i(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_i < t + \Delta t, \mid T_i \geq t)}{\Delta t} \quad (1)$$

(비)취업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재해가 정의되면 (비)취업에 이를 때까지의 생존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S(t) = e^{-\int_0^t h(u) du} \quad (2)$$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례재해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_i(t) = \lambda_0(t) e^{\beta_1 x_{i1} + \dots + \beta_k x_{ik}} \quad (3)$$

양 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재해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h_i(t) = \alpha(t) + \beta_1 x_{i1} + \dots + \beta_k x_{ik} \quad (4)$$

“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 또는 “비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취업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은 우측 절단(right censored)된 경우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분석된다. 이렇게 조사시점까지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측 절단된 자료로서 분석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줄이고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건사분석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조사시작 시점에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들은 좌측 절단(left censored)된 사례로서, 이 사례를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에서는 좌측 절단된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장의 분석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 데이터는 임의의 기준에 따라 시점과 종점이 정해진 자료이기 때문에, ‘취업으로의 대기 기간’ 등을 따질 때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임의의 조사기간 선정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을 관찰 사건으로의 대기 기간이 정확히 파악되는 자료에 국한시켰다. 따라서 “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대상은 유형1, 유형5, 유형7, 유형8로서, 전체 15,783명이다.

“비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비취업으로 이행 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 분석의 대상은 유형2, 유형6, 유형7, 유형8로 전체 18,808명이다.

“취업으로 이행률”과 “비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대상별 특성 및 독립변수 통계량은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연구모형		취업으로 이행 분석	비취업으로 이행 분석
변수		분포	분포
성	남자	5219(33.1)	8971(47.7)
	여자	10564(66.9)	9837(52.3)
연령	15-20세	905(6.78)	862(4.06)
	21-25세	605(4.53)	687(3.23)
	26-30세	565(4.23)	952(4.48)
	31-35세	862(6.46)	1463(6.89)
	36-40세	1179(8.83)	2342(11.02)
	41+	509(3.21)	346(1.63)
교육수준	무학	2172(16.27)	2032(9.57)
	초졸	3425(25.66)	4932(23.22)
	중졸	2103(15.76)	3561(16.67)
	고졸	3647(27.32)	6846(32.23)
	전문대졸	686(5.14)	1210(5.70)
	대학이상	1315(9.85)	2662(12.53)
혼인상태	미혼	1989(14.90)	2595(12.22)
	유배우	9057(67.89)	16577(78.04)
	사별/이혼	2302(17.25)	1702(9.75)
산업	농림어업/광업	2656(19.90)	5308(24.99)
	제조업	1281(9.60)	3438(16.18)
	서비스/기타	9411(70.50)	12497(58.83)
종사상 지위	상용	345(3.96)	3671(17.52)
	임시/일용	4945(56.81)	7455(35.59)
	고용주	137(1.57)	1057(5.05)
	자영업자	1743(20.02)	5741(27.41)
	무급가족종사자	1535(17.63)	3024(14.44)
직업	전문,관리,준전문가	345(4.32)	32084(9.95)
	사무직	455(5.23)	1519(7.25)
	서비스,판매직	1980(22.75)	5045(24.08)
	농림직	2362(27.13)	4894(23.36)
	생산,노무,가농	3532(40.57)	7406(35.35)

나. 노동이동 영향요인 분석 결과

1)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분석은 먼저, 전체 집단에 대해서 취업으로 이행할 재해율(hazard rate)을 변수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별로 층화된 재해율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로 층화된 분석을 덧붙임으로써 비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연령코호트별 사건사분석 결과는 성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측면에서만 보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연령이 여성의 취업으로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겠다. 분석 결과,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25세-30세' 집단의 취업률이 높으나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남성에 비해서 이 연령대의 취업이행률 감소분이 작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여성의 취업진입률이 낮아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이행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모두 취업 이행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졸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무학력자 여성, 중졸 여성의 순서로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전문대졸과 고졸 사이엔 차이가 없으며, 대졸 여성의 취업 이행률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 여성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연한의 증가로 인해 입직 시점이 연기되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둘 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인적자본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둘 다 취업 이

행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별/이혼여성의 취업률은 적어도 유배우 여성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에서는 미혼 여성보다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배우 여성과도 취업률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을 연령코호트별로 분리하여 취업 이행률을 분석해 본 결과(<표 III-6> 참조), 30대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사별/이혼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미혼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첫 번째 종사 산업이 두 번째 취업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취업때 농림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이번에는 여성의 첫 번째 종사상 지위가 두 번째 취업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용직 종사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 이행률이 현저히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력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첫 번째 직종이 여성의 두 번째 취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직, 생산/노무/기능직 종사자의 두 번째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특히 농림직 여성이 취업 단절후 다시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표 III-5>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성별 분석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성	남자	-0.182(0.024) 준거범주	-	-
	여자		-	-
연령	15-20세	-0.022(0.027)	-0.227(0.132)	-0.172(0.103)
	21-25세	0.088(0.070)	0.007(0.110)	-0.017(0.100)
	26-30세	-0.028(0.057)	-0.123(0.090)	0.137(0.074)
	31-35세	-0.055(0.046)	0.038(0.080)	-0.052(0.056)
	36-40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41+	-0.175(0.034)***	-0.410(0.056)***	-0.110(0.043)*
교육수준	무학	0.055(0.052)	-0.191(0.072)**	0.190(0.052)***
	초졸	0.121(0.031)***	-0.008(0.046)	0.237(0.042)***
	중졸	0.061(0.031)*	-0.061(0.047)	0.178(0.042)***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078(0.045)	-0.190(0.076)*	-0.050(0.064)
	대학이상	-0.178(0.042)***	-0.237(0.058)***	-0.209(0.063)***
혼인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086(0.052)	0.324(0.071)***	-0.267(0.088)**
	사별/이혼	0.079(0.062)	0.182(0.1000)	-0.251(0.095)**
산업	농림어업광업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제조업	2.204(0.067)***	2.080(0.107)***	1.980(0.093)***
	서비스/판매	2.241(0.063)***	2.124(0.099)***	2.023(0.090)***
종사상 지위	상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임시/일용	0.351(0.038)***	0.243(0.050)***	0.690(0.070)***
	고용주	0.290(0.072)***	0.175(0.085)*	0.644(0.145)***
	자영업자	0.380(0.043)***	0.299(0.058)***	0.702(0.077)***
	무급가족종사자	0.513(0.048)***	0.241(0.097)*	0.907(0.078)***
직업	전문,관리,준전문가	0.652(0.068)***	0.625(0.104)***	0.586(0.092)***
	사무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서비스,판매직	0.572(0.059)***	0.493(0.105)***	0.563(0.071)***
	농림직	3.000(0.058)***	2.975(0.090)***	2.677(0.089)***
	생산,노무,기능	0.747(0.058)***	0.750(0.095)***	0.747(0.074)***
2L.L.(d.f.)		194890(23)***	64950(22)***	124262(22)***
합계(event)		15783(11277)	5219(4273)	10564(700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표 III-6>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연령코호트별 분석

변수		코호트=1	코호트=2	코호트=3
성	남자	-0.077(0.054)***	-0.624(0.059)	-0.141(0.030)
	여자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15-20세	-	-	-
	21-25세	-	-	-
	26-30세	-	-	-
	31-35세	-	-	-
	36-40세	-	-	-
	41+	-	-	-
교육수준	무학	-0.788(1.006)	0.142(0.294)	-0.015(0.044)
	초졸	0.233(0.452)	0.202(0.088)*	0.066(0.035)
	중졸	0.198(0.156)	0.218(0.059)***	0.029(0.038)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278(0.063)***	-0.053(0.100)	-0.007(0.136)
	대학이상	-0.422(0.065)***	-0.234(0.086)**	0.029(0.074)
혼인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008(0.077)	0.253(0.085)**	0.400(0.140)**
	사별/이혼	-0.133(0.420)	0.353(0.159)*	0.392(0.144)**
산업	농림어업광업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제조업	3.019(0.150)***	2.481(0.161)***	0.825(0.094)***
	서비스/판매	3.1444(0.143)***	2.449(0.158)***	0.877(0.090)***
종사상지위	상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임시/일용	-0.060(0.071)	0.260(0.082)**	0.410(0.054)***
	고용주	0.430(0.130)	-0.046(0.152)	0.3000(0.089)***
	자영업자	-0.090(0.112)	0.137(0.096)	0.455(0.059)***
	무급가족종사자	-0.054(0.143)	0.406(0.111)***	0.607(0.066)***
직업	전문,관리,준전문가	-0.043(0.091)	0.307(0.134)*	2.276(0.126)***
	사무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서비스,판매직	-0.146(0.072)	0.339(0.115)**	2.220(0.114)***
	농림직	3.087(0.220)***	2.900(0.167)***	3.279(0.081)***
	생산.노무,기능	-0.142(0.086)	0.338(0.114)**	2.419(0.110)***
2L.L.(d.f.)		24750(18)***	28026(18)***	121704(18)***
합계(event)		2241(1828)	2479(2047)	11063(7402)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 단절을 겪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 절의 취업으로 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은 먼저 전체 집단에 대해서 취업으로 이행할 재해율(hazard rate)을 변수별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별로 층화된 재해율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로 층화된 분석을 덧붙임으로써 비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연령코호트별 사건사분석 결과는 성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측면에서만 보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연령이 취업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모두 비취업 이행률이 높아졌다. 즉 준거집단보다 나이든 세대에선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보다 어린 연령대에선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연령대인 40세 이전의 여성들은 연속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력단절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연속성이 위협을 받는 요인들이 규명되어 여성의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단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니, 교육수준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비취업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무학력자의 취업단절 경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취업단절 이유는 다를 것이지만, 여성의 학력이 취업연속성을 증대시켜주지 못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취업 단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모두 취업단절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별/이혼 여성의 높은 취업 단절성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

는 추세 속에서, 편모 가족 또는 이혼 독신 여성을 포함한 고령 여성에 대한 취업 안정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종사 산업이 취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 유지 경향이 높았다. 즉 농림직은 쉽게 진입하고 쉽게 이탈하는 등 비록 취업연속성은 낮지만, 단절된 복수의 취업 주기를 비교할 때 산업 연속성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단절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의 취업 지속성 또는 안정성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취업단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직의 취업 유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노무/기능직은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연속성이 낮은 편이다. 윗 절의 노동이동 실태에서 이 두 직종 여성들은 비취업 경향이 강하며,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표 Ⅲ-7>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성별 분석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성	남자	0.400(0.027)***	-	-
	여자	준거범주	-	-
연령	15-20세	1.5302(0.078)***	1.340(0.133)***	2.051(0.107)***
	21-25세	1.058(0.077)***	1.121(0.126)***	1.397(0.103)***
	26-30세	0.562(0.064)***	0.644(0.109)***	0.434(0.079)***
	31-35세	0.305(0.051)***	0.087(0.108)	0.301(0.057)***
	36-40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41+	-0.374(0.037)***	0.016(0.073)	-0.447(0.045)***
교육수준	무학	0.610(0.044)***	0.973(0.082)***	0.433(0.054)***
	초졸	0.351(0.035)***	0.518(0.056)***	0.186(0.044)**
	중졸	0.239(0.036)***	0.325(0.056)***	0.102(0.044)***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074(0.048)	-0.052(0.084)	0.055(0.060)
	대학이상	0.093(0.042)*	0.115(0.065)	0.220(0.056)***
혼인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264(0.058)***	-0.428(0.087)***	1.061(0.092)***
	사별/이혼	0.328(0.068)***	-0.168(0.115)	1.075(0.010)***
산업	농림어업광업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제조업	-1.017(0.048)***	-1.448(0.098)***	-0.849(0.056)***
	서비스/판매	-0.847(0.044)***	-1.044(0.085)***	-0.824(0.053)***
종사상 지위	상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임시/일용	1.324(0.038)***	1.580(0.059)***	1.014(0.050)***
	고용주	-0.144(0.084)	-0.118(0.110)	-0.082(0.135)
	자영업자	0.279(0.046)***	0.265(0.073)***	0.164(0.062)**
	무급가족종사자	0.531(0.051)***	0.932(0.111)***	0.169(0.062)**
직업	전문,관리,준전문가	-0.506(0.076)***	-0.373(0.097)***	-0.598(0.078)***
	사무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서비스,판매직	-0.194(0.044)***	-0.247(0.093)**	-0.193(0.052)***
	농림직	-0.560(0.063)***	-0.886(0.122)***	-0.432(0.074)***
	생산.노무,기능	0.117(0.044)**	0.081(0.080)	0.064(0.056)
2L.L.(d.f.)		182173(23)***	53987(22)***	115113(22)***
합계(event)		18808(9936)	8971(3204)	9837(9732)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표 III-8>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연령코호트별 분석

변수		코호트 =1	코호트=2	코호트=3
성	남자 여자	0.090(0.057) 준거범주	0.863(0.068) 준거범주	0.414(0.034)*** 준거범주
연령	15-20세	-	-	-
	21-25세	-	-	-
	26-30세	-	-	-
	31-35세	-	-	-
	36-40세	-	-	-
	41+	-	-	-
교육수준	무학	-0.138(1.016)	0.397(0.297)	0.572(0.049)***
	초졸	0.932(0.505)	0.200(0.100)*	0.316(0.040)***
	중졸	0.110(0.166)	0.118(0.065)	0.200(0.043)***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292(0.065)***	-0.016(0.110)	-0.445(0.149)***
	대학이상	0.627(0.063)***	-0.047(0.097)	-0.349(0.087)***
혼인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050(0.078)	0.087(0.094)	-0.554(0.143)***
	사별/이혼	-0.224(0.450)	0.038(0.176)	-0.477(0.147)***
산업	농림어업광업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제조업	-1.242(0.131)***	-0.835(0.117)***	-0.946(0.059)***
	서비스/판매	-1.455(0.123)***	-0.749(0.118)***	-0.643(0.052)***
종사상지위	상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임시/일용	1.179(0.073)***	1.608(0.095)***	1.336(0.052)***
	고용주	0.407(0.390)	0.158(0.189)	-0.084(0.100)
	자영업자	0.915(0.113)***	0.640(0.114)***	0.170(0.060)**
	무급가족종사자	0.588(0.137)***	0.775(0.126)***	0.413(0.065)***
직업	전문,관리,준전문가	-0.208(0.088)*	-0.548(0.139)***	0.916(0.101)***
	사무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서비스,판매직	0.377(0.070)***	-0.090(0.106)	-0.739(0.068)***
	농림직	-0.867(0.217)***	-0.407(0.176)*	-0.753(0.077)***
	생산.노무,기능	0.249(0.089)**	0.163(0.104)	-0.302(0.061)***
2L.L.(d.f.)		25369(18)***	24538(18)***	114532(18)***
합계(event)		2186(1825)	3155(1677)	13467(643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7. 분석결과 요약

가. 실태분석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성별 노동이동의 실태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성별로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남성의 절반 이상이 조사기간인 55개월 동안 계속 취업상태에 있었던 반면, 이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23.4%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55개월 동안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남성은 전체의 7.8%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반면, 여성은 전체의 22.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성과 여전히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불안정성, 경력단절 경향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취업 진입 시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느 한 집단이 일률적으로 취업 이행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성별 취업 이행률이 달라진다. 주로 6~8월, 또는 10~12월에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3~4월에는 남성의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고용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추론케 한다.

마찬가지로 비취업 진입 시점의 성별 분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한 해의 노동 개시라고 할 수 있는 3~4월에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취업 이탈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여성은 10월~1월에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취업 이탈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고용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산업간 이동의 성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농림어업광업직', 남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전기가스건설도소매운수업'으로, 산업의 성별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숙박 음식업'의 여성 편향성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노동이동후 두 번째 종사 산업에서도 기존의 성별 차이는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광업직'의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산업별 이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종사 산업과 노동이동 후 두 번째 종사 산업이 얼마나 동일적으로 유지되는가 하는 점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가사서비스업’이 다른 산업, 주로 ‘숙박음식업’과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이동될 확률 가장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공공/개인서비스업’이 다른 산업, 주로 ‘전기·가스·건설·도소매업’으로 이동될 확률 가장 높았다.

직종간 이동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직종 분포부터 살펴보면, ‘전문·가·관리·준전문직’ 종사자의 남성 비율은 정확히 여성의 두 배가 되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노동이동 후 두 번째 취업 직종 분포도 이와 같은 성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직종별 이동을 살펴본 결과, 직업위세가 높은 사람들은 연속취업자로 직종이동경험자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직종이동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남녀 모두에게서 직종간 배타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일수록 해체의 경향이 강하고 반대의 경우 직종 이탈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직 초기부터 여성의 직종 분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문직 여성의 하향 이동은 많이 발견되지만 역의 현상은 드물다. 반면 남성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1/3 가량이 ‘전문·관리·준전문직’으로 이동하는 등 남성의 취업경력에 따른 직종 이동이 여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생산·노무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 사이의 높은 상호 이동성이 발견될 뿐이다.

종사상 지위의 성별 차이는 산업, 직종간 차이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성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동 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정규직화’ 현상이다. 이때 남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더 크게 발견되었다. 이로써 남성과 여성의 종사상 지위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그만큼 한국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진

행될 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의 종사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의 분포 및 노동이동후의 결과를 통해 여성노동의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노동이동 과정은 노동조건에 향상과 병행되지 않고 있었다.

나. 취업과 비취업 이행 분석 결과 요약

여성의 취업으로 이행과 비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의 효과를 보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25세-30세' 집단의 취업률이 높으나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남성에 비해서 이 연령대의 취업이행률 감소분이 작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여성의 취업진입률이 낮아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이행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모두 취업 이행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졸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무학력자 여성, 중졸 여성의 순서로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전문대졸과 고졸 사이엔 차이가 없으며, 대졸 여성의 취업 이행률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 여성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인적자본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둘 다 취업 이행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별/이혼여성의 취업률은 적어도 유배우 여성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에서는 미혼 여성보

다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배우 여성과도 취업률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을 연령코호트별로 분리하여 취업 이행률을 분석해 본 결과, 30대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사별/이혼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미혼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첫 취업때 농림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상용직 종사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 이행률이 현저히 높았다.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직, 생산/노무/기능직 종사자의 두 번째 취업 이행률이 높았다. 특히 농림직 여성이 취업 단절후 다시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 단절을 겪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연령 효과를 보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모두 비취업 이행률이 높아졌다. 즉 준거집단보다 나이든 세대에선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보다 어린 연령대에선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교육의 효과를 보면,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게 비해 전문대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비취업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무학력자의 취업단절 경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취업단절 이유는 다를 것이지만, 여성의 학력이 취업연속성을 증대시켜주지 못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취업 단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게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모두 취업단절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종사 산업이 취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 유지 경향이 높았다. 즉 농림직은 쉽게 진입하고 쉽게 이탈하는 등 비록 취업연속성은 낮지만, 단절된 복수의 취업 주기를 비교할 때 산업 연속성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단절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직종 효과를 보면,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

직, 농림직의 취업 유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노무/기능직은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연속성이 낮은 편이다.

IV



연도별 노동이동

1. 경제활동상태 변화	80
2. 취업자의 특성과 이동	107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도별로 축적하고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구축된 상태이다. 이는 정확히 경제위기 직후로 노동시장에 큰 교란요인이 발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노동이동은 한 시점에서의 이동정도를 파악하는 정태적 분석보다는 동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인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경로를 추적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 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화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노동시장에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이 자료의 한계는 첫째, 표본탈락율이 커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전국단위의 대표성있는 자료이나 패널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대표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노동시장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은 개인 뿐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여성의 시장노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이유는 성별 분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체임과 동시에 여성은 가계생산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역할의 성별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거나 유급노동을 통한 효용수준의 상승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은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때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일차적으로 무급노동의 담당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유급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요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여성노동시장을 설명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분석은 전술한 가구의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국단위의 패널조사로 표본탈락율이 낮아 설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 즉 월별단위가 가진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 장의 분석과 본 장의 분석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기로 한다.

먼저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산업 및 직종 간 이동 보다는 노동력 상태변화를 더욱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동력 상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의 규모를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경제활동상태 변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패널 5개년의 조사기간 모두 응답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5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4,417가구 중 5개년을 모두 응답한 가구는 3,257개로 27.3%의 표본이 5년간의 조사 기간을 거치며 탈락하였다. 대상 가구 중 5개년 동안 응답을 완료한 표본을 추출하여 5개년의 응답을 완료한 개인은 8,653명이다. 이 중 남성은 4,197명, 여성은 4,456명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상태를 우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의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각년도의 종사상지위 비율을 남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V-1>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표본 규모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남성	취업	57.09	61.38	63.19	63.78	66.14
	실업	10.65	5.79	3.48	2.53	2.69
	비경활	32.26	32.83	33.33	33.69	31.17
여성	취업	34.90	40.31	39.59	43.99	41.99
	실업	4.82	2.36	1.55	1.28	1.46
	비경활	60.28	57.34	58.86	54.74	56.55

1998년이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이므로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그 이후 취업자 비율은 증가하고 실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자는 200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를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실업자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경제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지는 않은데 반하여 여성은 60%를 상회

하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5%미만으로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이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여성 취업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탈퇴를 유연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때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이 집단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총 유량 규모의 파악: 1년 후의 변화

경제활동상태 변화로 본 노동이동의 패턴을 총유량(gross flows)개념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Williams, 1995). 이 방법은 단위기간의 경과 후 한 집단이 다음 어떠한 집단으로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전체적인 노동력의 유량(flow)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활동상태를 범주화하였다 우선 9가지의 상태변화가 가능한데 취업자들의 경우 취업을 지속하는 경우, 실업화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세가지가 있으며 실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되는 경우, 실업상태에 머무르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세가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으로, 실업으로, 혹은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가능하여 총 9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표를 통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고자 한다.

<표 IV-2>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명, %)

	98->99		99->00		00->01		01->02	
취업 → 취업	2,084	49.6	2,232	53.2	2,342	55.8	2,398	57.1
취업 → 실업	105	2.5	77	1.8	67	1.6	67	1.6
취업 → 비경활	207	4.9	267	6.4	243	5.8	212	5.0
실업 → 취업	231	5.5	134	3.2	86	2.0	64	1.5
실업 → 실업	92	2.2	30	0.7	19	0.4	11	0.3
실업 → 비경활	124	2.9	79	1.9	41	1.0	31	0.7
비경활 → 취업	261	6.2	286	6.8	249	5.9	314	7.5
비경활 → 실업	46	1.1	39	0.9	20	0.5	35	0.8
비경활 → 비경활	1,047	24.9	1,053	25.1	1,130	26.9	1,065	25.4
계	4,197	100.0	4,197	100.0	4,197	100.0	4,197	100.0

남성의 경제활동변화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98년도에서 99년 사이 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49.6%로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비중도 약 25%에 이르고 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비중이 그 뒤를 이었으나 비중은 5~6% 수준이다.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전환도 약 5%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의 경우 진학이나 기타 등으로 활동을 전환하는 경우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에서 200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유사하나 실업상태에서 취업하는 집단의 비중보다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인구화하는 집단의 비중이 더 크다. 특히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 달리 취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목된다. 그 이후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전환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업자들이 취업으로의 이행이 어렵거나 혹은 구직행위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실업자의 절대규모가 상당수 줄어들어 경제위기 이후 극심했던 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집단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 이렇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 중 어떤 활동으로 편입되고 있는가는 흥미롭다.

<표 IV-3>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분포

(단위: 명, %)

	98		99		00		01		02	
가사 및 육아	7	0.5	100	7.2	208	14.9	250	17.7	115	8.8
학업	664	49.0	606	44.0	465	33.2	395	27.9	384	29.3
연로 및 퇴직	282	20.8	369	26.8	353	25.2	373	26.4	402	30.7
심신장애	120	8.9	137	9.9	133	9.5	89	6.3	170	13.0
자선사업 봉사	-	-	6	0.4	6	0.4	7	0.5	-	-
기타	281	20.7	160	11.6	234	9.5	300	21.2	237	18.1
계	1,354	100.0	1378	100.0	1399	100.0	1414	100.0	1308	100.0

남성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를 파악해보았다. 전체 비경제활동 2001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 조사대상자 중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98년 0.5%에 지나지 않던 가사 및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1999년 7.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4.9%, 2001년에는 17.7%로 증가하였다. 반면 학업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은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연로 및 정년퇴직(기타퇴직 포함)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빨라진 퇴직시기와 퇴직자 규모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많은 부분 가사 및 육아자의 증가와 노인인구 및 퇴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4>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

	98 → 99		99 → 00		00 → 01		01 → 02	
취업 → 취업	1,238	27.8	1,378	30.8	1,472	33.0	1,502	33.7
취업 → 실업	47	1.1	34	0.7	27	0.6	39	0.9
취업 → 비경활	270	6.1	389	8.7	265	5.9	419	9.4
실업 → 취업	92	2.1	44	1.0	41	0.9	28	0.6
실업 → 실업	16	0.4	11	0.2	4	0.1	4	0.1
실업 → 비경활	107	2.4	50	1.1	24	0.5	25	0.6
비경활 → 취업	466	10.5	347	7.8	447	10.0	341	7.6
비경활 → 실업	42	0.9	24	0.5	26	0.6	22	0.5
비경활 → 비경활	2,178	48.9	2,184	49.0	2,150	48.2	2,076	46.6
계	4,456	100.0	4,456	100.0	4,456	100.0	4,456	100.0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변화를 보면 남성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이 여성의 노동이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활동상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은 남성과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반대의 경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취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취업에서 비경제활동화하는 비율도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구직행위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화하는 집단도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도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화이다. 1998년도에서 1999년 사이에 10.5%에 달하던 이 집단은 2002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7.6%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자들의 종사상 지위변화가 미약하며 실업상태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도 그다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5>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활동분포

(단위:명, %)

	98		99		00		01		02	
가사 및 육아	1,433	53.3	1,359	53.2	1,362	51.9	1,357	55.6	1,235	49.0
학업	606	22.6	556	21.8	602	22.9	429	17.6	611	24.2
연로 및 퇴직	504	18.8	453	17.7	395	15.0	405	16.6	417	16.5
심신장애	89	3.3	106	4.1	106	4.0	63	2.6	121	4.8
자선사업 봉사	-	-	11	0.4	10	0.4	10	0.4	-	-
기타	54	2.0	70	2.7	150	5.7	175	7.2	136	5.4
계	2,686	100.0	2,555	100.0	2,623	100.0	2,439	100.0	2,520	100.0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미미한 것과 관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가 2001년까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02년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반수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여성경제활동에 미치는 가사 및 육아부담이 비중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업이나 연로 및 퇴직도 그 비중에 있어 큰 등락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여성 비경제활동의 지속은 대다수 가사와 육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5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5년에 걸쳐 경제활동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몇 개의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상태를 5년간 지속하는 집단이며 노동시장 근착성이 강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의 수는 2,417명으로 분석대상자 전체인 8,653명의 27.9% 수준이다. 이 중 1,660 명이 남성이고 757명이 여성이다. 1차 년도의 취업자 규모인 2,398명에 비하면 약 30%의 표본이 조사기간인 5년 동안 취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한 집단을 살펴보면 그 규모는 전체 8,653명 중 3,821명으로 약 44% 수준이다.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1,764명이며 여성은 2,057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이와 더불어 5년의 기간 중 4년간 취업한 집단은 남성은 588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546명이며 1년만 취업한 경우 남성은 354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550명으로 여성의 직업경험이 남성에 비하여 적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취업만을 경험한 집단은 남성의 경우 773명, 여성 1,642명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이는 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기인한 것이다.

<표 IV-6> 성별 취업경험의 분포

(단위: 명,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남	773	32.0	354	39.2	395	46.4	427	45.8	588	51.8	1,660	68.7
녀	1,642	68.0	550	60.8	456	53.6	505	54.2	546	48.2	757	31.3
계	2,415	100.0	904	100.0	851	100.0	932	100.0	1,134	100.0	2,417	100.0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강한 집단이다.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집단과 취업을 경험하는 집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문헌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노동력 이동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업기간의 단축이라면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인력의 비취업상태 탈출이다. 여성은 실업보다는 취업과 비경제활동간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업보다는 비취업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비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5년간 비취업자인 여성의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먼저 그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7> 5년간 비취업자의 연령분포 (5차년도 기준)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계
여성	222	229	259	233	199	285	296	1,723
%	12.9	13.3	15.0	13.5	11.5	16.5	17.2	100.0

이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이 약 24%, 기혼이 55%, 배우자 사망이 2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비취업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8> 여성 비취업자의 비취업 이유

	학업	육아	가사	퇴직	고령	건강	휴식
여성	320	218	329	1	409	187	14
%	21.0	14.3	21.6	0.1	26.8	12.3	0.9

연령의 문제로 비취업에 머무르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가사 부담으로 인한 비취업이 여전히 많았으며 육아부담으로 인한 비취업도 매우 많았다. 특히 가사와는 달리 육아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연령층의 대다수는 육아로 인하여 비취업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단순한 비취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들의 경제상태를 살펴보았더니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48.4%로 전체의 약 반수준에 달했으며 여유가 있거나 매우 여유가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6.3%에 머무르고 있었다. 객관적으로도 가계의 근로소득외의 소득인 금융소득이 있는 집단이 10%수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집단도 12% 수준, 사회보험수혜자도 약 8%에 머물렀으며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전년도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집단이 경제활동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 요인 분석

본 분석에서는 여성의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것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과거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증되어야 할 주요 연구가설은 여성 비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초분석의 결과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비율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연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어떠한 변화의 경로를 거치고 있는가가 향후 여성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으로 생각된다. 과연 비취업자는 취업으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가, 취업으로 이동하는 집단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인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패널조사 시작시점에 비취업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해를 거듭하며 취업 혹은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과 그 요인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여성은 남성과 달리 학력이 경제활동상태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어수봉, 1992). 또한 여성 비취업자의 취업으로의 이행은 육아를 마친 상대적인 중장년 집단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를 거친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에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연구질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취업자 집단 중 취업으로 이행하는 집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 많은 제약 또한 존재한다. 노동패널은 기본적으로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질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비취업자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문항은 많지 않다. 그로 인하여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취업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은 다소 취약할 수 있다. 여성 비취업자가 구직행위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분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가계관

런 변수들 또한 여성의 취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가계의 부차적 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비취업자의 취업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한계를 가지고 가용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5년간 여성들의 취업과 비취업을 추적하고자 한다.

1) 분석모형

본 분석에서 주된 관심사인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상태변화 즉, 전년도에 취업한 사람이 다음해 여전히 취업할 것인가, 실업상태에 빠질 것인가, 혹은 비경제활동으로 편입될 것인가의 선택이다. 그러나 기존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경우 실업의 비중이 매우 적다. 즉 여성들은 실업이라는 구직기간을 거쳐 취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를 오고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비취업을 구분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하나의 상태로 간주하였다. 실제로 분석결과 실업으로 전환한 집단이 소수에 그치고 오히려 실업상태 없이 취업으로 전환한 집단이 다수로 나타나 다항로짓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항로짓보다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양분한 로짓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여성의 저실업률을 나타내는 통계자료에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추정방정식은 다음을 상정할 수 있다. β 는 추정될 계수벡터이며 e_i 는 오차항이다.

$$Y_i = \beta' x_i + e_i$$

종속변수는 전술하였듯이 취업과 비취업 상태 중 선택을 의미하며 로짓모형(logit)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logit 모형은 다음의 형태를 띄고 있다 (Greene, 1992).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가지수는 취업, 비취업 이라고 할 때 다

음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text{Prob}(Y_i = j) = \frac{e^{\beta' x_i}}{\sum_{k=0}^J e^{\beta' x_i}}$$

여기서 오차항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와이불(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의사결정시 J개의 선택치를 가지고 있는데 J 값이 0이면 취업, 1이면 비취업이다. 비취업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text{Prob}(Y_i = j) = \frac{e^{\beta' x_i}}{1 + \sum_{k=1}^J e^{\beta' x_i}}, j =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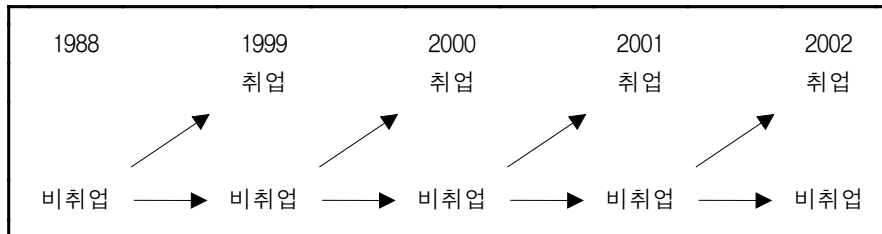
$$\text{Prob}(Y_i = 0) = \frac{e^{\beta' x_i}}{\sum_{k=0}^J e^{\beta' x_i}}$$

로 볼 수 있다.

모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관심은 각 설명변수들의 각 선택확률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이다.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특정 설명변수의 값이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의미한다. 선형모형(linear regression)의 경우 추정된 계수(parameter)값이 곧 한계효과를 의미하지만 비선형확률모형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계수가 한계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질적 개념을 가질 경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LIMDEP 7.0을 이용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을 구분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V-1] 연도별 분석대상의 구분



실제로 이러한 분석은 탈출모형인 해자드모형에 의하여 빈번하게 분석된다. 해자드 모형은 동태적인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본 분석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지한바와 같이 패널구축기간이 매우 짧아 독립변수에서의 큰 변화를 추적하기에 어려웠다. 또한 추정에 이용된 독립변수 역시 5개년의 기간동안 비취업자에게 일관성있게 관측되는 변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동태적인 분석모형인 해자드 모형을 이용하는 것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선택을 분석하는데 정태적 기법인 로짓 모형을 이용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비취업자의 취업탈출이라는 동태적 내용을 각 연도별 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① 1998년 비취업자의 1999년 취업선택

우선 1998년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1999년 상태변화를 분석하였다. 1998년 비취업자 중 여성은 2905명이다. 1999년에 지속적으로 비취업인 인구는 여성 2,664명이며 취업으로 전환한 인구는 여성 559명이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취업자 534명, 비취업자 2322명 등 2856명이었다. 이러한 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다음 <표 IV-9>과 같다.

종속변수는 1998년 비취업 상태에서 1999년 취업으로 이행하였으면 1, 비취업 상태에 남아있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자신의 준거계층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교육훈련 유무, 자격증 유무 등 노동시장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소득 항목별 유무나 부채여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인 상태, 가계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가계 경제 사항을 고려하였다.

<표 IV-9>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내 용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Y	이항변수 Y=1 취업, Y=0 비취업	0.19	0.39
독립변수			
TRAIN	직업훈련 유무, =1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음	0.02	0.14
CERT	자격증 보유, =1 자격증 있음	0.11	0.31
AGE	연령	41.83	18.79
EDU	교육수준 1:무학, 2:초등이하,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이상	3.28	1.41
METRO	=1 수도권거주	0.44	0.50
FINC	=1 금융소득 있음	0.14	0.34
TINC	=1 이전소득 있음	0.25	0.43
DEBT	=1 부채 있음	0.01	0.08
ECOHARD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0.62	0.49
SHARE	가계소비 중 사교육비 비중	0.07	0.10
GDHLTH	=1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음	0.65	0.48
CLASS	=1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하류	0.24	0.43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1998년 비취업상태에서 1999년 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취업이행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 과거와는 달리 여성 비취업자의 취업은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한 사람이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고, 직업훈련 경험과 자격증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계의 경제적 상태로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 어려움 정도나 부채 등과

취업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보다 가계소득면에서 금융 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의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자신들을 경제사회적으로 하층이라고 평가할수록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받았다.

<표 IV-10> 1998년 여성 비취업자의 1999년 취업상태 선택

변수명	추정계수 (COEFFICIENT)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표준오차
Constant	-2.42***	-0.26***	0.06
AGE	0.20-E02	0.22-E3	0.41-E3
EDU	0.11**	0.01**	0.06-E2
METRO	0.16*	0.02	0.01
GDHLTH	0.51***	0.06***	0.02
TRAIN	0.82***	0.09***	0.03
CERT	0.42***	0.05***	0.02
FINC	-0.49***	-0.05**	0.02
TINC	-0.38***	-0.04**	0.02
DEBT	0.19	0.02	0.05
ECOHARD	0.15	0.02	0.01
SHARE	-0.63E2	-0.07	0.06
CLASS	0.29**	0.03**	0.01
LOG LIKELIHOOD FUNCTION: -1327.13		81.26% 예측정확도	

*: 90%, **: 95%,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연령과 취업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사교육비나 부채규모 등도 여성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은 연령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별로 취업이행을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은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을 중심으로 육아기를 끝난 후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별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학력이 높은 집단의 취업확률이 높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보유자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여성 비취업자의 취업은 과거의 저학력자와 단순노동자로의 취업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행이 과거와 같이 중장년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고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사실은 여성의 취업은 가계경제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의 금융이나 이전소득과 같은 소득원이 존재할 경우 여성들은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여성이 취업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전술한 변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과거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또한 지속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어서 취업자 559명의 특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40대와 50대 취업자가 가장 비중이 높아 40대는 전체 취업자의 34.7%를 50대는 22.5%를 차지한다. 이어서 30대로 19.5%이며 흥미롭게 취업자 중 20대 6.2% 보다 60대가 10.9%로 더 많다. 고연령층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졸이 37.7%로 가장 많고 중졸이 19.1%로 뒤를 이어 많다. 취업한 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조업이 25%수준으로 오히려 교육공공행정사회보장보다 많다. 이는 중장년층이 취업을 주도하면서 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이들에게 맞는 노동수요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에서도 제조업취업자가 많아 1999년에는 제조업으로의 취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4.2%로 비정규직보다 적은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비정규직확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상용고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임시와 일고가 각각 30%,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87% 정도가 향후에도 현재의 일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보수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전체의 반을 넘으며 취업의 안정성외에는 별다르게 만족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근무환경이나 발전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여성들의 취업의 질적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수수준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60.3만원,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77.9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1998년과 1999년 비취업자의 2000년 취업선택

이어서 1999년에도 취업으로 탈출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2000년 취업선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연 1998년과 1999년에 비취업 상태에 있던 집단은 2000년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1998년과 1999년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직후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침체되어 있었던데 반하여 2000년 부터는 경제가 비교적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국면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여건도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시기 여성비취업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견인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1999년의 취업선택모형과 동일하며 분석대상은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비취업으로 남아있던 집단 2,322명이다.

<표 IV-11>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내용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Y	이항변수 Y=1 취업, Y=0 비취업	0.10	0.31
독립변수			
AGE	연령	43.15	19.38
SPOUSE	혼인상태 1=기혼(유배우)	0.61	0.49
EDU	교육수준 1:무학, 2:초등이하,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이상	3.30	1.45
METRO	=1 수도권거주	0.43	0.49
FINC	=1 금융소득 있음	0.11	0.31
TINC	=1 이전소득 있음	0.25	0.43
DEBT	=1 부채 있음	0.49	0.50
ECOHARD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0.59	0.49
GDHLTH	=1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음	0.63	0.48
CLASS	=1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하류	0.22	0.41
HEAD	가장의 사회적 지위 1=상류, 2=중상류, 3=중류, 4=중하류, 5=하류	3.77	0.84
CHILD	=1 6세 미만 자녀 보유	0.19	0.39
PEDU	=1 사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됨	0.27	0.44

2,322명 중 결측값으로 인하여 제외된 수를 제외하고 2,052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중 10.4%인 213명이 취업하고 나머진 1,839명이 비취업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들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1998년과 1999년 비취업상태에서 2000년 취업으로 이행하였으면 1, 비취업상태에 남아있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혼인상태, 경제적 계층, 가장의 지위, 6세미만 자녀유무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소득 항목별 유무나 부채여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인 상태, 가계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과 같은 가계경제 사항을 고려하였다. 패널자료는 기본적인 사항 외 일정수준의 항목은 매년 질문이 바뀌어 각 년도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용된 변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비교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수를 이용하여 취업과 비취업의 선택을 추정하였다.

<표 IV-12> 1998, 1999년 여성 비취업자의 2000년 취업상태

변수명	추정계수 (COEFFICIENT)	한계 효과 (MARGINAL EFFECT)	표준오차
Constant	-3.92***	-0.21***	0.62
AGE	-0.06	-0.32-E1	0.01
EDU	-0.04***	-0.24-E02***	0.71-E3
METRO	0.49***	0.03***	0.01
GDHLTH	2.59***	0.14***	0.03
SPOUSE	-0.36***	-0.02*	0.01
CHILD	-0.54**	-0.03*	0.02
FINC	0.16**	0.88-E02**	0.41-E02
TINC	-1.10***	-0.06**	0.03
DEBT	0.06	0.32-E02	0.01
HEAD	-0.64***	-0.03**	0.02
PEDU	0.17	0.92-E02	0.89-E02
CLASS	0.64***	0.03***	0.01
LOG LIKELIHOOD FUNCTION: -1009.40		83.5%에 측정확도	

*: 90%, **: 95%,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1998과 1999년 비취업에서 2000년 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년도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비취업의 연속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할 의사가 적은 집단, 즉 비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이다. 2년간 비취업을 경험한 후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좀 더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과거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던 것과 같이 저학력자들의 취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스스로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한 사람이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고, 대도시 거주자의 취업이행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은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상태를 변화시킬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할 확률이 여전히 낮아 육아문제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의 경제적 상태로는 여전히 부채 등과 취업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위층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이와 달리 가장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 소속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가계소득면에서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의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여전히 유의적으로 낮았다.

여전히 전년도에 이어 연령과 취업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여성 취업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나 부채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들과 관련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2000년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취업을 지속하는 여성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었다. 육아기에 취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 2000년에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며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취업상태에 있던 여성의 취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여성의 취업이 가계의 부차적 수입원으로(second earner) 간주되는 현실속에서 급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요구가 없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집단이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낮다. 이를 뒷받침하듯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경제여건의 회복과는 달리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미혼들의 경우도 그다지 취업을 할 확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취업확률을 낮추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령 코호트별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어서 취업자 613명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2000년 취업은 40대가 31%로 중심적이며 그 뒤를 이어 30대, 24.8%와 50대 21.7%가 참여하고 있다. 다른 년도에 비하여 40대의 취업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34.4%로 가장 많고 무학이 21.7%로 다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령집단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여성의 급격한 고학력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 연령집단의 저학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취업한 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5%로 가장 많았고 광공업의 비중이 18.6%로 눈에 띄게 많았다. 제조업 취업자중 40대와 50대의 비중이 68%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보다는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는 교육공공행정 사회보장 분야로의 취업이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과 건설부문이 비슷하게 많아 상대적으로 장년층 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공히 가사서비스와 같은 개인서비스 분야로의 취업도 전체의 18.6%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2000년 취업자 중 58.6%는 정규직으로 41.4%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년도에 비하여 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대와 30대는 정규직이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40대는 반수 정도인 이후 50대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상용직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고 40대 이후는 상용직이 43%로 줄어드는데 반하여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의 비중이 27%로 뒤를 이어 많다. 50대에는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되며 동시에 임시나 일고의 비중도 25% 수준으로 높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년층의 경우 창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 취업을 시작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다수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지속하고자 하였다. 약 80% 정도가 전반적으로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65.8만원,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07.8만원으로 나타났다.

③ 1998, 1999, 2000년 비취업자의 2001년 취업선택

이어서 2000년에도 취업으로 탈출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2001년 취업선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연 2000년까지 비취업 상태에 있던 집단은 2001년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2001년은 2000년의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진 해로 비교적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된 해로 평가된다. 이시기 여성비취업자들 중 어떤 집단이 취업으로 이행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모형은 이전과 동일하며 분석대상은 1998, 1999, 2000년에 걸쳐 비취업으로 남아있던 집단 1,839 명 중 결측값으로 인하여 제외된 수를 제외하고 1,816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중 11.8%인 215명이 취업하고 나머진 1,601명이 비취업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들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내용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Y	이항변수 Y=1 취업, Y=0 비취업	0.12	0.32
독립변수			
AGE	연령	44.94	19.72
SPOUSE	혼인상태 1=미혼	0.23	0.42
EDU	교육수준 1:무학, 2:초등이하,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이상	3.28	1.48
METRO	=1 수도권거주	0.42	0.49
FINC	=1 금융소득 있음	0.11	0.31
TINC	=1 이전소득 있음	0.30	0.46
DEBT	=1 부채 있음	0.50	0.50
ECOHARD	=1 경제적으로 여유있음	0.06	0.24
CHILD	=1 6세 미만 자녀 보유	0.18	0.39
PEDU	=1 사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됨	0.72	0.45
SHARE	전체 생활비 중 사교육비 비중	0.07	0.11

변수들은 그다지 다르지 않으나 중요한 가설 중 하나는 사교육비와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가설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와 같은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패널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0년부터 사교육비와 부담정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왔다. 2000년에 비하여 2001년은 사회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화된 시기로 이 시기의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분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른 여성의 취업, 많은 기혼 여성의 취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 볼 수 있다. 2000년에 비하여 2001년 전국적으로 가구당 사교육비는 19.5% 증가하였고 이는 대도시인 서울과 경기지역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노동연구원, 2003).

따라서 본 분석에서 과연 사교육비의 부담이 여성의 취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IV-14> 1998, 1999, 2000년 여성 비취업자의 2001년 취업상태 선택

변수명	추정계수(COEFFICIENT)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표준오차
Constant	-0.82	-0.07	0.04
AGE	-0.41***	-0.03***	0.01
SPOUSE	-0.38	-0.03	0.02
EDU	0.16**	0.01**	0.59-E2
METRO	0.26*	0.02*	0.01
FINC	-0.37	-0.03	0.02
TINC	0.03	0.26-E2	0.02
DEBT	0.04	0.33-E02	0.01
ECOHARD	-1.41***	-0.12***	0.04
CHILD	-0.29	-0.02	0.02
PEDU	0.30**	-0.02**	0.01
SHARE	-0.75	-0.06	0.06
LOG LIKELIHOOD FUNCTION: -660.49		88.2%에 측정 확도	

*: 90%, **: 95%,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분석결과 연령은 취업에 부(-)의 효과를, 교육수준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사교육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집단은 취업을 할 확률이 높아 주목된다. 즉 가설에서 기술하였듯이 2000년 이후는 가계경제의 상황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해 상당 부분 왜곡이 심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취업을 유도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으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여성의 취업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위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부차적 소득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취업자 215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34.8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분포를 보면 30대가 40% 정도로 주를 이루고, 이어서 40대가 23% 수준으로 많았다.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취업자의 40%가 고졸이며 이어서 초급대졸 이상이 17%로 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분을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30%정도, 교육행정사회보장 부문이 23%정도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은 40대 연령층의 42%가 종사하는데 기인했으며 30대는 교육행정사회보장에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기타 가사서비스와 같은 산업 종사자가 각 연령별로 16-20% 수준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확하게 50%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정규직 종사자는 약 60%가 30대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으나 비 정규직은 30대 30%, 50대 24%, 40대 20%, 20대 11%로 비교적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28%가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50인 미만 기업종사자가 13% 정도로 여성 취업자는 대기업으로의 취업이 많은 편이다. 취업자의 70%는 교육수준과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집단도 25%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의 일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집단이 79%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보수면에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8.8만원,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④ 이전 4년간 비취업자의 2002년 취업선택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2년의 취업선택에 대한 분석을 끝으로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002년은 현재 패널조사가 완료된 가장 최근의 시점이다. 패널 자료의 구축기간이 짧아 앞서 살펴본 5개년의 취업탈출이 향후 비취업자들의 취업으로의 이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이 모두 미래에 취업가능성이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들에게 있어서 비취업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비취업자의 노동선택은 단지 무급노동 등 비시장노동이나 여가로 인한 개인의 효용증가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취업자들의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취업의사가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는 현실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과 상충되는 것이다. 2002년의 분석을 마감으로 여성 비취업자의 취업으로의 이행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대상은 1998, 1999, 2000, 2001년에 걸쳐 비취업으로 남아있던 집단 1,816명 중 결측값으로 인하여 제외된 수를 제외하고 1,756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중 10.1%인 178명이 취업하고 나머지인 1,578명이 비취업상태로 남아있었다.

<표 IV-15>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내용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Y	이항변수 Y=1 취업, Y=0 비취업	0.10	0.30
독립변수			
AGE	연령	47.50	20.05
EDU	교육수준 1:무학, 2:초등이하,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이상	3.25	1.53
METRO	=1 수도권거주	0.42	0.49
FINC	=1 금융소득 있음	0.10	0.30
TINC	=1 이전소득 있음	0.37	0.48
DEBT	=1 부채 있음	0.47	0.50
ECOHARD	=1 경제적으로 여유있음	0.08	0.27
CHILD	=1 6세 미만 자녀 보유	0.16	0.36
PEDU	=1 사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됨	0.77	0.42
TRAIN	=1 직업훈련 경험 있음	0.01	0.10
CERT	=1 자격증 보유	0.02	0.13
SHARE	전체 생활비 중 사교육비 비중	0.06	0.09

지난 해인 2001년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단이 다소 증가하였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느끼는 집단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완화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변수들은 2002년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해보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V-16> 여성 비취업 지속자의 2002년 취업선택

변수명	추정계수(COEFFICIENT)	한계 효과 (MARGINAL EFFECT)	표준오차
Constant	-1.27	-0.04	0.02
AGE	-0.27***	-0.01*	0.43-E2
EDU	0.04	0.13-E2	0.26-E2
METRO	-0.11	-0.32-E2	0.56-E2
FINC	-0.37	-0.01	0.01
TINC	-0.37*	-0.01	0.01
DEBT	0.36**	0.01*	0.66-E2
ECOHARD	0.27	0.82-E2	0.91-E2
CHILD	0.28	0.84-E2	0.01
PEDU	0.12	0.36-E2	0.56-E2
TRAIN	0.69	0.02	0.01
CERT	1.14***	0.03**	0.01
SHARE	0.09	0.03	0.06
LOG LIKELIHOOD FUNCTION: -576.10		89.9%에 측정 확도	

*: 90%, **: 95%,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상태로는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낮았고 부채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자격증이 있는 집단의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반하여 6세 미만 자녀의 보유나 사교육비와 그 부담정도,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은 별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5년간의 짧은 패널 구축기간이지만 여성 비취업자로 장기간 남아 있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미 취업자 중 5년간 취업으로 이행하지 않는 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고연령이거나 자격증 등 특별한 취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기타 소득, 즉 금융이나 이전소득이 있거나 부채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비취업이 특정한 유형으로 규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보다는 다소 이러한 집단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20대는 오히려 낮아 30대 취업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으로 정규직이 높은 반면 40대에 들어

서면 정규직이 45%, 비정규직이 54%로 비정규직 비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40대의 취업자가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33%에 달하는 규모인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시기 여성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20대와 30대에는 상용고 중심, 40대 이후는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임시나 일고로 삼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산업별 구분을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의 취업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공공부문이나 사회보장, 교육부문으로의 취업이 약 23%, 광공업으로의 취업이 16%로 이들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취업형태로는 임금 근로자가 77%로 가장 많았다. 취업자 중 65%가 근로시간이 적당하다고 평가했으며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고 평가한 사람도 34%에 달했다. 85%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82% 정도가 보통수준 이상으로 다닐만한 직장으로 평가했으며 90% 정도가 직장을 향후 유지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종업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취업자가 약 20%에 달하여 취업의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60%,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40%정도로 정규직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8.4만원이며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86.7만원으로 나타나 이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3) 소결

위의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1998년 비취업상태에서 1999년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특성은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음해에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 2000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후 2001년에는 다시 교육수준, 자격증 등이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경제상황 및 직업의 양극화가 진전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상황의 호전이 2000년에 본격화 되었으며 이 시기의 경기는 주로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여성 취업이 가시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고학력이나 자격증 보유자

보다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종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시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고학력 경력직을 중심으로, 한축은 저학력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추이는 일관성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학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그렇지 못한 집단의 취업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연령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01년으로 연령은 이후에도 취업과 유의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집단의 취업확률은 낮아져 현재 고령자 취업촉진정책의 효과가 여성에게는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촉진 정책은 평생 무급노동에 종사한 비율이 높아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는 다소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비취업자로 남아있는 직업경험과 직업능력이 미비한 집단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훈련 정책으로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가구의 상황은 여성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나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할 확률이 여전히 낮아 육아문제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은 해를 거듭할수록 미약하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비취업에 남아있는 집단은 취업의 장애요인과는 다소 무관한 이유로 비취업상태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는 가계소득면에서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의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2000이후에도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의 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여전히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도 부채가 있는 집단의 취업확률이 높았고 자신이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가계의 사교육비와 같은 개인과 가계의 특정 시점에서의 지출에 대한 요구는 부차 소득원으로서 여성의 취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집단의 취업확률은 2000년 이후는 가시화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취업으로 남아있는 집단에는 사교육비의 부담 등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노동시장으로 여성을 유입하는데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취업자의 취업으로의 이행에 위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의 정도나 방향은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은 여성 비취업자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집단은 취업으로의 이행의사가 사실상 없는 집단과 실질적으로 취업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집단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취업의사가 있으나 취업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집단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그 집단은 주로 고령자이며, 취업경험 및 직업능력이 일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 및 취업알선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여성 비취업자로 하여금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욕구를 자극한다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취업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불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므로 여성 비취업자들로 하여금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취업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취업자에서 취업으로 전환한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면 비취업초기에 취업으로 전환하는 집단이 많았고 해가 지나며 상대적으로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제위기 직후에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취업한 경우가 많았고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제조업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30대와 4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공공행정사회보장 부문으로의 취업이 많았다. 따라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연령대를 망라하는 가운데 제조업으로의 취업은 40대와 50대의 장년층이 이끌어 가고 교육부문 등은 3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고용조건이 좋은 정규직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하고 40-50대는 비정규직과 임시일고의 비중이 높았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9년에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에서 가장 높아 이시기 비정규직의 확산이 강하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젊은 층의 고용조건이 좋다는 점은 향후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에 젊은 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고용조건 개선은 현재 여성의 고용조건 뿐 아니라 미래 여성의 고용조건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취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의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취업자의 특성과 이동

가. 5년간 취업을 지속한 집단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제한된 집단의 노동이동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내에서의 변화 추이와 남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앞서 이용한 자료 중 조사기간 5년 동안 모두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던 집단을 추출하여 보았다. 조사시점에 따라 노동시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직업을 전환하며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 자료는 연간단위로 조사되는 자료로 혹시 대상자가 1개월 정도 노동시장을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년도에는 비취업으로 조사되므로 정확한 기간을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석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간 취업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며 이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화 자료를 통하여 1개월을 단위로 한 구체적인 이동상황을 점검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전체 8,653명 중 2,417명이 5년 동안 모두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1,660명, 여성은 757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사 마지막 년도 연령 기준).

<표 IV-17> 5년간 노동시장내에 있는 집단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계
남	1	51	490	606	350	128	34	1,660
여	2	61	164	285	144	77	24	757
계	3	112	654	891	494	205	58	2,417

남녀를 비교해 보면 20대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5년간 남아 있는 집단이 많다. 이는 군입대, 학업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데 기인한 것이다. 이후 30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3:1 정도로 나타나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남녀 간 불균형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나 여전히 남성은 여성의 2배 이상 노동시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내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인 1998년 취업을 하고 있는 2,419명 중 임금근로자는 1,396명이고 비 임금근로자는 1,02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남성이 1,015명, 여성이 381명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47, 여성이 376으로 남성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으나 여성은 그 차이가 없어 여성이 취업을 지속하는 경우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어서 1999년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다소 줄어들고 비 임금근로자가 다소 증가하였다. 여성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0년을 보면 남녀 공히 임금근로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여성임금근로자가 증가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고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감소와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8> 취업지속자의 근로형태

		98	99	00	01	02	증감
남성	임금	1015	996	968	976	974	-
	비임금	647	663	662	654	667	+
여성	임금	381	379	369	374	384	+
	비임금	376	374	370	364	356	-

취업자의 업종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1998년 취업자의 성별 업종분포는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광공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많다. 비임금 근로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농림어업종사자가 많다. 남성임금 근로자 중 광공업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98년에 비하여 99년부터 증가하였고 98년에 비하여 건설부문에 상대적으로 종사하는 비중이 많아졌다. 반면 금융부동산이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종사하는 산업에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종사산업을 구분하면 먼저 1998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광공업 종사자가 많고 뒤를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많다. 취업을 지속하는 여성임금 근로자 중 광공업 종사자가 많은 것은 흥미롭다. 여성비임금 근로자를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어업종사자가 많은데 이 두 산업의 종사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여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1999년과 2000을 걸쳐 임금근로자 중 광공업 취업자의 비중이 1998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비중의 대폭감소와 남성과 달리 금융부동산, 공공서비스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IV-19> 남성취업자의 성별 업종 분포

(단위: %)

		98	99	00	01	02
임 금	농림어업	0.0	1.1	1.0	0.7	0.5
	광공업	21.9	32.2	32.0	31.9	31.5
	전기가스수도	12.4	11.5	11.0	11.5	11.5
	건설	-	12.3	12.8	12.6	13.7
	도소매음식숙박	5.02	11.0	11.3	11.3	10.8
	금융부동산	17.5	12.5	12.1	12.5	12.9
	공공서비스	24.8	19.0	19.4	19.4	18.9
	기타	18.3	0.2	0.3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임금	농림어업	25.0	24.9	24.3	23.7	23.8
	광공업	14.1	13.7	14.6	14.1	14.5
	전기가스수도	7.4	8.8	8.3	8.4	9.0
	건설	4.4	6.6	6.5	6.3	5.8
	도소매음식숙박	35.6	32.7	33.2	35.2	34.3
	금융부동산	5.2	5.0	4.5	4.4	4.9
	공공서비스	8.3	8.1	8.2	7.9	7.3
	기타	-	0.1	0.3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산업간 직종간 이동

위의 분석에서는 노동시장에 5년간 머물러 있던 집단을 총량을 중심으로 각 년도의 노동시장내에서의 지위 등을 살펴보았다. 총량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내에서 이동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에서의 변동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 729명 중 21명만이 5년 기간 중 산업을 변화시켜 변화의 규모가 매우 적었다. 또한 직종간 이동을 경험한 집단도 이와 더불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기초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시장에 5년간 머물러있는 여성근로자의 이동은 매우 적으며 따라서 산업이나 직종간 이동양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취업을 지속하는 여성 근로

자는 자신에게 최적의 상태를 찾아 움직이는 탐색적인 이동양상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없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근로자는 이동이 빈번하지도 않으며 이동이 일어날 경우는 대개 노동시장 안팎으로의 이동이며 노동시장내에서의 이동은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집단의 이동보다는 노동시장 안팎을 넘나드는 집단의 이동이 여성에게는 더욱 일반적이며 이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표 IV-20> 여성취업자의 성별 업종 분포

(단위: %)

		98	99	00	01	02
임 금	농림어업	-	2.1	1.6	1.3	1.5
	광공업	23.4	31.4	30.1	30.0	31.2
	전기가스수도	11.3	3.7	3.5	3.5	3.9
	건설	-	1.8	1.4	1.3	2.1
	도소매음식숙박	17.9	20.6	21.7	20.6	21.3
	금융부동산	6.0	15.3	16.5	16.3	14.6
	공공서비스	21.5	24.8	24.7	26.2	25.3
	기타	20.0	0.3	0.5	0.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임금	농림어업	32.9	31.5	30.0	30.2	29.2
	광공업	9.5	9.4	9.7	9.9	9.5
	전기가스수도	0.3	0.5	0.5	0.5	0.6
	건설	-	0.0	0.0	0.0	0.3
	도소매음식숙박	44.8	44.1	45.1	45.9	47.7
	금융부동산	1.6	2.4	3.0	2.5	2.2
	공공서비스	10.8	12.0	11.3	11.0	10.4
	기타	-	0.0	0.3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임금근로자의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았다. 우선 1998년을 보면 남녀 공히 대기업종사자가 많았다. 이는 취업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지속성이 높은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이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높았다. 98년 남성의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 비율이 42.6%에서 2002년 45.4%로 증가한데 반하여 여성은 그 비중이 오히려 43.7%에서 35.4%로 줄어들어 여성은 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 자체의 분포도 변화하고 있다. 남성은 10인 미만 소규모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30인 ~70인 규모기업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000인 미만 기업과 이상인 기업 종사자 비율은 서로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보면 여성은 5인 미만 규모 기업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규모 기업 종사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99년에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대규모기업종사의 비중을 높게 하였다. 그러나 2000년 경기가 차츰 회복되어 가며 다시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이동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모를 조정한데서 기인하는 것인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업지속자가 같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논의하면 종사상 기업규모의 변화는 대개 근로자의 이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 규모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근로자의 직종변화는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 상당수의 기업에서 고용규모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그러하여 위의 비중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로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은 정규직고용자가 비정규직에 비하여 매우 많았으나 여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중이 1: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지속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는 5년간 노동시장에 있는 집단의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보면 노동시장 근착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그것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취업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단위: 명)

		98	99	01	02
남성	정규직	869	840	863	859
	비정규직	145	146	113	115
여성	정규직	268	269	302	302
	비정규직	113	107	72	82
계		1,395	1,362	1,350	1,358

주: 2000년에는 해당 질문이 없어 비워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따라서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시장 근착도가 높지 않은 집단, 즉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선택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파악, 즉 노동시장에서의 근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이들이 비정규직 지속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가 이들의 직무자체가 비정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2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98	99	00	01	02
남성	상용고	903	871	851	867	849
	임시고	39	42	38	38	41
	일용고	71	72	71	67	78
여성	상용고	301	296	294	302	306
	임시고	42	49	44	47	48
	일용고	38	31	30	24	26
계		1,395	1,362	1,328	1,345	1,348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1998년에는 남성의 상용고 비율이 89.3%이었으며 여성은 그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남성은 임시직이 적고 일용고가 많은데 비하여 여성은 임시직이 11%, 일용고가 9%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향후 남성의 상용고가 다소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총량에서 볼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를 살펴보았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초과근로가 있을 때 취업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남성임금근로자의 약 반수가 초과근로가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여성은 약 30%정도만이 초과근로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초과근로는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23>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유무

(단위: %)

		98	99	00	01	02
남성	초과근로무	50.7	60.2	58.0	60.0	56.9
	유	49.0	39.8	42.0	40.0	43.1
여성	초과근로무	70.1	68.5	68.2	70.1	66.2
	유	28.9	31.5	31.8	29.9	33.8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평균 임금액수를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998년 월평균 임금은 약 남성 136만원, 여성 84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8년도에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집단이 남성근로자의 약 67.1%, 여성 근로자의 52.0%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증가는 남성 2.0%, 여성 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제위기를 계기로 임금이나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 집단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경제적 충격이 이후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1999년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남성은 월평균 138만원을, 여성은 84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남녀의 성별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도 임금근로자의 남성평균임금은 147만원, 여성은 89만원으로 남성의 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의 임금상

승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남성 평균 164만원, 여성 평균 98만원으로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남성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81만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09만원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빠르게 이루어 졌으나 성별 직종분리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산술적인 성별임금격차는 큰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나.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전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근로자 중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5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5년간 거의 변함이 없어 98년도 363명이다가 2002년에 376명으로 13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더불어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의 이직이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체 여성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역 34%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는 집단 중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나타낸다(문유경 외 2002). 즉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탈퇴는 주로 임금근로자에게 기인하는 것으로 비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근착성이 큰 집단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5개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비율은 13.4%, 40.2%, 46.4%로 고용주의 비중이 낮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20대 비임금근로자가 4%, 30대가 25.3%, 40대가 37.1%, 50대 이상이 33.6%로 40대 이후의 근로자에게서 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는 고졸미만의 학력집단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56.7%에 달한다. 고졸학력자가 31.6%를 차지하고 있어 고졸이하의 학력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요인은 성지미, 안주엽(2000)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자영업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는 첫 직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게서 비임금근

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배우자가 비임금근로를 할 수록 비임금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주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여성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등 비임금근로의 잇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 근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원인으로도 평가되는데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로할 경우 설사 임금근로자와 같은 시간동안 근로를 하더라도 시간의 활용에 있어 매우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케하며 기타 가정직장 양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짧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4 > 근로시간의 분포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62.7	63.8	62.5	59.7	59.6

(시간/주)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60시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의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추이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정도는 미미하여 향후 임금근로자의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 상대적인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앞서 분석한 두가지는 노동시장에서 비취업자의 취업으로의 탈출과 비취업상태의 지속, 취업지속자의 특성이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집단의 경우 이동이 매우 적으며 이들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반수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근착도가 강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하였듯이 여성근로자의 특성은 노동시장의 유출입이다. 즉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도 5년간의 기간 중에 1회의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5회의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나뉜다.

또한 노동시장내에 5년간 남아있는 집단에 비하여 산업간 직종간 이동 양상도 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사항은 전장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중복된 결과는 전장을 참고 하도록 하고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하여 5개년의 기간을 통하여 구축된 개인별 패널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에 비하여 패널자료(panel data)는 시계열로 구축된 횡단면자료의 총량을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지닌 관측되지 않은 개별적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Chamberlain(1980)이 사용한 고정효과로짓모형(fixed effect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특히 이 모형은 표본수가 많고 패널의 시계열이 짧은 자료에 더욱 적합하다(Greene, 1992).

Chamberlain(1980)의 모형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추정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Y = \beta'x + \alpha_i + e$$

오차항은 정규분포 $N(0, \sigma^2)$ 를 따른다. 중요한 것은 α_i 인데 이는 관측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개별적인 고정특성들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건부 밀도함수(density function)는 이 α_i 값에 의존하지 않으며 β 와 σ 에 의존한다.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 = \prod \text{Prob}(Y_{i1}=1, Y_{i2}=1, Y_{i3}=1, Y_{i4}=1, Y_{i5}=1)$$

즉 5개년의 기간동안 모두 취업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 때 구분은 취업과 비취업으로 제한한다. 취업한 경우를 1, 비취업인 경우를 0이라 하였다. 단 이 분석에서는 비취업을 연속한 집단, 즉 합이 0이 되는 집단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 모형의 특성상 변화가 없는 독립변수 등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수준

이나 혼인상태 등 변화가 미미한 변수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성별을 더미 변수로 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수는 1회 이상 노동시장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2,310명의 여성이며 각각의 표본당 1회에서 5회까지의 조사가 축적되었으므로 전체 표본수는 11,550명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는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는데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구의 사항으로는 가구원 수나 6세 미만 자녀의 유무를 고려하였으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거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개인변수로는 준거집단을 임금근로자로 하였을 경우 비임금근로자 여부, 취업에 있어 개인적인 경로를 통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근로형태가 전일제 혹은 시간제인지,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교육 및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아 밖의 산업을 준거집단으로 보았다. 직종으로는 전문가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 근로자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장 규모는 100인 초과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100인 미만의 중기업을 고려하였다.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20시간 이하,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추정결과를 설명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no effect) 로짓모형과 각 개인이 지닌 관측되지 않는 개별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얻을 수 있는 고정효과 (Fixed effect) 로짓모형의 분석이다. 개인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구원의 수가 많을 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취업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단의 취업이 높고 부채가 있는 가구의 취업이 낮아 주목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취업에 원인으로 역할을 한 것인지 취업의 결과인지 밝힐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취업을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공급자적 요인들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수요측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를 보이는 결과라 하겠다.

<표 IV-25> 취업선택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추정결과

독립변수	No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계수	t 값	계수	t 값
AGE	-0.39	-0.41	0.30	2.76**
NUMHH	-0.23	-17.38**	0.24	7.37**
FINC	-0.19	-2.51*	0.05	0.48
DEBT	-0.37	-7.39**	-0.43	-5.72**
ECOHARD	-0.32	-6.52**	0.19	2.79**
CHILD	-0.40	-5.89**	-0.50	-4.92**
HOUSE	1.00	18.36**	1.99	24.51**
BENEFIT	-0.06	-0.63	0.24	1.79
NWAGE	0.19	2.02*	0.33	3.26**
SRCHP	-1.53	-8.13**	-1.52	-7.39**
FULL	-2.07	-18.85**	-1.92	-16.43**
PART	-0.54	-5.20**	-0.40	-3.54**
AGRI	-0.17	-1.22	-0.85	-4.31**
MANUF	0.19	1.61	-0.50	-3.43**
ELEC	0.60	3.26**	0.04	0.16
CONST	0.46	2.20*	-0.40	-1.52
RETAIL	0.12	1.02	0.50	3.45**
FINAN	0.38	3.01**	-0.22	-1.42
PUBL	0.39	3.55**	-0.13	-0.98
SAMU	1.07	9.04**	1.40	10.06**
RETA	1.00	8.21**	1.32	9.16**
SIMP	1.04	8.71**	1.51	10.56**
LT10	0.66	3.68**	0.49	2.47*
LT100	0.02	0.18	-0.13	-0.88
LTH20	-0.22	-1.35	-0.07	-0.40
LTH40	-0.19	-1.60	-0.15	-1.13
GTH40	-0.44	-4.30**	-0.38	-3.43**
one	0.75	0.87		
Log-likelihood	-5299.4		-2864.5	

주: **는 99%에서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취업자의 특성으로는 비임금근로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개인적 구직경로로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전일제나 시간제 근로가 취업에 어떠한 확실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를 할 경우 취업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할 확률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것이

나타나며 직종별로는 전문가에 비하여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근로 모두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효과와 같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근로시간에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라. 소결

취업자들을 살펴본 결과 노동패널에서 나타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취업을 5년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동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노동시장 근착도가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보다는 노동시장을 유출입하며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규모가 예상대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집단의 경우 산업과 직종에서의 이동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개별적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해 본 결과 6세 미만 자녀의 보유나 연령과 같은 변수들은 취업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고 가구의 경제적 사항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 보다는 이러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개인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비임금근로를 할 경우 취업을 할 확률이 높았고 전일제근로가 취업확률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친화적 고용 정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야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가는 현재의 정규직 중심 전일제 근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변수의 영향에서도 나타나 장시간 근로를 할 수록 취업을 할 확률이 저하되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직종효과는 강하게 나타나나 산업효과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제 근로의 확산 등 비정

규직에 관한 문제는 정책대안으로 수립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시간제 근로나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없는 시간제 근로의 확산 등은 또다른 노동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여성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양적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시장은 더욱 열악한 환경을 맞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선행하여야 하는 정책은 현재 취업자의 지위 개선에 대한 정책임을 간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요약	125
2. 정책방향	129
3. 여성 취업자 정책	131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1. 연구결과 요약

가. 월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우선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성별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성과 여전히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불안정성, 경력단절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진입 시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어느 한 집단이 일률적으로 취업 이행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성별 취업 이행률이 달라진다. 주로 6~8월, 또는 10~12월에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3~4월에는 남성의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고용형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추론케 한다.

산업간 이동을 보면 여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광업·광업’, 남성에게 가장 비중있는 산업은 ‘전기가스, 건설, 도소매,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의 성별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두 번째 종사 산업에서도 기존의 성별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데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광업·광업’의 남성 비율 증가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직종간 이동을 보면 ‘전문가·관리·준전문가직’ 종사자의 남성 비율은 정확히 여성의 두 배가 되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노동이동 후 두 번째 취업 직종 분포도 이와 같은 성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 이동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직종간 배타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위신이 높은 직종일수록 해체의 경향이 강하고 반대의 경우 직종 이탈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입직 초기부터 여성의 직종 분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나타나는데 실제 전문직 여성의 하향 이동은 많이 발견되지만 역의 현상은 드물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입증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1/3 가량이 ‘전문/관리/준전문직’으로 이동하는 데 이러한 취업경

력에 따른 직종 이동이 여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생산노무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 사이의 높은 상호 이동성이 발견될 뿐이다.

종사상 지위의 성별 차이는 산업, 직종간 차이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성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동 후의 종사상 지위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더 크게 발견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종사상 지위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그만큼 한국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의 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남성에 비해서 이 연령대의 취업이행률 감소분이 작지만 연령 증가에 따른 취업진입장벽은 확인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모두 취업률이 의미있게 낮고 전문대졸과 고졸 사이엔 차이가 없으며,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낮아진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여성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나 다만 교육연한의 증가로 인해 입직 시점이 연기되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혼인상태에서는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모두 취업률이 낮아진다. 사별/이혼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기존 연구와 배치되기도 하나 이것이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첫 번째 종사 산업으로는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률이 높고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률이 현저히 높다. 이 점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진행 현상을 확인하기도 하며 여성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비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준거집단인 ‘35세-40세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모두 비취업률이

높아진다. 즉 준거집단보다 나이가 든 세대에선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보다 젊은 연령대에선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여성의 취업 연속성을 증대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준거집단인 고졸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비취업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다. 무학력자의 취업단절 경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취업단절 이유는 다를 것이지만, 여성의 학력과 취업연속성이 정(+)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로는 준거범주인 미혼여성에 비해 유배우 여성과 사별/이혼 여성 모두 취업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편모 가족 또는 이혼 독신 여성 등의 고령 여성의 취업 안정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종사 산업으로는 농림직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취업 유지 경향이 높고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의 취업단절 경향이 높다.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직의 취업 유지 경향이 강하며 생산/노무/기능직은 사무직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노동이동 실태에서 이들 집단은 비취업 경향이 강하며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나. 연도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

연도별로 여성의 노동이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여성 취업자속자의 규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은 경제위기 직후에는 적은 규모였으나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실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경제위기 직후에는 다소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줄어들었고 실업상태에 남아있는 집단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이나 실업으로의 전환도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말해주는 것은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양극화

추이이다. 즉 취업자의 취업지속성이 높은 것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의 그러한 상태지속성이 또한 높은 것이다. 경제위기 직후에는 여성의 구직이 보다 활발하고 취업에 대한 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후 경기회복을 거치며 이러한 추세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실업자의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기존에 취업을 하고 있는 집단에게 다소 양호하게 변화하고 있거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취업지속의지가 강해지거나 여성의 취업이 필요한 집단을 중심으로 취업지속성은 강화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는 더욱 어렵거나 굳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의사를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참가 제고 정책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실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탈출 방안들은 여성근로자에게 별다른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비취업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대다수는 실업자가 아니고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이들이 5차 년도 기준으로 30-39세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취업 이유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보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의 비취업을 고착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령여성의 비취업자 비율이 높아 전체 비취업 지속자 여성 중 33.7%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50대 여성의 비취업자 규모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령자의 취업이 60대 이후 단절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비취업자의 이유를 보면 고령이 가장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비취업지속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 많으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전소득에 그쳐 근로소득이 더욱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자격증이 있거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취업으로의 이행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인 양극화, 즉 한축은 고학력 경력직을 중심으로 한축은 저학력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정규직으로 이후 장년층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젊은 층은 교육 등 고학력 집단의 취업이 장년층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산업으로의 취업이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집단은 육아와 같은 장애요인에 의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집단이 여전히 많으며 동시에 고령자이거나, 직업경험이 일천하여 취업할 가능성이 낮거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 취업의사가 없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중 취업능력이 없는 집단은 수요측면에서 고려할 때 취업 가능성이 실제로 낮은 집단이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고, 직업능력이 있는 집단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정책방향

본 연구결과는 여성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 경향의 완화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공고화라는 양극화의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로의지가 있으며 직업능력이 있는 집단에게는 노동시장이 유리한 여건이며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를 원하지 않는 집단, 즉 근로의 비용이 큰 집단은 과감히 가계생산을 선택하므로서 이 부문에서의 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의 근로배분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가계생산, 여가로 삼분되기 보다는 주로 노동시장 근로의 비중이 높아 가계생산이 적거나, 가계생산을 주로 하고 노동시장 근로자 적은 형태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노동시장의 여건이 근로선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좋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연령이 높거나 직업능력면에서 부족한 집단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학력화의 급

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 호의적인 여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의 근착도를 제고하는데 희망적인 관측을 가능케한다. 또한 자격증과 같이 직업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signal)가 있다면 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단절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집단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구조가 경력직에 대한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냄에 따라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근착성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집단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더욱 필요하며 근로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여야 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유출입을 빈번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경력축적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또한 경력이나 기술의 축적과는 무관한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제조업에서의 기능인력이나 단순노무인력,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경력축적이 임금의 증가나 향후의 좋은 직업으로의 노동이동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직종에 있어서의 취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내 지위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매우 취약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은 그러나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이들은 연령코호트를 볼 때 향후 20년 내외에 존재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40대 여성들의 평균 학력은 고졸이나 60대 여성들의 평균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교육수준이 과거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고 현재 30대와 20대인 여성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과거 여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은 현재 중장년층 여성이 취업하는 직종과는 상당부분 상이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비취업은 현재 장년층 이상의 여성과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집단의 지원정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장년층 이상 여성 집단의 노후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실업률도 낮고 실업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은 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실업자는 노동시장에 있으면서 현재 일을 하지 않으나 취업의사가 있어 구직을 하는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며 그 결과 여성은 취업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비취업자 즉 비경제활동자에 대한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여성의 노동이동과 관련된 정책은 노동시장내에서 산업과 직종간 이동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 유출입을 거듭하는 집단에 대한 정책이어야 하며 이는 취업자의 취업지속 지원정책, 비취업자의 취업지원정책이다. 비취업자 중 오랜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집단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타 집단의 취업지원 정책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들 중 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3. 여성 취업자 정책

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 취업자 정책은 여성집단 내부에 있는 취업상의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고, 각 목표집단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반적인 여성노동의 현황에 입각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을 제언하며, 둘째는 여성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걸맞는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실태와 이중노동시장의 존재 확인에 따라, 고용불안정 및 차별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여전히 여성 취업자 정책에서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 글의 III장과 IV장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즉 비정규직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상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

한 혼란스러운 개념 규정은, 연구자에 따라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비중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73%(이향원, 2003)까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의 비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새로이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다.

고용 관행과 노동 조건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이중노동시장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상태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하위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모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곧바로 계약해지 당하거나 원직복직을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 90일은 전혀 실효성 없는 보호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이동 실태분석 결과,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사회에선 여전히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견지되어야 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여성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노동수요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기반한 섬세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가. 탄력 근로 정책

여성 취업자에 대한 대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의 확립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근착도가 높은 집단 중 비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점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우선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도이다. 시간제나 탄력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한 비정규직 중심의 여성근로가 급증하였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요구하는 집단들도 분명히 여성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명목상의 시간제 고용이 아닌, 기능적 유연성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직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정규직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제한적이거나 여성에게 친화적인 대안적 고용형태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전술하였듯이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은 자신과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전일제 근로를 통하여 반드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근로자에게 전일제와 비취업이라는 양자간의 선택이 부여되는 현실은 시장기능의 실패와 다름 아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근로시간의 탄력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노동시장 외부에 위치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전일제의 근로와 같은 경직적인 근로형태는 또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정책은 탄력적인 근로시간이 주는 장점을 살리며 이것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시간제 취업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시간제 근로의 경우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과의 규모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이들의 시간당 기여도의 산출이 가능하고 그 것을 기초로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현행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의 임금체제로 전환시키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임금구조이다. 더불어 현재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임금체계의 수립은 여성의 탄력근로를 가능하게 하여 취업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 또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법이다.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지속성이 높으며 여성은 비 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여성에 대한 정책은 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소외집단의 규모를 크게 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들의 규모와 실태에 관한 파악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편입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자영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며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이 노동시장 근착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임금근로자 보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나타내며 가사와 병행하는 등 근로환경에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낮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로환경에 대한 분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모성보호 등과같이 현재 임금근로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적용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 보육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여성의 근로환경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경우 경력의 단절은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신의 직종으로 하향이동을 의미한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전문직 여성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육아 및 가사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은 여성근로자의 취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이

다. 특히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연령 코호트는 급격한 고학력화를 거친 여성들이라는 점은 현재 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의 취업지원 대책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들 집단은 취업의 장애요인을 제거시켜 주면 상당기간 취업을 지속하여 향후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집단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이나 방과후 아동 지원정책과 같은 여성에게 더욱 민감한 정책들의 수립 및 실시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정-직장 양립적인 환경이다. 여성의 경우 고용주 보다는 자영자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의 공통점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지속성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출퇴근시간에 있어서의 조정을 통한 시차출퇴근제도의 확산, 재택근무제도의 확산 등 과거 여성근로 대책으로 논의되는 대책의 강력한 실시가 요구된다.

라. 여성 비경제활동자 정책

1) 차별화된 정책집단의 발굴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으로의 이행은 직업능력을 보유한 자격증이 있는 집단 등에서 높았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가능성이 낮고 취업경험의 부재도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볼 때에도 젊은 연령일수록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많아 이들의 취업이 향후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현재 여성취업정책은 그 대상에 있어 구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조건도 양호한 부문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집단은 20대와 30대의 연령층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자격증 등 취업능력을 보유한 집단이다. 따라서 젊은 연령대의 고학력 비취업자에 대하여 전문직화가 가능한 자격증 보유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문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될 경우 하향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고려할 때 고학력이나 취업경험자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지위하락을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능력이 미비한 집단은 보다 적극적인 상담-훈련-취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2) 상담-훈련-취업의 연계

여성 비경제활동 지속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취업 정보의 제공과 직업능력의 개발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수립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나 그 실효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많은 부분이 실망실업자로 이들은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을 중단한 집단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업의 상태는 아닌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대책은 실업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성의 경우 실업자가 적고 이들의 취업으로의 전환도 빨라 여성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은 실업자에 비하여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며 이들이 또한 학력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들의 취업지원 정책이 곧 빈곤 예방을 위한 복지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인 전국의 5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89개 여성회관, 다수의 문화복지센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기관이 취업희망자 뿐 아니라 여성인적자원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곳으로 직업훈련 뿐 아니라 취미 및 문화교육 등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며 직업교육의 내용도 수요자 측에 매우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가사보조, 경비원, 카드상담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미용보조원, 사무보조원, 접수지원 등 대다수가 사무직종이나 서비스업종을 위한 직업훈련에 그치고 있어 여성 비취업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향후 비취업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지원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며 여성에 맞춘 직업훈련보다는 노동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3)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연계한 비취업자 지원

또하나의 정책으로는 이러한 여성 비취업지속자를 위하여 사회적인 일자리의 창출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과정을 살펴볼 때 중장년층 여성은 노동시장의 경향이 일천하거나 과거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랜 경력단절로 인하여 직업능력의 훼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단의 직업능력이나 직업에 대한 의식 등은 취업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장년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고려하면 이들은 주로 누군가를 돌보는 직종이나 기존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산업에 집중되는 현실이며 그것이 또한 현재 중장년층 여성 비취업자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공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복지의 개념을 적용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일자리이며 동시에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의 규모가 커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정책효과는 여성에게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인 노동시장 유출입과 노동시장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여성노동의 분절적인 실태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반드시 후속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본 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노동수요 측인 기업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한 연구의 미비함이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노동이동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 강화됨에 많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동을 경험하였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로, 대기업종사자는 중소기업종사자로, 혹은 취업에서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취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업에서의 해고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나 노동패널조사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로 이들의 이직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분석은 노동공급자의 근로자의 선택과 여건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어 향후 이 부문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연구는 향후 여성의 노동이동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발굴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한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건은 근로자 뿐 아니라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비취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의 이동이 보다 나은 지위로의 탐색적 이동의 성격이 강할 때 근로자의 이동으로 인한 효용은 증가하고 비취업자의 취업욕구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집중될 것이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자, 2003, "여성 노동시장의 쟁점과 정책방향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금재호·조준모(1998), 「조기퇴직자의 이직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홍·김종숙(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금재호(2001),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문유경·안주엽·성지미(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생애과정과 경제활동 -노동시장 진입·퇴장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제환(1992), 「노동력부족과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신동균(1999), 「1998년 노동력 이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2), 「한국의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 은기수·박수미(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제25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 이근희·조명기(1991),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이동」, 한국생산성본부.
- 이향원(2003), "노무현 정부 모성보호 정책 7개월 평가와 과제", 민주노총 토론회 자료집.
- 정진호(1999), "한국의 직장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황수경(2003), "비정규직 여성노동,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정책포럼], 2003년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 Allison, P. D.(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SAS Institute Inc..
- Light, A. & M. Ureta(1992), "Panel Estimates of Male and Female Job Turnover Behavior: Can Female Non-quitters Be Identifie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2), pp.156-181.

- Hachen, D. Jr.(1990), "Three Models of Job Mobility in Labor Markets", *Work and Occupations*, 17(3), pp.320-354.
- Light, A. & M. Ureta(1990), "Gender Differences in Wages and Job Turnover among Continuously Employed Work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990, vol. 80, issue 2, pages 293-97
- David, S. H. Jr.(1990), "Three Models of Job Mobility in Labor Market," *Work and Occupations*, 17(3)
- Cheng, M. M.(1995), "Employment Transitions in the Japanese Male Labor Force," *Work and Occupations*, 22(2), pp.188-216
- Hayghe, H. V.(1997), "Development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 *Monthly Labor Review*, Sept. pp.41-46
- Wootton, B. H.(1997), "Gender Differences in Occupational Employment ," *Monthly Labor Review*, April. pp.15-24
- Blau, F. & L. Kahn(1981), "Race and Sex Difference in Quits by Young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4 (July) pp.563-577
- Kenneth, J. M.(1991), "A Theory of Quits and Layoffs with Efficient Turnov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1, vol. 99, issue 1, pages 1-29
- Byron, W. B. & S. A. Woodbury(1995), "Gender Differences in Faculty Turnover," No. 95-34 in *Staff Working Papers from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Royalty, A. B.(1998), "Job-to-Job and Job-to-No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Lev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98, vol. 16, issue 2, pages 392-443
- Erosa, A., L. Fuster, & D. Restuccia(2002), "Fertility Decisions and Gender Differences in Labor Turnover, Employment, and Wag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002, vol. 5, issue 4, pages 856-891
- Thomas, K. B., & S. Bender(2002), "Technological Change, Organizational Change, and Job Turnover," No 570 in *IZA Discussion Papers from*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Williams, D. R.(2000), Women's part-time employment : A gross flows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April, 1995, Vol. 118, No. 4.



부 록



부록 : 부표

<부표 1> 노동력 상태변화(취업↔비취업)

조사기간	비취업	취업
2001年4月	9815(35.1)	18172(64.9)
2001年5月	9550(34.1)	18437(65.9)
2001年6月	9492(33.9)	18495(66.1)
2001年7月	9560(34.2)	18427(65.8)
2001年8月	9699(34.7)	18288(65.3)
2001年9月	9491(33.9)	18496(66.1)
2001年10月	9449(33.8)	18538(66.2)
2001年11月	9677(34.6)	18310(65.4)
2001年12月	10515(37.6)	17472(62.4)
2002年1月	10936(39.1)	17051(60.9)
2002年2月	10870(38.8)	17117(61.2)
2002年3月	10297(36.8)	17690(63.2)
2002年4月	9660(34.5)	18327(65.5)
2002年5月	9511(34.0)	18476(66.0)
2002年6月	9484(33.9)	18503(66.1)
2002年7月	9602(34.3)	18385(65.7)
2002年8月	9775(34.9)	18212(65.1)
2002年9月	9560(34.2)	18427(65.8)
2002年10月	9551(34.1)	18436(65.9)
2002年11月	9833(35.1)	18154(64.9)
2002年12月	10570(37.8)	17417(62.2)
총 합	562536(36.55)	976749(63.45)

<부표 2> 산업간 이동 실태

조사 기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수리	숙박 음식업	운수창 고통신 업
1998년 6월	5269 (26.61)	126 (0.64)	33 (0.17)	3393 (0.17)	45 (0.23)	1421 (7.18)	3174 (16.03)	1346 (6.80)	1013 (5.12)
1998년 7월	5236 (26.32)	125 (0.63)	30 (0.15)	3405 (17.11)	45 (0.23)	1409 (7.08)	3199 (16.08)	1373 (6.90)	1025 (5.15)
1998년 8월	5251 (26.28)	128 (0.64)	32 (0.16)	3415 (17.09)	44 (0.22)	1395 (6.98)	3194 (15.99)	1385 (6.93)	1026 (5.14)
1998년 9월	5144 (25.78)	130 (0.65)	31 (0.16)	3398 (17.03)	43 (0.22)	1377 (6.90)	3170 (15.89)	1392 (6.98)	1036 (5.19)
1998년 10월	5224 (25.99)	127 (0.63)	31 (0.15)	3391 (16.87)	44 (0.22)	1356 (6.75)	3211 (15.98)	1432 (7.12)	1019 (5.07)
1998년 11월	5057 (25.09)	149 (0.74)	30 (0.15)	3413 (16.94)	45 (0.22)	1365 (6.77)	3246 (16.11)	1448 (7.19)	1031 (5.12)
1998년 12월	4903 (24.39)	162 (0.81)	28 (0.14)	3419 (17.01)	45 (0.22)	1338 (6.66)	3272 (16.28)	1450 (7.21)	1036 (5.15)
1999년 1월	4868 (24.24)	176 (0.88)	29 (0.14)	3428 (17.07)	43 (0.21)	1299 (6.47)	3263 (16.25)	1473 (7.33)	1034 (5.15)
1999년 2월	4888 (24.31)	155 (0.77)	27 (0.13)	3411 (16.97)	43 (0.21)	1258 (6.26)	3293 (16.38)	1460 (7.26)	1044 (5.19)
1999년 3월	4857 (24.07)	153 (0.76)	28 (0.14)	3428 (16.99)	46 (0.23)	1284 (6.36)	3277 (16.24)	1435 (7.11)	1034 (5.13)
1999년 4월	5071 (24.98)	148 (0.73)	27 (0.13)	3436 (16.92)	47 (0.23)	1261 (6.21)	3237 (15.94)	1437 (7.08)	1033 (5.09)
1999년 5월	5187 (25.44)	148 (0.73)	26 (0.13)	3402 (16.69)	51 (0.25)	1257 (6.17)	3232 (15.85)	1458 (7.15)	1029 (5.05)
1999년 6월	5157 (24.82)	148 (0.71)	27 (0.13)	3504 (16.86)	49 (0.24)	1282 (6.17)	3332 (16.03)	1501 (7.22)	1045 (5.03)
1999년 7월	5111 (25.27)	144 (0.71)	26 (0.13)	3404 (16.83)	49 (0.24)	1228 (6.07)	3239 (16.01)	1448 (7.16)	1032 (5.10)
1999년 8월	5120 (25.19)	147 (0.72)	26 (0.13)	3427 (16.86)	51 (0.25)	1240 (6.10)	3244 (15.96)	1468 (7.22)	1034 (5.09)
1999년 9월	5120 (25.03)	148 (0.72)	25 (0.12)	3482 (17.02)	48 (0.23)	1258 (6.15)	3281 (16.04)	1464 (7.16)	1041 (5.09)
1999년 10월	5207 (25.36)	140 (0.68)	23 (0.11)	3500 (17.05)	47 (0.23)	1242 (6.05)	3279 (15.97)	1461 (7.12)	1035 (5.04)
1999년 11월	5226 (24.65)	143 (0.67)	24 (0.11)	3625 (17.10)	49 (0.23)	1330 (6.27)	3412 (16.10)	1541 (7.27)	1066 (5.03)
1999년 12월	5108 (24.03)	161 (0.76)	24 (0.11)	3692 (17.37)	48 (0.23)	1351 (6.36)	3418 (16.08)	1552 (7.30)	1066 (5.02)

(계속)

조사 기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수리	숙박 음식업	운수창 고통신 업
2000년 1월	5058 (23.80)	171 (0.80)	17 (0.08)	3706 (17.44)	45 (0.21)	1321 (6.22)	3437 (16.17)	1594 (7.50)	1060 (4.99)
2000년 2월	5030 (23.57)	155 (0.73)	18 (0.08)	3711 (17.39)	43 (0.20)	1312 (6.15)	3471 (16.27)	1593 (7.47)	1069 (5.01)
2000년 3월	5066 (23.65)	153 (0.71)	17 (0.08)	3688 (17.22)	43 (0.20)	1320 (6.16)	3471 (16.21)	1592 (7.43)	1073 (5.01)
2000년 4월	5194 (24.16)	144 (0.67)	17 (0.08)	3666 (17.06)	41 (0.19)	1322 (6.15)	3462 (16.11)	1598 (7.43)	1068 (4.97)
2000년 5월	5290 (24.53)	141 (0.65)	17 (0.08)	3658 (16.96)	40 (0.19)	1316 (6.10)	3467 (16.08)	1591 (7.38)	1064 (4.93)
2000년 6월	5339 (24.72)	144 (0.67)	18 (0.08)	3634 (16.83)	39 (0.18)	1308 (6.06)	3477 (16.10)	1595 (7.38)	1065 (4.93)
2000년 7월	5339 (24.66)	134 (0.62)	17 (0.08)	3657 (16.89)	38 (0.18)	1291 (5.96)	3496 (16.15)	1617 (7.47)	1064 (4.91)
2000년 8월	5382 (24.85)	130 (0.60)	17 (0.08)	3644 (16.82)	39 (0.18)	1285 (5.93)	3497 (16.15)	1617 (7.47)	1068 (4.93)
2000년 9월	5360 (24.68)	138 (0.64)	17 (0.08)	3697 (17.03)	42 (0.19)	1299 (5.98)	3518 (16.20)	1618 (7.45)	1078 (4.96)
2000년 10월	5371 (24.70)	135 (0.62)	17 (0.08)	3699 (17.01)	43 (0.20)	1300 (5.98)	3526 (16.22)	1609 (7.40)	1080 (4.97)
2000년 11월	5221 (24.02)	149 (0.69)	17 (0.08)	3735 (17.19)	44 (0.20)	1339 (6.16)	3516 (16.18)	1619 (7.45)	1082 (4.98)
2000년 12월	5141 (23.65)	154 (0.71)	17 (0.08)	3728 (17.15)	44 (0.20)	1351 (6.21)	3559 (16.37)	1628 (7.49)	1087 (5.00)
2001년 1월	5109 (23.47)	150 (0.69)	26 (0.12)	3763 (17.29)	40 (0.18)	1322 (6.07)	3427 (15.74)	1643 (7.55)	1093 (5.02)
2001년 2월	5078 (23.33)	150 (0.69)	29 (0.13)	3731 (17.14)	40 (0.18)	1317 (6.05)	3427 (15.75)	1653 (7.59)	1099 (5.05)
2001년 3월	5122 (23.51)	146 (0.67)	28 (0.13)	3705 (17.00)	39 (0.18)	1309 (6.01)	3398 (15.60)	1641 (7.53)	1100 (5.05)
2001년 4월	5251 (24.06)	133 (0.61)	28 (0.13)	3655 (16.75)	37 (0.17)	1296 (5.94)	3375 (15.46)	1631 (7.47)	1088 (4.98)
2001년 5월	5302 (24.26)	134 (0.61)	28 (0.13)	3660 (16.75)	37 (0.17)	1280 (5.86)	3363 (15.39)	1623 (7.43)	1083 (4.96)
2001년 6월	5341 (24.40)	135 (0.62)	28 (0.13)	3635 (16.61)	37 (0.17)	1284 (5.87)	3349 (15.30)	1648 (7.53)	1092 (4.99)
2001년 7월	5320 (24.25)	135 (0.62)	27 (0.12)	3635 (16.57)	37 (0.17)	1293 (5.89)	3388 (15.44)	1662 (7.58)	1090 (4.97)
2001년 8월	5288 (24.17)	137 (0.63)	29 (0.13)	3623 (16.56)	37 (0.17)	1303 (5.96)	3382 (15.46)	1669 (7.63)	1093 (5.00)

(계속)

조사 기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수리	숙박 음식업	운수창 고통신 업
2001년 9월	5262 (24.03)	141 (0.64)	29 (0.13)	3648 (16.66)	37 (0.17)	1299 (5.93)	3397 (15.51)	1667 (7.61)	1095 (5.00)
2001년 10월	5297 (24.18)	135 (0.62)	28 (0.13)	3643 (16.63)	36 (0.16)	1288 (5.88)	3402 (15.53)	1679 (7.66)	1095 (5.00)
2001년 11월	5194 (23.71)	136 (0.62)	28 (0.13)	3689 (16.84)	36 (0.16)	1321 (6.03)	3412 (15.57)	1681 (7.67)	1108 (5.06)
2001년 12월	5051 (23.09)	145 (0.66)	28 (0.13)	3723 (17.02)	37 (0.17)	1349 (6.17)	3433 (15.69)	1689 (7.72)	1104 (5.05)
2002년 1월	4989 (22.81)	156 (0.71)	29 (0.13)	3727 (17.04)	37 (0.17)	1333 (6.10)	3418 (15.63)	1710 (7.82)	1107 (5.06)
2002년 2월	4951 (22.64)	160 (0.73)	28 (0.13)	3719 (17.01)	37 (0.17)	1340 (6.13)	3429 (15.68)	1715 (7.84)	1106 (5.06)
2002년 3월	4987 (22.76)	160 (0.73)	27 (0.12)	3682 (16.81)	36 (0.16)	1339 (6.11)	3402 (15.53)	1740 (7.94)	1104 (5.04)
2002년 4월	5077 (23.15)	135 (0.62)	27 (0.12)	3639 (16.59)	37 (0.17)	1340 (6.11)	3396 (15.49)	1727 (7.88)	1100 (5.02)
2002년 5월	5166 (23.54)	132 (0.60)	28 (0.13)	3641 (16.59)	38 (0.17)	1322 (6.02)	3383 (15.41)	1713 (7.80)	1098 (5.00)
2002년 6월	5191 (23.62)	123 (0.56)	28 (0.13)	3622 (16.48)	37 (0.17)	1333 (6.06)	3378 (15.37)	1710 (7.78)	1104 (5.02)
2002년 7월	5143 (23.38)	122 (0.55)	28 (0.13)	3627 (16.49)	36 (0.16)	1328 (6.04)	3409 (15.50)	1715 (7.80)	1113 (5.06)
2002년 8월	5164 (23.47)	117 (0.53)	28 (0.13)	3635 (16.52)	35 (0.16)	1309 (5.95)	3409 (15.49)	1721 (7.82)	1108 (5.04)
2002년 9월	5144 (23.36)	120 (0.54)	27 (0.12)	3630 (16.48)	33 (0.15)	1324 (6.01)	3424 (15.55)	1725 (7.83)	1107 (5.03)
2002년 10월	5118 (23.27)	120 (0.55)	29 (0.13)	3635 (16.53)	34 (0.15)	1338 (6.08)	3404 (15.48)	1720 (7.82)	1110 (5.05)
2002년 11월	5040 (22.94)	122 (0.56)	30 (0.14)	3646 (16.59)	34 (0.15)	1363 (6.20)	3420 (15.56)	1712 (7.79)	1105 (5.03)
2002년 12월	4999 (22.74)	121 (0.55)	30 (0.14)	3666 (16.68)	34 (0.15)	1381 (6.28)	3431 (15.61)	1714 (7.80)	1105 (5.03)
총합	283379 (24.21)	7771 (0.66)	1408 (0.12)	197775 (16.90)	2261 (0.19)	72426 (6.19)	185526 (15.85)	87303 (7.46)	58944 (5.04)

(계속)

조사 기간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 대서비스	공공국방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	국제 외국기관
1998년 6월	566 (2.86)	756 (3.82)	689 (3.48)	839 (4.24)	223 (1.13)	665 (3.36)	229 (1.16)	15 (0.08)
1998년 7월	578 (2.90)	770 (3.87)	699 (3.51)	840 (4.22)	225 (1.13)	681 (3.42)	241 (1.21)	16 (0.08)
1998년 8월	578 (2.89)	784 (3.92)	713 (3.57)	839 (4.20)	235 (1.18)	691 (3.46)	251 (1.26)	17 (0.09)
1998년 9월	582 (2.92)	794 (3.98)	798 (4.00)	854 (4.28)	236 (1.18)	694 (3.48)	256 (1.28)	17 (0.09)
1998년 10월	578 (2.88)	811 (4.03)	804 (4.00)	854 (4.25)	240 (1.19)	699 (3.48)	263 (1.31)	16 (0.08)
1998년 11월	577 (2.86)	819 (4.06)	875 (4.34)	862 (4.28)	243 (1.21)	705 (3.50)	271 (1.34)	16 (0.08)
1998년 12월	571 (2.84)	845 (4.20)	927 (4.61)	860 (4.28)	244 (1.21)	714 (3.55)	272 (1.35)	18 (0.09)
1999년 1월	565 (2.81)	849 (4.23)	948 (4.72)	854 (4.25)	243 (1.21)	723 (3.60)	274 (1.36)	16 (0.08)
1999년 2월	567 (2.82)	859 (4.27)	996 (4.95)	857 (4.26)	243 (1.21)	711 (3.54)	275 (1.37)	16 (0.08)
1999년 3월	567 (2.81)	872 (4.32)	1086 (5.38)	865 (4.25)	247 (1.22)	704 (3.49)	276 (1.37)	16 (0.08)
1999년 4월	574 (2.83)	884 (4.37)	1040 (5.12)	865 (4.26)	252 (1.24)	712 (3.51)	262 (1.29)	16 (0.08)
1999년 5월	570 (2.80)	891 (4.37)	1015 (4.98)	859 (4.21)	256 (1.26)	719 (3.53)	272 (1.33)	16 (0.08)
1999년 6월	601 (2.89)	921 (4.33)	1014 (4.88)	903 (4.35)	261 (1.26)	732 (3.52)	288 (1.39)	16 (0.07)
1999년 7월	561 (2.77)	900 (4.45)	969 (4.79)	861 (4.26)	253 (1.25)	726 (3.59)	263 (1.30)	16 (0.07)
1999년 8월	566 (2.79)	910 (4.48)	958 (4.71)	860 (4.23)	257 (1.26)	731 (3.60)	269 (1.32)	14 (0.07)
1999년 9월	560 (2.74)	941 (4.60)	945 (4.62)	870 (4.25)	259 (1.27)	737 (3.60)	266 (1.30)	14 (0.07)
1999년 10월	562 (2.74)	945 (4.60)	912 (4.44)	881 (4.29)	254 (1.24)	761 (3.71)	270 (1.32)	13 (0.06)
1999년 11월	591 (2.79)	975 (4.60)	948 (4.47)	925 (4.36)	266 (1.25)	773 (3.65)	292 (1.38)	13 (0.06)
1999년 12월	597 (2.81)	992 (4.67)	968 (4.55)	924 (4.35)	270 (1.27)	779 (3.67)	292 (1.37)	13 (0.06)

(계속)

조사 기간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 대서비스	공공국방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	국제 외국기관
2000년 1월	601 (2.83)	1968 (9.26)	0 (0.00)	918 (4.32)	276 (1.30)	784 (3.69)	284 (1.34)	14 (0.07)
2000년 2월	617 (2.89)	2009 (9.42)	0 (0.00)	934 (4.38)	285 (1.34)	781 (3.66)	295 (1.38)	14 (0.07)
2000년 3월	611 (2.85)	2026 (9.46)	0 (0.00)	957 (4.47)	290 (1.35)	801 (3.74)	297 (1.39)	14 (0.07)
2000년 4월	604 (2.81)	2006 (9.33)	0 (0.00)	968 (4.50)	293 (1.36)	805 (3.75)	292 (1.36)	15 (0.07)
2000년 5월	607 (2.81)	1985 (9.21)	0 (0.00)	971 (4.50)	299 (1.39)	804 (3.73)	298 (1.38)	16 (0.07)
2000년 6월	602 (2.79)	1964 (9.09)	0 (0.00)	977 (4.52)	300 (1.39)	809 (3.75)	310 (1.44)	17 (0.08)
2000년 7월	611 (2.82)	1948 (9.00)	0 (0.00)	980 (4.53)	306 (1.41)	821 (3.79)	314 (1.45)	17 (0.08)
2000년 8월	608 (2.81)	1928 (8.90)	0 (0.00)	977 (4.51)	310 (1.43)	823 (3.80)	319 (1.47)	15 (0.07)
2000년 9월	600 (2.76)	1911 (8.80)	0 (0.00)	981 (4.52)	301 (1.39)	819 (3.77)	321 (1.48)	15 (0.07)
2000년 10월	602 (2.77)	1924 (8.85)	0 (0.00)	994 (4.57)	301 (1.82)	817 (3.76)	312 (1.43)	14 (0.06)
2000년 11월	607 (2.79)	1965 (9.04)	0 (0.00)	996 (4.58)	298 (1.37)	818 (3.76)	312 (1.44)	14 (0.06)
2000년 12월	610 (2.81)	1977 (9.09)	0 (0.00)	1000 (4.60)	294 (1.35)	817 (3.76)	318 (1.46)	14 (0.06)
2001년 1월	621 (2.85)	1080 (4.96)	859 (3.95)	999 (4.59)	306 (1.41)	991 (4.55)	324 (1.49)	15 (0.07)
2001년 2월	622 (2.86)	1094 (5.03)	861 (3.96)	1012 (4.65)	310 (1.42)	1000 (4.59)	327 (1.50)	15 (0.07)
2001년 3월	623 (2.86)	1090 (5.00)	873 (4.01)	1021 (4.69)	319 (1.46)	1020 (4.68)	340 (1.56)	15 (0.07)
2001년 4월	622 (2.85)	1089 (4.99)	879 (4.03)	1036 (4.75)	332 (1.52)	1031 (4.72)	331 (1.52)	13 (0.06)
2001년 5월	612 (2.80)	1110 (5.08)	869 (3.98)	1037 (4.74)	336 (1.54)	1035 (4.74)	334 (1.53)	13 (0.06)
2001년 6월	611 (2.79)	1116 (5.10)	850 (3.88)	1043 (4.77)	336 (1.54)	1042 (4.76)	329 (1.50)	12 (0.05)
2001년 7월	610 (2.78)	1127 (5.14)	837 (3.82)	1042 (4.75)	345 (1.57)	1045 (4.76)	334 (1.52)	12 (0.05)
2001년 8월	604 (2.76)	1135 (5.19)	812 (3.71)	1044 (4.77)	342 (1.56)	1037 (4.74)	328 (1.50)	11 (0.05)

(계속)

조사 기간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 대서비스	공공국방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	국제 외국기관
2001년 9월	604 (2.76)	1144 (5.22)	797 (3.64)	1051 (4.80)	341 (1.56)	1038 (4.74)	336 (1.53)	11 (0.05)
2001년 10월	604 (2.76)	1151 (5.25)	779 (3.56)	1043 (4.76)	344 (1.57)	1041 (4.75)	334 (1.52)	10 (0.05)
2001년 11월	609 (2.78)	1152 (5.26)	769 (3.51)	1038 (4.74)	340 (1.55)	1042 (4.76)	342 (1.56)	10 (0.05)
2001년 12월	608 (2.78)	1160 (5.30)	758 (3.46)	1040 (4.75)	343 (1.57)	1050 (4.80)	349 (1.60)	10 (0.05)
2002년 1월	604 (2.76)	1173 (5.36)	762 (3.48)	1047 (4.79)	346 (1.58)	1066 (4.87)	356 (1.63)	10 (0.05)
2002년 2월	606 (2.77)	1176 (5.38)	760 (3.48)	1050 (4.80)	348 (1.59)	1068 (4.88)	364 (1.66)	10 (0.05)
2002년 3월	602 (2.75)	1183 (5.40)	761 (3.47)	1076 (4.91)	352 (1.61)	1076 (4.91)	368 (1.68)	12 (0.5)
2002년 4월	596 (2.72)	1197 (5.46)	770 (3.51)	1078 (4.92)	357 (1.63)	1077 (4.91)	366 (1.67)	11 (0.5)
2002년 5월	593 (2.70)	1197 (5.45)	746 (3.40)	1078 (4.91)	358 (1.63)	1080 (4.92)	366 (1.67)	11 (0.5)
2002년 6월	589 (2.68)	1194 (5.43)	748 (3.40)	1074 (4.89)	363 (1.65)	1113 (5.06)	361 (1.64)	11 (0.5)
2002년 7월	595 (2.71)	1210 (5.50)	750 (3.41)	1081 (4.91)	361 (1.64)	1100 (5.00)	367 (1.67)	11 (0.5)
2002년 8월	597 (2.71)	1199 (5.45)	752 (3.42)	1081 (4.91)	364 (1.65)	1105 (5.02)	369 (1.68)	10 (0.05)
2002년 9월	598 (2.72)	1211 (5.50)	742 (3.37)	1084 (4.92)	367 (1.67)	1101 (5.00)	374 (1.70)	10 (0.05)
2002년 10월	590 (2.68)	1218 (5.54)	743 (3.38)	1080 (4.91)	367 (1.67)	1101 (5.01)	374 (1.70)	11 (0.5)
총 합	32692 (2.79)	67966 (5.81)	36252 (3.10)	53446 (4.57)	16574 (1.42)	48846 (4.17)	17172 (1.47)	745 (0.06)

<부표 3> 산업간 이동분포(3범주)

(단위: 명, %)

조사기간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서비스판매업
1998년 6월	5428(19.39)	3393(12.12)	19166(68.48)
1998년 7월	5391(19.26)	3405(12.17)	19191(68.57)
1998년 8월	5411(19.33)	3415(12.20)	19161(68.46)
1998년 9월	5305(18.96)	3398(12.14)	19284(68.90)
1998년 10월	5382(19.23)	3391(12.12)	19214(68.65)
1998년 11월	5236(18.71)	3413(12.19)	19338(69.10)
1998년 12월	5093(18.20)	3419(12.22)	19475(69.59)
1999년 1월	5073(18.13)	3428(12.25)	19486(69.63)
1999년 2월	5070(18.12)	3411(12.19)	19506(69.70)
1999년 3월	5038(18.00)	3428(12.25)	19521(69.75)
1999년 4월	5246(18.74)	3436(12.28)	19305(68.98)
1999년 5월	5361(19.16)	3402(12.16)	19224(68.69)
1999년 6월	5332(19.05)	3504(12.52)	19151(68.43)
1999년 7월	5281(18.87)	3504(12.16)	19302(68.97)
1999년 8월	5293(18.91)	3427(12.24)	19267(68.84)
1999년 9월	5293(18.91)	3482(12.44)	19212(68.65)
1999년 10월	5370(19.19)	3500(12.51)	19117(68.31)
1999년 11월	5393(19.27)	3625(12.95)	18969(67.78)
1999년 12월	5293(18.91)	3692(13.19)	19002(67.90)
2000년 1월	5246(18.74)	3706(13.24)	19035(68.01)
2000년 2월	5203(18.59)	3711(13.26)	19073(68.15)
2000년 3월	5236(18.71)	3688(13.18)	19063(68.11)
2000년 4월	5355(19.13)	3666(13.10)	18966(67.77)
2000년 5월	5448(19.47)	3658(13.07)	18881(67.46)
2000년 6월	5501(19.66)	3634(12.98)	18852(67.36)
2000년 7월	5490(19.62)	3657(13.07)	18840(67.32)
2000년 8월	5529(19.76)	3644(13.02)	18814(67.22)
2000년 9월	5515(19.71)	3697(13.21)	18775(67.08)
2000년 10월	5523(19.73)	3699(13.22)	18765(67.05)
2000년 11월	5387(19.25)	3735(13.35)	18865(67.41)
2000년 12월	5312(18.98)	3728(13.32)	18947(67.70)
2001년 1월	5285(18.88)	3763(13.45)	18939(67.67)
2001년 2월	5257(18.78)	3731(13.33)	18999(67.89)

(계속)

조사기간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서비스판매업
2001年3月	5296(18.92)	3705(13.24)	18986(67.84)
2001年4月	5412(19.34)	3655(13.06)	18920(67.60)
2001年5月	5464(19.52)	3660(13.08)	18863(67.40)
2001年6月	5504(19.67)	3635(12.99)	18848(67.35)
2001年7月	5482(19.59)	3635(12.99)	18870(67.42)
2001年8月	5454(19.49)	3623(12.95)	18910(67.57)
2001年9月	5432(19.41)	3648(13.03)	18907(67.56)
2001年10月	5460(19.51)	3643(13.02)	18884(67.47)
2001年11月	5358(19.14)	3689(13.18)	18940(67.67)
2001年12月	5224(18.67)	3723(13.30)	19040(68.03)
2002年1月	5174(18.49)	3727(13.32)	19086(68.20)
2002年2月	5139(18.36)	3719(13.29)	19129(68.35)
2002年3月	5174(18.49)	3682(13.16)	19131(68.36)
2002年4月	5239(18.72)	3639(13.00)	19109(68.28)
2002年5月	5326(19.03)	3641(13.01)	19020(67.96)
2002年6月	5342(19.09)	3622(12.94)	19023(67.97)
2002年7月	5293(18.91)	3627(12.96)	19067(68.13)
2002年8月	5309(18.97)	3635(12.99)	19043(68.04)
2002年9月	5291(18.91)	3630(12.97)	19066(68.12)
2002年10月	5267(18.82)	3635(12.99)	19085(68.19)
2002年11月	5192(18.55)	3646(13.03)	19149(68.42)
2002年12月	5150(18.40)	3666(13.10)	19171(68.50)
총합	292558(19.01)	197775(12.85)	1048952(68.15)

<부표 4> 직종간 노동이동 실태

조사기간	전문관리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직	생산노무 기능직
1998年6月	2307(11.65)	1551(7.83)	4103(20.72)	5186(26.19)	6655(33.61)
1998年7月	2320(11.66)	1552(7.80)	4159(20.90)	5161(25.94)	6705(33.70)
1998年8月	2325(11.64)	1557(7.79)	4160(20.82)	5180(25.93)	6756(33.82)
1998年9月	2309(11.57)	1544(7.74)	4175(20.93)	5074(25.43)	6850(34.33)
1998年10月	2318(11.53)	1538(7.65)	4240(21.09)	5152(25.63)	6852(34.09)
1998年11月	2329(11.56)	1542(7.65)	4288(21.28)	4968(24.65)	7025(34.86)
1998年12月	2346(11.67)	1545(7.69)	4300(21.39)	4839(24.07)	7074(35.19)
1999年1月	2364(11.77)	1512(7.53)	4337(21.59)	4811(23.95)	7060(35.15)
1999年2月	2390(11.89)	1489(7.41)	4334(21.56)	4801(23.88)	7089(35.26)
1999年3月	2393(11.86)	1500(7.43)	4290(21.26)	4747(23.53)	7245(35.91)
1999年4月	2403(11.84)	1494(7.36)	4273(21.05)	4927(24.27)	7205(35.49)
1999年5月	2410(11.82)	1502(7.37)	4262(20.90)	5017(24.61)	7197(35.30)
1999年6月	2472(11.90)	1545(7.44)	4369(21.03)	4994(24.03)	7400(35.61)
1999年7月	2414(11.93)	1492(7.38)	4215(20.84)	4961(24.53)	7146(35.33)
1999年8月	2415(11.88)	1491(7.34)	4259(20.96)	4987(24.54)	7170(35.28)
1999年9月	2456(12.00)	1505(7.36)	4273(20.89)	4952(24.20)	7273(35.55)
1999年10月	2452(11.94)	1518(7.39)	4286(20.87)	5037(24.53)	7239(35.26)
1999年11月	2540(11.98)	1576(7.43)	4493(21.19)	5022(23.69)	7568(35.70)
1999年12月	2547(11.98)	1586(7.46)	4524(21.28)	4933(23.21)	7665(36.06)
2000年1月	1143(5.38)	1423(6.69)	6116(28.77)	4881(22.96)	7697(36.20)
2000年2月	1145(5.36)	1425(6.68)	6188(28.99)	4842(22.69)	7744(36.28)
2000年3月	1147(5.35)	1426(6.66)	6227(29.06)	4863(22.70)	7763(36.23)
2000年4月	1148(5.34)	1415(6.58)	6242(29.03)	4983(23.18)	7713(35.87)
2000年5月	1153(5.35)	1416(6.56)	6256(29.00)	5071(23.51)	7675(35.58)
2000年6月	1155(5.35)	1411(6.53)	6283(29.08)	5121(23.70)	7635(35.34)
2000年7月	1151(5.31)	1411(6.51)	6343(29.29)	5142(23.74)	7611(35.14)
2000年8月	1160(5.35)	1408(6.50)	6345(29.28)	5180(23.91)	7574(34.96)
2000年9月	1161(5.34)	1397(6.43)	6361(29.28)	5146(23.69)	7659(35.26)
2000年10月	1161(5.34)	1409(6.48)	6377(29.32)	5154(23.70)	7650(35.17)
2000年11月	1165(5.36)	1407(6.47)	6407(29.47)	5016(23.07)	7744(35.62)
2000年12月	1183(5.44)	1389(6.39)	6471(29.76)	4946(22.74)	7758(35.67)
2001年1月	2523(11.59)	1802(8.28)	5331(24.49)	4921(22.61)	7191(33.03)
2001年2月	2538(11.66)	17989(8.26)	5337(24.52)	4895(22.49)	7197(33.07)
2001年3月	2529(11.61)	1837(8.43)	5313(24.38)	4929(22.62)	7181(32.96)

(계속)

조사기간	전문관리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직	생산노무 기능직
2001年4月	2536(11.62)	1868(8.56)	5289(24.23)	5033(23.06)	7101(32.53)
2001年5月	2543(11.64)	1868(8.55)	5267(24.10)	5091(23.29)	7087(32.43)
2001年6月	2539(11.60)	1866(8.53)	5259(24.03)	5130(23.44)	7094(32.41)
2001年7月	2557(11.66)	1867(8.51)	5303(24.17)	5126(23.36)	7086(32.30)
2001年8月	2553(11.67)	1863(8.52)	5290(24.18)	5095(23.29)	7073(32.34)
2001年9月	2560(11.69)	1854(8.47)	5299(24.20)	5059(23.10)	7125(32.54)
2001年10月	2553(11.65)	1850(8.44)	5330(24.33)	5082(23.20)	7094(32.38)
2001年11月	2554(11.66)	1854(8.46)	5356(24.45)	4964(22.66)	7179(32.77)
2001年12月	2549(11.65)	1875(8.57)	5377(24.58)	4820(22.03)	7256(33.17)
2002年1月	2574(11.77)	1885(8.62)	5387(24.63)	4789(21.90)	7235(33.08)
2002年2月	2568(11.74)	1878(8.59)	5431(24.84)	4761(21.77)	7229(33.06)
2002年3月	2591(11.83)	1885(8.60)	5434(24.80)	4800(21.91)	7197(32.85)
2002年4月	2590(11.81)	1890(8.62)	5422(24.72)	4883(22.27)	7145(32.58)
2002年5月	2595(11.82)	1894(8.63)	5390(24.56)	4938(22.50)	7133(32.50)
2002年6月	2582(11.75)	1905(8.67)	5378(24.47)	4946(22.50)	7168(32.61)
2002年7月	2591(11.78)	1894(8.61)	5429(24.68)	4943(22.47)	7139(32.46)
2002年8月	2583(11.74)	1892(8.60)	5428(24.67)	4965(22.57)	7135(32.43)
2002年9月	2577(11.70)	1893(8.60)	5448(24.74)	4956(22.51)	7147(32.46)
2002年10月	2568(11.68)	1901(8.64)	5450(24.78)	4932(22.43)	7141(32.47)
2002年11月	2577(11.73)	1897(8.63)	5452(24.81)	4851(22.08)	7196(32.75)
2002年12月	2581(11.74)	1918(8.72)	5455(24.81)	4796(21.82)	7234(32.91)
총 합	120893(10.33)	90910(7.77)	285811(24.42)	273799(23.39)	399160(34.10)

<부표 5> 종사상 지위의 변화

조사기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998년6월	4790(24.19)	4943(24.96)	1093(5.52)	5589(28.22)	3387(17.10)
1998년7월	4732(23.78)	5058(25.42)	1084(5.45)	5650(28.40)	3373(16.95)
1998년8월	4702(23.54)	5125(25.65)	1083(5.42)	5674(28.40)	3394(16.99)
1998년9월	4658(23.35)	5262(26.37)	1097(5.50)	5673(28.43)	3262(16.35)
1998년10월	4655(23.16)	5318(26.46)	1115(5.55)	5716(28.44)	3296(16.40)
1998년11월	4651(23.08)	5508(27.33)	1086(5.39)	5714(28.35)	3193(15.84)
1998년12월	4600(22.88)	5602(27.87)	1079(5.37)	5693(28.32)	3130(15.57)
1999년1월	4548(22.64)	5612(27.94)	1064(5.30)	5718(28.47)	3142(15.64)
1999년2월	4536(22.56)	5661(28.16)	1052(5.23)	5705(28.38)	3149(15.660)
1999년3월	4504(22.32)	5877(29.13)	1052(5.21)	5649(28.00)	3093(15.33)
1999년4월	4487(22.10)	5885(28.99)	1055(5.20)	5731(28.23)	3144(15.49)
1999년5월	4464(21.90)	5932(29.10)	1061(5.20)	5784(28.37)	3147(15.44)
1999년6월	4575(22.02)	6084(29.28)	1069(5.14)	5871(28.25)	3181(15.31)
1999년7월	4437(21.93)	5823(28.79)	1042(5.15)	5803(28.69)	3123(15.44)
1999년8월	4421(21.75)	5880(28.93)	1043(5.13)	5846(28.77)	3132(15.41)
1999년9월	4445(21.73)	6028(29.46)	1059(5.18)	5856(28.62)	3071(15.01)
1999년10월	4425(21.55)	6012(29.28)	1080(5.26)	5883(28.65)	3132(15.25)
1999년11월	4545(21.44)	6437(30.36)	1120(5.28)	5956(28.10)	3141(14.82)
1999년12월	4526(21.29)	6550(30.82)	1133(5.33)	5936(27.93)	3110(14.63)
2000년1월	4529(21.30)	6569(30.90)	1128(5.31)	5931(27.90)	3103(14.60)
2000년2월	4568(21.40)	6636(31.09)	1122(5.26)	5929(27.78)	3089(14.47)
2000년3월	4553(21.25)	6719(31.36)	1104(5.15)	5948(27.76)	3102(14.48)
2000년4월	4564(21.23)	6658(30.97)	1124(5.23)	5986(27.84)	3169(14.74)
2000년5월	4565(21.16)	6658(30.75)	1138(5.28)	6029(27.95)	3206(14.86)
2000년6월	4560(21.11)	6658(30.67)	1135(5.25)	6068(28.09)	3215(14.88)
2000년7월	4570(21.10)	6658(30.65)	1145(5.29)	6089(28.11)	3216(14.85)
2000년8월	4555(21.02)	6658(29.93)	1167(5.39)	6216(28.69)	3245(14.98)
2000년9월	4570(21.04)	6658(30.29)	1161(5.34)	6183(28.46)	3229(14.86)
2000년10월	4609(21.19)	6658(30.11)	1161(5.34)	6182(28.42)	3250(14.94)
2000년11월	4593(21.13)	6690(30.77)	1178(5.42)	6107(28.09)	3171(14.59)
2000년12월	4592(21.12)	6741(31.00)	1183(5.44)	6084(27.98)	3147(14.47)
2001년1월	4600(21.13_	6750(31.01)	1171(5.38)	6101(28.03)	3146(14.45)
2001년2월	4625(21.25)	6685(30.71)	1175(5.40)	6133(28.18)	3147(14.46)
2001년3월	4650(21.34)	6699(30.74)	1171(5.37)	6140(28.18)	3129(14.36)

(계속)

조사기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01年4月	4649(21.30)	6694(30.67)	1168(5.35)	6150(28.18)	3166(14.50)
2001年5月	4612(21.10)	6701(30.66)	1188(5.44)	6174(28.25)	3181(14.55)
2001年6月	4635(21.18)	6717(30.69)	1179(5.39)	6174(28.21)	3183(14.54)
2001年7月	4594(20.94)	6759(30.81)	1184(5.40)	6217(28.34)	3185(14.52)
2001年8月	4649(21.25)	6643(30.37)	1179(5.39)	6253(28.59)	3150(14.40)
2001年9月	4655(21.26)	6693(30.57)	1187(5.42)	6242(28.51)	3120(14.25)
2001年10月	4621(21.09)	6686(30.52)	1194(5.45)	6274(28.64)	3134(14.30)
2001年11月	4615(21.07)	6793(31.01)	1206(5.51)	6229(28.43)	3064(13.99)
2001年12月	4615(21.10)	6908(31.58)	1206(5.51)	6162(28.17)	2986(13.65)
2002年1月	4609(21.07)	6918(31.63)	1205(5.51)	6167(28.20)	2971(13.58)
2002年2月	4591(21.00)	6945(31.76)	1209(5.53)	6160(28.17)	2962(13.55)
2002年3月	4604(21.02)	6891(31.46)	1228(5.61)	6209(28.34)	2975(13.58)
2002年4月	4627(21.10)	6879(31.37)	1215(5.54)	6221(28.37)	2988(13.63)
2002年5月	4623(21.06)	6847(31.19)	1216(5.54)	6241(28.43)	3023(13.77)
2002年6月	4614(20.99)	6892(31.36)	1218(5.54)	6230(28.35)	3025(13.76)
2002年7月	4599(20.91)	6919(31.46)	1223(5.56)	6243(28.38)	3012(13.69)
2002年8月	4603(20.92)	6849(31.13)	1233(5.60)	6272(28.51)	3046(13.84)
2002年9月	4605(20.91)	6870(31.20)	1234(5.60)	6280(28.52)	3032(13.77)
2002年10月	4610(20.96)	6892(31.34)	1229(5.59)	6231(28.33)	3030(13.78)
2002年11月	4609(20.98)	6970(31.72)	1230(5.60)	6185(28.15)	2979(13.56)
2002年12月	4599(20.92)	7046(32.05)	1230(5.59)	6156(28.00)	2953(13.43)
총 합	252342(21.56)	351768(30.05)	63091(5.39)	331043(28.28)	172329(14.72)

2003 연구보고서 240-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代)

<정가 원>

ISBN 89-8491-081-3 93330